

로고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 • 김진현 역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 • 김진현 역

1판1쇄 인쇄 • 1984년 15월 18일

1판1쇄 발행 • 1984년 15월 25일

2판1쇄 인쇄 • 1995년 10월 20일

2판1쇄 발행 • 1995년 10월 25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조석래

편집인 • 손병두

등록번호 • 제13-53

주소 •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화 • (대표) 780-0821 ~ 30 (직통) 786-7756 팩시밀리 • 785-0270

© 한국경제연구원, 199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는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 786-7756

ISBN 89-8031-030-7

값 9,000원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살림살이에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했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근면한 근로자와 과감한 기업가, 그리고 헌신적인 정부관료 등의 노력에 힘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자유시장경제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번영은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라는 체제와 이념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경기의 규칙 아래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오늘의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날이 풍족해지는 이면에는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와 사회복지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 숱한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은 국민들의 사고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이념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삶을 파멸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절실히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와 기업을 싫어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사회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시장주의와 반기업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시장경제와 기업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기초로 보다 나은 시장경제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주의 시리즈’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이라는 이념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고전과 현대문을 번역하고, 한걸음 나아가 자유주의 이념에 걸맞는 학술사업도 함께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손병두 부원장이 총괄을 맡고, 공병호 연구위원과 전인우 선임연구원이 실무책임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번째 사업으로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저서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Economic Policy/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를 내놓습니다. 이 책은 1984년 5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는데, 좀더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새롭게 단장하여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

니다.

아무쪼록 한국경제연구원의 ‘자유주의 시리즈’가 이 땅에 시장경제의 이념과 원리를 널리 알리고, 한걸음 나아가 이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한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5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 석 래

제1부 「현대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은
Economic Policy : Thoughts for Today and Tomorrow(1979),

제2부 「반자본주의 심리」는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1972)를 번역한 것이다.

차 례

발간사 • 5

제1부 현대경제사상과 경제정책

머릿말 • 17

제1장 자본주의 • 23

제2장 사회주의 • 41

제3장 간섭주의 • 67

제4장 인플레이션 • 89

제5장 해외투자 • 111

제6장 정책과 사상 • 131

제2부 반자본주의 심리

머릿말 • 147

제1장 자본주의의 사회적 특징과 그 비방의 심리적 요인 • 149

소비자는 왕이다 • 151

경제적 향상에 대한 충동 • 153

신분사회와 자본주의 • 155

좌절된 야망에의 원념(怨念) • 160

지식인들의 원념 • 165

미국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적 편견 • 167

인텔리 직업인들(White Color Workers)의 원념 • 170

‘사촌들’의 원념 • 174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의 공산주의 • 179

제2장 일반대중의 사회철학 • 183

자본주의의 본질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실상 • 185

반자본주의전선 • 192

제3장 자본주의하의 문학 • 197

문학작품을 위한 시장 • 199

서점가에서의 성공 • 201

탐정소설의 인기 • 203

출판의 자유 • 206

지식계급의 완고성 • 208

‘사회주의적’ 소설과 희곡 • 216

제4장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외적 비판 • 223

행복론 • 225

물질주의 • 227

불공평 • 232

자유에 대한 ‘부르주아적’ 편견 • 240

자유와 서양문명 • 249

제5장 ‘반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 255

부 록 • 265

미제스의 경력과 사상 • 267

미제스의 저작에 대한 평가 • 274

미제스의 주요저작 • 284

미제스 이전 ‘오스트리아 신고전학과’의 주요저작 • 289

제 1 부

현대경제사상과 경제정책

이 책은 저자의 기본적인 논거를 완전하리 만큼 잘 반영하고 있다. 그의 논거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아직도 동조자들로부터는 경탄의 찬사를, 반대자들로부터는 비방을 듣고 있다. 여섯 개의 강연은 제각기 독립된 시론이 될 수 있으면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자아내는 조화는 마치 훌륭하게 설계된 대건축물의 건축양식을 볼 때 느끼는 미적 쾌감을 자아낸다.

1979년 프린스턴에서
프리츠 맥클립

1958년 말 남편이 알베르토 베네가스 린치Alberto Benegas-Lynch 박사 초청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일련의 강연을 할 때, 남편과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책은 그때 남편이 아르헨티나 학생들에게 들려준 강연내용을 엮은 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것은 페론Peron이 어쩔 수 없이 아르헨티나를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의 파괴적인 통치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기반은 철저하게 붕괴되어 있었다. 그의 후임자인 에두아르도 로나르디Eduardo Lonardi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남편 역시 이것을 제공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강연은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의 대강당에서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 강당과 인접한 두 개의 강의실에서는 강연내용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되어 학생들이 이어폰으로 들었다. 루드비히 폰 미세스Ludwig von Mises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경제정책 및 독재정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의 강연을 듣고 있던 젊은이들은 시장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에 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다. 이때의 일에 대해 『루드비히 폰 미세스와의 삶My Years with Ludwig von Mises』에서 썼듯이 “그당시 나의 남편처럼 누군가가 감히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공격했다면 즉시 경찰이 뛰어들어 그를 체포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을 것이다.”

청중들의 반응은 마치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신선한 산들바람을 맞아들이는 것 같았다. 남편은 원고 없이 이야기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사고는 종이쪽지에 적힌 몇 마디의 단어를 따라 전개되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비교적 단순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강연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따라서 그들은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녹음된 강연내용은, 스페인어를 아는 비서가 옮겨적었다. 비서가 타이핑한 원고는 후일 남편의 유고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을 읽으면서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남편의 말에 광적인 열성을 보이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경제학자가 아닌, 내가 보기에도 평범한 남편의 청중들에게 들려준 이 강연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많은 이론서들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았다. 이 강연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상과 귀중한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들이 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고 느꼈다.

남편은 출판을 위해 강연내용을 손질하는 것을 몹시 꺼려했기 때문에 내가 교정을 맡았다. 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문장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고스란히 살렸으며, 남편이 곧잘 사용해서 그의 청중들에게 친숙해진 표현들도 모두 그대로 남겨두었다. 내가 한 일이라곤 단지 문장들을 이어붙이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대수롭지 않은 어휘들을 추려 내는 것뿐이었다.

이 강연을 책으로 만들어내려는 나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는 그의 문장과 함께 내가 남편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지나치게 비대한 통치권력의 해악과 위험성을 그렇게도 분명하게 논증했으며 독재정치와 간섭주의의 차이점을 그토록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서술했던 그, 그리고 풍부한 기지로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논했는가 하면 간단한 말로도 과거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강연이 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가 아닌 남편의 많은 동

조자들에게도 읽혔으면 싶다. 그리고 이 책이 젊은 독자들, 특히 전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1979년 6월
뉴욕에서
마르기트 폰 미제스

제1장

자본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술적인 용어는 가끔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현대산업의 주역이나 대기업의 총수들을 말할 때, 흔히 ‘초콜릿왕’이니, ‘목화왕’이니, ‘자동차왕’이니 하고 부른다. 사람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업총수와 지난날 봉건제도하의 왕이나 대공, 또는 영주들과의 차이를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초콜릿왕은 전혀 통치하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이나 그의 고객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정복된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초콜릿왕(혹은 철강왕이나 자동차왕, 또는 현대산업의 어떤 왕이든간에)은 그가 경영하는 산업과 그가 봉사하는 고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왕’은 그의 신민, 즉 고객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의 고객들에게 더 한층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서거나 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봉사하지 않을 때, 그 즉시 그의 ‘왕국’을 잃어버린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전인 2백 년 전에는 인간의 사회적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정되어 있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사회적 신분은 결코 바뀌는 법이 없었다. 가난하게 태어나면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영주나 대공으로 부유하게 태어나면 사회적 신분과 더불어 영지와 재산을 일생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다.

제조업에서도 그당시의 원시적 가공업은 거의 전적으로 부유층을 위해서만 존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유럽인구의 90% 이상)은 농사를 지을 뿐, 도시지향적인 가공업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이처럼 엄격한 봉건사회체제는 유럽의 가장 발달한 지역에서도 수

백년 동안이나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팽창하자, 토지에 비해 인구과잉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려받은 토지나 재산이 없는 과잉인구는 일자리도 충분치 못한 데다 가공업분야에서도 일할 수 없었다. 도시의 제왕들이 그들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버림받은 자들outcasts’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산자proletarians’였으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기껏 이 버림받은 자들을 구빈원이나 빈민수용소에 쫓아넣는 일뿐이었다. 유럽의 몇몇 지역, 특히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오늘날 인도나 그 밖의 개발도상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논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8세기 영국에서의 상태가 훨씬 더 나빴다는 점이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6백~7백만 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1백~2백만 이상이 그야말로 버림받은 극빈자들로서, 당시의 사회체제는 그들을 위해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있었다. 이들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18세기 영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원자재의 부족이었다. 영국인들은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해야 했다. 즉 산림이 산업과 난방에 필요한 목재를 더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배계급에게 이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정치가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귀족과 입장이 비슷한 중류 지배계급도 사태를 호전시킬 만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상황에서 근대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튼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규모의 공장을 세우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혁신이었다. 이 개혁자들은 상류계급에만 적합한 값비싼 재화만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욕구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원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산업의 기본원리인 ‘대량생산의 시초’였다. 도시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던 낡은 가공업이 거의 전적으로 상류계급의 수요를 위해 존재해온 데 반해, 새로운 자본주의산업은 일반대중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량생산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모든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이른바 좌익이 가장 광적으로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대기업체는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만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결코 대기업이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규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주요소비자는 바로 이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원리와 지난날 봉건시대의 생산원리간의 차이점인 것이다.

만일 대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면, 이는 큰 오해이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우리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본다.

“소비자는 항상 옳다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여기서 소비자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대기업의 힘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은 그의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의 매입이라는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고객을 상실하면 힘과 영향력을 곧 잃어버리고 만다.

50~60년 전 거의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철도회사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일컬어졌었다. 그들의 독점권에 대항하여 경쟁하는 일은 불가능한 듯했다. 운수분야에서는 경쟁이 배제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 분야에서 자기파멸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했다.

철도회사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란 어느 수송방법보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철도회사의 기존노선과 나란히 또다른 철도를 가설함으로써 이들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기존노선만으로도 현존하는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윽고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났다. 경쟁의 자유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간단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의 자유란 어떤 사람의 저술을 복사하여 저자의 업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성공을 가로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판의 자유란 누구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쓸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철도회사를 둘러싼 경쟁의 자유는 자유롭게 뭔가를 발명하고 무슨 일이든 하여 철도회사에 도전함으로써 그

들을 불안한 경쟁상태에 빠뜨릴 수 있음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철도회사의 경쟁상대로 버스, 승용차, 트럭, 그리고 항공기가 등장하여 승객수송면에서 철도회사를 고전에 빠뜨렸고, 마침내는 재기불능상태로 몰아넣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모든 사람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욱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방식과 원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전세계를 변모시켰다. 이것은 사상 유례없는 세계인구의 증가를 불러왔다.

18세기의 영국에서 토지는 6백만 인구의 생계를 최저수준에서 유지해주었다. 오늘날은 5천만 명 이상이 18세기 당시의 부유층보다도 훨씬 더 수준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군사적 ‘모험’을 위해 그토록 막대한 자원과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영국의 생활수준은 여러가지 면에서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 틀림없다.

이상이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따라서 만일 한 영국인, 혹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오늘날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친구에게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멋지게 응수할 수 있다.

“자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보다 10배나 많다는 걸 알고 있겠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 자네 조상이 누렸던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자네가 자본주의가 없어도 살았을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자네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가 성공했다는 증거야. 자네의 삶이 아주 소중한다고 여기든 말든 말일세.”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격렬한 공박과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반감의 진원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는 대중들과 더불어 비롯된 것도 아니고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영국과 유럽대륙의 상류계층) 사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자신들에게 별로 유쾌한 것이 못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19세기 초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이 지불되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 상류계층도 그들의 ‘농업’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귀족들은 노동자대중의 생활수준을 비난하면서 제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당시 노동자의 생활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초기 자본주의하의 상태는 몹시 형편없었지만, 그것은 새로 전개된 자본주의산업이 노동자들을 해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이미 인간 이하의 수준에서 살고 있었다.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공장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터무니없는 역사적 허구 중의 하나이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주부들은 요리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주방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방이 없기 때문에 공장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주방이 있다 하더라도 주방에서 요리할 찬거리가 없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안락한 가정이 있는데도 공장으로 갔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통계로 논박할 수 있다. 영국의 자본주의가 전개된 시기, 다시 말해서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인 1760년에서 1830년까지의 시기, 바로 이 기간중 영국의 인구는 배로 늘어났다. 이는 곧 일찍이 죽었을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남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상태가 극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상태를 개선한 것이 자본주의가 한 일이었다. 노동자들의 필요에 응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품을 수출하고, 식료품과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필수품을 공급한 것은 바로 초기의 공장들이었다. 초기의 자본주의 역사가들은 거둬서 역사를 왜곡(더이상 온전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했던 것이다.

다분히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초기의 자본주의 역사가들이 곧잘 인용한 일화를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마저 끌어들이고 있다. 프랭클린이 영국에 있는 한 방적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공장주인이 탄에는 자랑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보십시오, 이것이 헝가리로 갈 면제품입니다.”

프랭클린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노동자들의 옷차림이 남루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생산하지 않소?”

그러나 공장주인이 이야기한 그 수출품들이야말로 그 자신의 노동자들을 위해 ‘생산한’ 제품이다. 영국은 모든 원료를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유럽대륙에는 목화가 없었다. 영국

에서는 식량도 부족하여 폴란드, 소련, 헝가리에서 수입해 들여와야 했다. 이 수출품들은 영국국민의 생존을 가능케 한 식량수입을 위한 지불이었다. 당시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많은 예증은 상류계급과 귀족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했나 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준다. 나는 다만 두 가지 예만 인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영국의 ‘종자와 토지 seed and land’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국정부는 최저임금(정부가 결정했다)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불했다. 이 시스템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상류계급은 전통적으로 낮은 농업임금을 지불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충해줌으로써 노동자들이 도시의 공장을 찾아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막았다.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유럽대륙으로 확산된 지 8년 후,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은 또다시 새로운 생산체제에 반발했다. 독일의 경우, 프러시아의 보수귀족인 용커 Junker 들은 많은 노동자들을 임금 수준이 높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잃어버리자 ‘농민의 시골탈출 flight from the countryside; Landflucht’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독일의회에서는 이 ‘사악한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의 시각과 같은 것이었다. 독일제국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 Bismarck 공은 어느날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내 소유지에서 일했던 사람을 베를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죠. ‘왜 그대는 내 땅에서 떠났는가? 왜 시골에서 도망쳤으며, 왜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마을에는 여기 베를린에 있는 것과 같은 정원식 맥주집 Biergarten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맥주도 마시고 음악도 듣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용자인 비스마르크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이며 피고용인들의 관점은 아니다. 그들이 제조업으로 이동해간 것은 이 업종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유례없을 정도로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상류계급과 하류계급 사이에 기본적인 생활격차가 거의 없다. 다같이 의식주는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세기나 그 이전의 생활격차란, 이를테면 중류계급은 신발을 신고 있는 데 반해 하류계급은 신발조차 ‘못 사 신을’ 정도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란 캐딜락 승용차나, 시보레 승용차의 차이일 뿐이다. 중고품으로 산 시보레 승용차도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똑같은 편의를 제공한다. 그도 역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인의 50% 이상이 자기소유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공박, 특히 임금률wage rates과 관련된 공박은 임금이 궁극적으로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지불된다는 그릇된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제학자나 경제학도들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구별하여 이 둘을 뚜렷이 구분짓는 것은 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모든 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이 쓸 돈을 벌어야 하며, 대다수의 많은 소

비자들이야말로 그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생산해내는 기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자본주의하의 임금률은 임금을 벌어들이는 계층의 사람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두 계층의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인 셈이다.

영화배우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할리우드의 영화사가 ‘아니라’ 영화관에 입장료를 지불하는 관객들이며, 권투선수에게 엄청난 대전료를 지불하는 것은 권투시합의 흥행주가 ‘아니라’ 그 권투시합에 입장료를 내는 사람들이다. 경제이론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구분은 아니다. 실생활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하나이며 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봉급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인이 노동자 가족이 몇 식구냐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개인으로서의 당신은 어떤 물건, 예컨대 빵 한 조각에 대해 그 빵을 생산한 사람이 여섯 명의 아이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답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이가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빵을 사고 싶다.”

만일 구매자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고용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자본주의체제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닌, 자본주의체제가 역사상 모든 체제 가운데 최악의 것이며 인류에게 들이닥친 가장 큰 재난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의해서였다. 그가 바로 칼 마르크스Karl Marx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 용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 용어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진행된 커다란 사회적 진보의 근원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적 진보는 자본축적의 결과였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이 생산한 것을 전부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 투자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나는 이 여섯 차례의 강연을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릇된 인식, 즉 자본의 축적과 그 이용, 그로부터 얻어지는 보편적 이익에 관해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오해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특히 해외투자과 현대정치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플레이에 관한 강연에서 자본주의를 다시 다룰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인플레이는 아르헨티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간혹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다. 즉 저축은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임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액수의 돈, 예컨대 1천 달러가 생겼다고 하자. 이를 써버리는 대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맡겼을 때, 이 돈은 기업가나 사업가의 수중으로 흘러 들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이 부족해서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업가는 이 추가자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즉 이 추가자본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원료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와 원료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임금과 더 높은 원료가격의 압박을 유발한다. 저축자나 기업가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훨씬 전에 원료생산자, 농민, 임금노동자들은 이 추가저축의 이득에 다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기업가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장래의 시장상황과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동자뿐 아니라 원료생산자들은 즉각적으로 이득을 얻는다.

30~40년 전에 소위 헨리 포드Henry Ford의 ‘임금정책wage policy’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포드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그가 다른 경영자나 공장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의 임금정책은 하나의 ‘발명’으로 일컬어졌지만, 이 새로운 ‘발명’은 포드의 관대함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새로운 사업분야이건 기존 사업분야의 새 공장이건, ‘여타’ 직업이나 여타 지역,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의 대가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자본주의 초기에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처음으로 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했다. 물

론 새로 생겨난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그전엔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더욱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되고 더욱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자 임금률이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영국인구의 유례없는 증가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를 위해 고안된 체제라고 조소 섞인 논리를 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사회주의의 도래에 관한 마르크스의 명제는 노동자들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으며’, 대중들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어’, 결국 한 나라의 모든 부는 소수의 손, 아니면 오직 단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가난해진 노동자대중이 항거하여 부유한 소유자들의 부를 몰수하리라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의 이 교의에 따르면, 자본주의체제 안에서는 노동자의 조건이 개선될 기회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1865년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에서 칼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이 근로대중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절대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더 높은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을 ‘보수적’이라고 불렀다. 보수주의란 말은 칼 마르크스가 쓸 수 있었던 가장 경멸스런 용어이다. 그는 노동조합들이 새롭고 ‘혁명적’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다. 즉 이 임금체제를 모조리 쓸어내고 사유재산제도를 ‘사회주의’(생산수단의 정부소유)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 특히 1865년 이후 영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마르크스가 모든 점에서 그릇되었음을 알 것이다. 대중들의

조건이 유례없이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에는 하나도 없다. 칼 마르크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8,90년 동안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도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제반조건이 결코 개선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하나의 그릇된 이론, 즉 유명한 ‘임금철택iron law of wages’을 추종했다. 임금철택이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론을 정립했다. 즉 노동자의 임금률이 올라가 생계비 수준을 넘어서면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갖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편입되면 임금률이 떨어지는 하한까지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여 임금률이 또다시 생계비 수준, 즉 근로대중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겨우 면할 정도의 최저 생계유지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다른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마치 생물학자들이 동물들, 예컨대 새앙쥐의 생활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정말로 그렇다)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노동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동물이나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려주면 그것들은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다. 반면에 먹이를 제한하면 그들의 숫자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노동자라 할지라도 식량과 종족생식 이상의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는 인구증가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평균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서구나 미국이 개발

도상국, 이를테면 아프리카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높은 생활수준은 자본의 공급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상황과 인도의 상황간의 차이를 말해준다. 즉 전염병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퇴치하기 위한 현대적인 방법이 인도에 도입되자 유례없는 인구 증가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자본투자가 따르지 않자 결과적으로 빈곤의 증가가 뒤따랐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개인당 투자자본의 증가에 비례하여 더욱 번영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강연에서 더욱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 예를 들어 1인당 투자자본 the capital invested per capita 같은 것은 다소 상세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정책에는 결코 기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은 많은 신문과 강연에서 소위 독일경제의 기적,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와 파괴를 맞본 후 독일이 이룩한 부흥에 관해 읽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즉 자본주의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였다. 비록 그것들이 모든 부문에 걸쳐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경제부흥이란 기적에서 오지 않는다고 단호히 주장하며, 어느 나라나 그와 똑같은 경제부흥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기적은 건전한 경제정책의 채택에서 오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인 것이다.

제2장

사회주의

나는 자유경제연구소Institute por la Economía Libre의 객원연구원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 있다. ‘자유경제economía libre’란 무엇인가? 이 경제적 자유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시장경제이며, 사회적 분업 속에서 개인간의 협동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이 시장은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process’이며, 그 안에서 매매와 생산과 소비에 의해 개인들이 사회의 전체적 운용에 기여하는 양식이다.

이 경제기구의 체제, 즉 시장경제를 다룰 때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들이 그것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를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유와 다른 자유가 동떨어진 것으로 믿는가 하면, 다른 자유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도 다른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적 자유의 의미는 바로 다음과 같다. 즉 개인은 사회 전체 속에 자신을 통합시키는 방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그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개념에 붙이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통해 인간이 자연조건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자연에는 자유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인간이 무엇인가를 획득하고자 할 때, 복종해야만 하는 자연법칙의 일정 불변한 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지 ‘사회 안에서의 자유the freedom within society’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자유는 제각기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스스로를 ‘자유주의자liberals’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자유주의적 강령에서 주장했던 정책들과는 정반대 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 없는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비롯한 모든 자유가 소위 경제적 자유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는 매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시장이 없고, 정부가 모든 것을 지시하는 체제에서는 이러한 여타의 모든 자유는 비록 법률로 만들고 헌법에 써넣는다 하더라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정부가 모든 신문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는 활자화되어야 할 것과 활자화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견해에 반대하는 어떤 종류의 주장도 활자화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출판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이다. 여타 다른 자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라면 어느 것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개인은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자기만의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개인의 직업은 정부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이나 장소로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모난 시민에게 그가 집권층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5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도록 정부계

획이 명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언제나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형이상학적 견지에서 본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완전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자유란 단지 사회의 틀 안에 있는 어떤 것만을 의미할 뿐이다.

18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에 관한 저술가들, 특히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아득한 과거에 인간들은 ‘천부의natural’ 자유라는 것을 누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아득히 먼 시대에 개인들은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었다. 루소의 유명한 말에 이런 것이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속박되어 있다.”

이 말이 옳게 들릴지는 모르나, 사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아주 연약한 짐승으로 태어난다. 양친의 보호가 없다면, 즉 사회가 양친에게 부여한 보호역할이 없다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 자유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하의, 다시 말해 ‘자유경제Economia libre’ 상태에서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제각기 그의 동료·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그 답례로 그들의 봉사를 받는 하나의 상황을 뜻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나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의 거물이 시장경제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체계의 거물이나 실업가, 그리고 기업가들이 이 경제체제의 거물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이 경제체제에서 진정한 거

물은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만일 소비자들이 한 분야의 사업을 후원하지 않는다면 경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체제에서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소비자들의 바람이나 주문에 적응시킬 수밖에 없다.

아주 널리 알려진 공산주의 선전가 중에 패스필드Passfield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결혼 전 이름인 베아트리체 포터Beatrice Potter나 남편인 시드니 웹Sidney Webb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부유한 사업가의 딸로 젊은시절에는 부친의 비서로 일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의 아버지 회사에서는 누구나 우두머리인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만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 반면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근시안적인 견해이다. 명령은 소비자와 구매자가 그녀의 부친에게 ‘내리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바로 ‘이러한’ 명령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그녀는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사무실이나 공장 안에서 내려지는 명령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문제를 볼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위대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가 한 말이다. 그의 뛰어난 논문 중에 “당신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Ce qu'on voit et ce qu'on ne voit pas”이라는 것이 있다.

경제체제의 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만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각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장이 사무실의 사환에게 내리는 명령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 들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사장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자본주의체제하의 궁극적인 사장은 소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foolish)’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이것이야말로 주권자의 특권이다.

주권자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아무도 그의 실수를 막을 수 없다. 물론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최고라거나 소비자는 주권자라고 말한다 해서 소비자가 과실에서 면책된다거나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항상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흔히 사서는 안될 것을 사기도 하고, 소비해서는 안될 것을 소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부형태가 국민들의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그들이 손해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정부를 거부장적 권위나, 만인의 후견인으로 보는 견해는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자들의 견해이다. 수십년 전 미국정부는 이른바 ‘고상한 실험(a noble experiment)’이라는 것을 시도했었다. 이 고상한 실험이란 주류소비를 불법화하는 법률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브랜드와 위스키를 마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지나친 과음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몇몇 관계당국자는 흡연까지도 반대했다. 확실히 많

은 사람들이 지나친 흡연을 하고, 금연이 자신을 위해서도 더 좋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는 무수히 많다. 이것은 경제적 논의를 훨씬 넘어선 문제를 제기한다. 즉 자유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고 하자. 그러나 일단 이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몸이 전부인가? 사람의 정신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사람의 정신은 인간의 기본적 자산도, 진정한 인간의 자질도 아니란 말인가?”

만약 우리들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소비를 결정하고, 흡연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거나, 음주를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거나를 결정하는 권리를 정부에 준다면, “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과 영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는 것은 저질의 책을 읽고, 저질의 음악을 듣고, 저질의 영화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알다시피, 수백년 동안 정부와 관계당국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의무’라고 믿었다. 그러나 아득히 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독일에는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을 구분짓는 것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정부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청년시절에 비엔나에 있는 미술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본 좋고 나쁨이었다. 그림엽서를 그리는 한 화가의 관점에서 본 좋고 나쁨이었던 것

이다. 사람들이 미술과 회화에 관해 총통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행위 역시 불법화되었다.

알코올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받아들인다면, 책과 사상의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란 실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동료·시민들이 돈을 쓰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지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어리석고 좋지 않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사회에서는 동료·시민들이 그들의 생활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많이 있다. 그들은 책을 쓸 수 있고, 기사를 쓸 수 있고, 연설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원한다면 길모퉁이에서 설교까지도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바로 굴종과 자유의 차이점이다.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는 일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시민은 그 자신의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뜻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자본주의체제는 일부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수 있고, 또 오용되고 있기도 하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할 때도, 이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동료와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수궁시킬 수는 있지만, 힘이나 정부의 경찰력을 사용하여 강압할 수는

없다.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신에게 봉사함으로써 그의 동료·시민들에게 봉사한다. 18세기의 자유주의 저술가들이 대중의 모든 집단과 개인들의 올바른 이해관계의 조화에 대해 말했을 때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한 것도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이 원리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집단간의 ‘타협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갈등(irreconcilable conflict of interests)’에 관해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 마르크스가 그의 사회주의운동의 발단인 소책자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의 첫장에서 타협할 수 없는 계급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을 때, 전前 자본주의사회상에서 끌어낸 것 이외의 예를 들어 그의 논제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전 자본주의시대에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사회가 세습적 신분집단들로 나뉘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예컨대, 한 인간은 프랑스인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그는 프랑스 귀족계급의 일원으로, 아니면 프랑스 시민계급의 일원으로, 혹은 프랑스 소농계급의 일원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중세시대에 그는 단지 농노일 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농노제가 미국 독립전쟁 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유럽의 여타 지역에서는 훨씬 뒤에야 사라졌다.

농노제가 최악의 형태로 존재했던 곳은 영국의 해외식민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까지 계속 존속했다.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으면 평생동안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자식들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집단은 제각기 특권 내지는 불이익을 갖고 있었다. 최상위 집단들은 오로지

특권만을, 최하위의 집단들은 오로지 불이익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덮어씌운 법률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려 먼 타계급들에 대하여 정치적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노예소유자와 노예들간의 타협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예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노예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예소유자에게는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들의 구성원간에 이러한 타협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당시 신분사회는 훗날 유럽인들이 미국에 세운 식민지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널리 보편화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자국의 여타 계급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국가에 있는 자기와 같은 계급의 구성원들에게 훨씬 더 강한 일체감을 느꼈다. 프랑스귀족은 하층계급의 프랑스인들을 같은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가 싫어하는 ‘천민rabble’일 뿐이었다. 그는 단지 다른 나라의 귀족들, 예컨대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독일의 귀족들만을 같은 계층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낸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유럽전역의 귀족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언어는 프랑스어였으며 다른 나라의 타계층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중류계급, 즉 시민계층bourgeoisie도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었으며, 하류계급, 즉 소농계급 역시 타계급 사람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사용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였다. 1750년에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면, 상류계급인 귀족들은 유

럽전역에 걸쳐 대개 똑같은 식으로 차려입고 하류계급은 제각기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때 누군가를 거리에서 만났다면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즉각 그가 어느 계급, 어느 신분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대와 어떻게 다른가를 상상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나는 아르헨티나 거리에서 어떤 사람의 걸모습만을 보고 그의 신분을 알아내지 못한다.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르헨티나의 한 시민이라는 것과 법률상 금지된 집단의 일원이 아닐 것이라는 점뿐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져온 한 가지 현상이다. 물론 자본주의 안에는 여러 차이점들이 있다. 부의 차이도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차이를 신분사회에서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낡은 차이와 대등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 안에서의 차이점은 사회주의사회 안에서의 차이점과 똑같지 않다. 중세에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훨씬 뒷날 까지도 한 가족이 세습에 의해 귀족가문이 될 수 있었으며 막대한 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자질이나 재능, 성격이나 품행에 상관없이 수백년을 두고 공작의 일족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는 사회학자들이 학술적으로 묘사하고 정립해온 개념 가운데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라는 것이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파레토Vilfredo Pareto는 이 사회적 이동성의 동적 원리를 일컬어 ‘엘리트들의 순환la circulation des élites’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회계층social ladder의 꼭대기에는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사람들, 즉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전前 자본주의

적 신분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유럽의 고귀한 귀족으로 존경 받았던 가문의 후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문에 속하지만, 8백 년, 1천여 년 전에는 유럽에서 으뜸가는 가문의 자손들이었다.

오랫동안 이곳 아르헨티나를 통치했던 부르봉왕조Bourbon 시대의 카페왕족Capetians은 일찍이 10세기 때의 왕가였다. 이 왕조의 왕들은 현재 일드프랑스(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옛 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그들의 통치권을 계승시켰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이동성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유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부를 잃고 가난해지기도 한다.

오늘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의 한 서점에서 어떤 사업가의 전기를 보았다. 19세기 유럽에서 대기업을 경영했던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데다 유력한 인사로 아주 특이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나라의 서점에서도 그의 전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우연한 계기에 이 사람의 손자를 사귀었다. 그의 이름은 조부의 이름과 같은데, 아직도 귀족칭호를 지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귀족칭호는 대장장으로 출발했던 그의 조부가 80년 전에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자는 뉴욕의 가난한 사진사이다.

이 사진사의 조부가 유럽에서 으뜸가는 실업가이던 당시에 가난했던 다른 사람들은 오늘날 산업계의 거물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분체제와 경제적 자유가 있는 자본주의체제와의 차이점이며,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위

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닷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지금까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실업가는 헨리 포드이다. 그는 친구에게 빌린 불과 수백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지극히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대기업체를 키워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이미 타계한 유명인에 대한 장문의 전기를 게재하고 있다. 이 전기들을 읽어보면 뜻밖에 뉴욕의 길모퉁이에서 신문팔이로 시작했던 한 저명한 사업가와 만날 수도 있다. 혹은 은행사환으로 출발하여 죽을 무렵엔 그 은행의 총재가 된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지위에 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봉건사회나 신분사회 시대에 열려 있지 않았던 다른 길들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는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경제당국만이 존재할 뿐이며, 바로 이 당국이 생산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우리시대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을 쓴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공통되는 어휘는 ‘계획planning’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계획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중앙집권적central’ 계획이다. 계획은 ‘정부가 만드는 하나의 계획one plan by the government’, 즉 정부 이외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의 계획을 뜻한다.

영국의 한 여성 상원의원이 『계획이나 무계획이나Plan or No Plan』라는 책을 쓴 일이 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꽤 인기가 있었다. 그녀의 책제목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계획’을 말할 때,

그녀가 뜻하는 것은 단지 레닌이나 스탈린,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이 상상했던 유형의 계획, 즉 한 나라 국민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그녀가 의미하는 것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계획을 배제하는 중앙집권적 계획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책제목인 『계획이나 무계획이나』는 착각이며 기만이다. 즉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은 중앙집권적 계획이나 무계획이나가 아니라, 그것은 중앙정부 당국의 ‘전체계획the total plan’이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바를 실행하는 ‘자유freedom’나인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일일계획을 바꾸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설계해나간다.

자유인은 매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예컨대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나는 어제 일생동안 코르도바Cordoba에서 일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을 알면 이렇게 말한다.

“코르도바에서 일하지 않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음이 판명될 수도 있다. 코르도바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그 자신이 세운 것이다.

정부계획하에서의 개인은 군대의 병사와 똑같다. 군대의 병사는 주둔지나 복무하고자 하는 곳을 직접 선택할 권리가 없다.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는 칼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잘 알고 인정한 것과 같이 군대규칙을 생산체제 전체에 이전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산업군 industrial armies’을 말했고, 레닌은 모든 것, 예를 들어 우체국, 공장, 기타 산업체를 군대양식에 따라 조직할 것을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최고당국자의 지혜와 수완,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에 달려 있다. 최고위 독재자나 그가 거느리는 위원회가 알지 ‘못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지식을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너무도 엄청난 양의 과학기술 지식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 재능을 지녔다 하더라도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알기란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다.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도 동등해질 수 없다. 어떤 한 분야에서는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재능이 모자라기도 한다. 또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고 학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적 진보를 이룬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착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착상의 가치를 알아차릴 만큼 현명한 소수의 사람을 찾으려고 애쓴다. 과감하게 장래를 예견하고 그러한 착상의 가치를 깨달은 일부 자본가들은 그 착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바보들이야.” 그러나 바보라고 불렀던 이 기업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즐겨 그의 생산품을 구입하는 것을 발견할 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체제하에서 그러한 착상이 탐구되고 개발될 수 있으려면 먼저 최고 정부기관이 그 착상의 가치를 확신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단지 정상에 앉아 있는 일부 사람들, 혹은 최고 독재자 자신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의 나태나 노령 탓으로, 혹은 그리 총명하지도 못하고 무지한 탓으로 이 새로운 착상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 새로운 계획은 착수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사戰史에서 이러한 실례를 떠올릴 수 있다. 나폴레옹은 물론 전쟁 등 군사에서는 천재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여 고도 세인트헬레나St. Helena로 유배당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문제는 ‘어떻게 영국을 정복할 것인가’였다.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도버해협을 건널 해군이 필요했다. 그 해협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범선 시대에 살면서도 증기선에 관한 새로운 착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들의 제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의 유명한 참모본부Generalstab를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 참모본부는 군사적인 지혜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평가받았다. 프랑스 포쉬Foch 장군의 참모도 비슷한 평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인들이나 포쉬 장군의 지휘로 후에 독일인들을 패배시킨 프랑스인들이나 모두 다 군사목적에서의 항공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독일 참모본부는 이렇게 말했다.

“항공술은 단지 오락용일 뿐이다. 하늘을 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나 맞는 일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직 체펠Zeppelin 비행선만이 중요하다.”

프랑스 참모본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 미국의 한 장군이 항공술은 다음에 올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미국의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 그에 반대했다. 그는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할 경우, 그들이 문제의 해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설득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은 경제 외적인 문제들에도 적용된다.

화가, 시인, 작가, 작곡가 중에는 민중들이 그들의 작품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예술가들이 “정부가 위대한 예술가, 화가, 작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신인화가 정말로 위대한 화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을 정부가 도대체 누구에게 맡겨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비평가나 예술사藝術史 교수들의 판단에 의존해야 할 텐데, 이들은 항상 지나간 과거나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천재를 발견해내는 재능을 보인 일이 극히 드물다. 이것이 바로 ‘계획’체제와 모든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체제 사이의 큰 차이점이다.

물론 위대한 화가들이나 위대한 작가들이 종종 큰 고난을 감내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예술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돈버는 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못했다. 반 고흐Van Gogh는

분명히 위대한 화가였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역경을 겪어야 했으며, 결국 37세 때 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일생을 통해 그는 ‘단 한 폭’의 그림만을 팔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은 그의 사촌이었다. 이처럼 단 한 폭의 그림을 팔아가지고는 어렵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술가도 화가도 아닌 그의 동생이 주는 돈으로 살았다. 그러나 반 고흐의 동생은 화가의 욕구를 이해했다. 오늘날 여러분은 10만 달러나 20만 달러 이하로는 반 고흐의 그림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라면 반 고흐의 운명은 달랐을지 모른다. 어떤 정부관리는 몇몇 잘 알려진 화가들(반 고흐는 이들을 결코 예술가로 보지 않았으리라)에게 반 미쳤거나 아주 미쳐버린 듯한 이 젊은이가 정말로 지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화가인지를 물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답변했으리라.

“아닙니다. 그는 화가도 예술가도 아니고 단지 페인트나 낭비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우유공장이나 정신병자 수용소로 보내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화가들, 시인들, 음악가들, 언론인들, 배우들이 사회주의편을 들어 것처럼 대단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집단들이 사회주의사상의 가장 열광적인 지지자들 축에 들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문제는 다소 달라진다. 사회주의 저술가들은 현대산업과 현대기업의 모든 운영이 계산calculation에 기초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 계산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엔지니어들만이 아니다. 기업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기업가들의 계산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장경제에서는 재화의 화폐가격이 소비자에게뿐만 아니라 기업가에게도 생산의 요소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 시장의 주된 기능은 단지 생산과정 ‘마지막’ 부분의 비용과 소비자의 손에 재화가 이전되는 비용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시장체제 전체는 생산의 요소, 즉 원료·기계·도구류의 입찰과 생산의 인적 요소의 입찰, 즉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실업가간에 임의로 계산된 노동의 분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업가들의 이러한 계산은 시장이 부여하는 가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시장을 없애버린다면,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바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나 과학기술자들의 계산을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계획project을 제공해준다. 이 계획들은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실행 가능한 것들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이들 계획 중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시장에 기초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내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자본주의적인 경제계획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사실 경제적인 계산, 따라서 모든 과학기술적인 계획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의 제요소 대한 화폐가격이 성립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원료, 모든 반제품, 모든 도구와 기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간노동과 인적 서비스를 위한 시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150년 동안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의 모든 악은 시장과 시장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우리는 시장과 아울러 시장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그것을 가격도 없고 시장도 없는 체제로 대체시킬 것을 원한다.”

그들은 마르크스가 재화와 노동의 상품성commodity character이라고 부른 것을 폐지하고자 했다.

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자 사회주의 저술가들은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폐지하지는 않겠다.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겠다. 우리는 학교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시장놀이를 하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놀이’를 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단지 운동이나 게임일 뿐이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놀이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나의 저작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여섯 차례의 강연만으로는 그것의 모든 국면들에 대한 분석을 논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회주의하에서는 계산과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스페인어로 훌륭하게 번역된 나의 저서 『인간의 행동Human Action』

을 읽기를 권한다.

그리고 경제적 계산에 관하여 쓴 노르웨이 경제학자 트리그브 호프Trygve Hoff의 저서와 같은 다른 책들도 읽기 바란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싶지 않다면 폴란드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스카 랑게 Oscar Lange가 이 주제에 대하여 쓴 사회주의적 저서도 읽도록 권하는 바이다. 오스카 랑게는 한때 미국에서 대학교수였다가 주미 대사가 되었고 그 뒤 폴란드로 돌아갔다.

아마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소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련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바로 이것이 문제를 다르게 만든다. 소련인들은 모든 생산요소, 모든 원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운용한다. 따라서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련의 조건과 미국의 조건 사이에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흔히 소련인들은(그들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그 어떤 것이 전혀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른바 ‘소련의 실험Soviet experiment’은 아무것도 입증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나 계산의 문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인간의 행동과 경제학의 분야에서는 과학적 실험 따위는 없다고 믿는다. 인간의 행동분야에서는 실험실 실험을 할 수 없다. 과학적 실험은 우리가 여러가지 상태하에서 똑같은 일을 할

것과, 형편에 따라서는 단지 한 개의 요인만을 변경시키면 우리 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암에 걸린 동물에게 어떤 실험용 약물을 주입했을 때, 암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악성질환에 걸린 같은 종류의 동물 여러 마리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다. 만일 그 중의 몇 마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하고 나머지는 치료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분야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없다. 인간행동에는 실험실 실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소련의 실험’은 단지 전세계가 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라인 미국보다 소련의 생활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만일 이 말을 사회주의자에게 한다면 그는 물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소련의 물건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물건들이야 훌륭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생활수준은 훨씬 낮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국 러시아 황제치하에서의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싸움을 해야 했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올바른 설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의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건이 같지 않아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실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이 말이 훨씬 올바

를 것이다).

“소련에서의 사회주의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이루어진 향상과 비교될 수 있는 제반조건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주 무언가 새로운 일, 진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사업이 가져온 진보들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업가들이 소비자를 보다 더 만족시켜 주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혹은 기존의 생산품보다 더 좋고, 그리고 더 값싸고 새로운 생산품을 발견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이타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50년, 혹은 1백 년 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놓았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에 있어 미국과 비교될 수가 없다. 만약 우리 중 소련의 체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 밖에 또 말해야 될 것이 있다. 미국의 소비자, 즉 개인은 구매자이자 사장이다. 미국에서 어떤 상점을 나설 때, 이렇게 썩인 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십시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오늘날의 소련이나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의 상점에 들어가면, 점원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위대한 영도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감사해야 할 사람이 파는 자seller가 아니라 사는 자buyer이다. 시민은 사장이 ‘아니다’. 사장은 중앙위원회

이며 중앙관서이다. 그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위원회와 지도자들과 독재자들이 왕이며, 시민들은 다만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3장

간접주의

아주 빈번하게 인용되는 유명한 문구에 이런 것이 있다.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이다.”

나는 이것이 좋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고는 믿지 않는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맡겨진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들을 난폭하고 기만적인 악한의 공격에서 보호해야 하며 외적에 맞서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체제와 시장경제체제 안에 있는 정부의 기능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정부의 기능은 전체주의적이어서, 정부의 권력권과 지배권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주요임무가 국내외의 사기나 폭력에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런지 모른다.

“이 사람은 정부를 미워하고 있군.”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가솔린은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매우 유용한 액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을 마시는 것은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솔린의 적이 아니며, 또 가솔린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솔린이 어떤 용도에는 매우 유용하나 다른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살인자와 기타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지만 철도를 경영하거나 쓸데없는 일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온당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한다 해서 결코 정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자유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현대의 여건하에서는 ‘혼합경제mixed economy’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 ‘혼합경제’를 입증하는 예로서 사람들은 정부가 운영하고 소유하는 많은 기업들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많은 나라의 정부가 일정한 공공시설, 예를 들어 전화, 전신, 그리고 철도 따위를 소유·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공공시설이나 기업의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우리 경제체제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비사회주의적인 자유시장경제 안에 소사회주의little socialism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운영할 때 시장의 대권supremacy에 지배받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정부가 소비자의 대권에 지배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예컨대 우체국이나 철도를 운영한다고 할 때, 이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 기업들의 경영에 필요한 원료와 기타 물건들을 사들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비스와 상품을 대중들에게 판매한다. 이처럼 정부가 자유경제체제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운영하는데도 결과는 대개 적자이다.

물론 정부는 그러한 적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적어도 정부나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적지를 안고도 어떤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곧바로 적자를 면할 수 없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적어도 더이상의 적자나

손해를 입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 개인은 파산하고 기업은 끝장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적자라도 견뎌나갈 수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납세자가 정부가 적자기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면, 그리고 대중들이 이 손해를 받아들인다면, 물론 그 기업은 존속할 것이다.

요 몇해 사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유화된 시설물과 기업의 수를 늘림으로써 적자의 규모가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오늘 강연의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문제는 뒤에 다룰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지 혼합경제를 ‘간섭주의(interventionism)’의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오늘밤은 간섭주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간섭주의란 무엇인가? 간섭주의란 정부가 그의 활동을 질서의 유지나, 1백 년 전 사람들이 흔히 말했듯이 ‘안전의 산출(the production of security)’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시장의 현상에 간섭하고 싶어한다.

누가 이에 반대하여 정부는 기업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나 간섭하기 마련이다. 거리에 경찰관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점을 약탈하

는 강도를 제지하거나 차를 훔치는 것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간섭주의를 다루고 간섭주의의 의미를 정의할 때, 우리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이 기업가, 그리고 그들의 피고용인을 포함한 시민들을 국내외 폭한들의 공격에서 보호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부에 대해서나 갖게 되는 필요한 기대이다. 그러한 보호는 간섭이 아니다. 정부의 유일한 합법적 기능은 바로 안전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섭주의에 관해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폭행이나 사기를 방지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정부의 의욕이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시장현상에 간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물가, 임금수준, 이자율, 그리고 이윤 등에 간섭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가들이 오직 소비자들에게만 복종했을 때 선택했을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기업을 경영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간섭하려 든다. 따라서 정부가 취하는 간섭주의의 모든 수단은 소비자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정부는 월권하려 들거나 적어도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손에 있는 힘의 일부를 침해하려 든다.

많은 나라의 정부가 특히 인플레 시기에 즐겨 시도하는 간섭주의의 한 예를 생각해보자. 그 예로 가격통제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정부는 통화공급을 늘렸을 때 국민들이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물가불안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면, 보통 가격통제라는 수단에

호소한다. 역사상 실패로 끝난 가격통제 방안들의 유명한 예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예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예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정력적으로 가격통제를 강행하거나 강행하려 했다.

첫번째 유명한 예는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로마황제의 경우로, 그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한 로마의 황제 중 마지막 황제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3세기 후반의 이 로마황제는 유일무이한 재정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통화의 품질저하(currency debasement)였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의 원시적인 그당시에는 인플레이머저도 원시적이었다.

정부는 주화, 특히 은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부는 은화의 색깔이 변하고 무게가 현저히 줄어들 때까지 점점 더 많은 동을 은에 섞었다. 이러한 통화의 품질저하와 이에 연관된 통화량 증가의 결과는 물가상승이었으며, 이어 가격통제를 위한 포고가 뒤따랐다. 로마황제들은 법을 집행할 때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그들은 값을 올리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도 지나친 처벌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들은 가격통제를 강행했으나 사회를 다스려나가지는 못했다. 그 결과 로마제국은 멸망했으며 분업체제가 등장하였다.

그 후 1천5백 년이 지난 프랑스혁명 기간에도 통화의 품질저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다. 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현저히 진보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로서는 더 이상 통화의 품질저하라는 수단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인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인쇄기는 매우 능률적이었다. 또다시 결과는 전례없는 물가상승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정부는 디오클레티안 황제처럼 극도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최고가격제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시민들을 살해하는 기술에서도 진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길로틴(단두대)을 발명한 길로틴(J. I. Guillotin, 1738~1814) 박사를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길로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역시 최고가격제의 시행에 실패했다.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자신이 길로틴으로 실려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저기 비열한 최고가격제(Maximum)가 간다.”

내가 이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왕왕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가격규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더 많은 잔인성과 더 많은 권력뿐이다.”

확실히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매우 잔인했다. 프랑스혁명도 역시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대의 가격통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자. 정부는 우유값이 올랐다고 불평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 분명히 우유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에 대해 최고가격을 공포한다. 이 최고가격은 실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것이다. 그리고는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우리는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편에서는 우유의 가격인하가 우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값이 비쌀 때는 우유를 살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가 공포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싼 값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일부 업자들, 즉 한계생산자들(marginal producers)이 손해를 본다. 정부가 공포한 가격이 그들의 비용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된다. 민간기업가인 생산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다. 손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생산을 제한해버린다. 젖소의 일부를 도살장에 팔거나 우유 대신 크림, 버터, 치즈 등의 우유 가공제품을 만들어 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유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우유부족을 초래하며 동시에 더 큰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가 공포한 가격을 지불하려는 일부사람들은 우유를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불안해진 사람들은 상점에 먼저 가려고 서두른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품들에 대해 최고가격을 공포한 도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으로 사람들의 기다란 행렬이 언제나 나타난다. 이러한 일은 우유가격이 통제되었을 때 어느 곳에서나 있어왔다. 경제학자들이 항상 예견했던 일이다. 물론 이것은 소수의 올바른 경제학자들만이 예견했을 뿐이다.

정부가 취한 가격통제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의 만족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만을 심어주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우유값이 비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 있었다. 이제는 구입할 수 있는 우유의 양이 부족해졌다. 따라서 우유의 총소비량이 하락해버렸다. 아이들은 우유를 더 마시기는커녕 오히려 덜 마시게 되었다.

정부가 취하는 다음 단계의 수단은 배급이다. 배급이란 어떤

사람들은 특전을 입어 우유를 구입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물론 누구는 우유를 구입하고 누구는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도, 예컨대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우유를 마셔야 된다거나 4세 이상의 아이들, 또는 4세와 6세 사이의 아이들은 4세 이하의 아이들이 받은 배급량의 절반만 마셔야 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 구입할 수 있는 우유의 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보다도 더욱 큰 불만을 품는다. 이제 정부는 우유생산자에게 이렇게 묻는다(정부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왜 전에 생산했던 것과 똑같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가?”

그러면 정부는 이런 대답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생산비용이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여러가지 생상품목의 비용을 검토하다가 가축사료가 그 품목들 가운데 하나임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유에 가한 것과 똑같은 통제를 이제는 가축사료에도 적용해야겠군. 가축사료에 대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비용으로 젖소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당신들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우유를 팔 테니까.”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축사료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뿐이다. 가축사료의 생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청문회를 연다. 그리고 우유생산자들에게 들었던 것과 똑같은 해명을 가축사료 생산자들에게서 듣는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가격통제의 원칙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또다시 가축사료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에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우유뿐만 아니라 계란, 육류, 그리고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번번히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어디서나 그 귀결은 똑같아진다. 일단 정부가 소비재에 대해 최고가격을 정하면 정부는 생산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가격이 통제된 소비재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의 가격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불과 몇 가지 안되는 품목에 대해 시작한 정부의 가격통제는 더욱 더 기초적인 생산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노임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생산재에 대해 최고가격을 정한다. 임금통제 없는 정부의 ‘비용통제cost control’는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유, 버터, 계란, 그리고 육류 등 주요필수품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에만 한정해서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사치품도 반드시 가격통제의 대상이 된다. 사치품의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본과 노동은 주요필수품의 생산을 포기하고 정부가 불필요한 사치품으로 여기는 것들의 생산에 전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 혹은 수개의 소비재가격에 대한 분리된 개입은 반드시 전에 보편화되어 있던 제반조건보다 훨씬 덜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다. 즉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우유와 계란이 비쌌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한 뒤로는 아예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품목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개입했다. 또한 정부는 수량을 증대시키고 공급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개입은 정부가 바꾸고자 했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태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개입을 더욱 더 진행함에 따라 결국 모든 물가, 모든 임금수준, 모든 금리 등 전체 경제체계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사회주의’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은 실제로 최고가격제를 강행하려 했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러한 국가의 정부들은 한걸음 한걸음 파국으로 다가갔다. 이런 일은 제1차 세계대전중 영국과 독일에서 일어났다.

이 두 나라의 경우를 분석해보자. 양국은 인플레이를 경험했다. 물가가 오르자 양국 정부는 가격통제를 강행했다. 두세 가지의 가격, 즉 우유와 계란에서 시작하여 차츰 더 많은 품목에 가격통제를 실시해나가야 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욱 더 인플레이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3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연하게 하나의 굉장한 계획을 정성들여 고안했다. 그들은 이것을 ‘힌덴부르크계획Hindenburg Plan’이라 불렀다. 그당시 좋다고 생각되는 독일 안의 모든 것에 힌덴부르크의 이름을 붙였다.

이 힌덴부르크계획은 독일의 전체 경제체계, 즉 물가·임금·

이윤 등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리고 관료들은 즉각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끝내기도 전에 파국이 왔다.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전체 관료기구는 사라졌으며 혁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영국도 같은 정책을 실시했으나 1917년 봄부터 미국이 참전하여 각종 물자를 충분하게 공급해줌으로써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었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 브뤼닝Brüning 수상은 판에 박힌 이유를 들어 다시 가격통제를 도입했다. 히틀러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강행했다. 히틀러의 독일에는 민간기업이나 인간의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독일 사회주의체제는 자유경제체제라는 ‘용어와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소련의 체제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른바 ‘민간기업들private enterprises’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소유자는 더이상 기업가가 아니었다. ‘작업장 관리지도자Betriebsführer’로 불릴 뿐이었다.

독일 전체가 지도자들의 위계질서로 조직화되었다. 즉 총통인 히틀러가 있었고 그 다음 하위의 많은 위계마다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장은 작업장 관리지도자였다. 또한 기업의 노동자들은 중세시대 봉건영주의 ‘종자從者Geofelgschaft’를 상징한 말로 이름붙여졌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제국총통자문경제각료회의Reichsführerwirtschaftsministerium’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이름을 가진 기관에서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이 기관의 우두머리는 보석과 훈장으로 치장한 괴링Goering이라는 유명한 사나이였다.

각료들로 구성된 이 장황한 이름의 부서에서 각 기업에 온갖

명령, 무엇을 어느 만큼 생산할 것인가, 원료는 어디에서 조달하며 그 대금은 무엇으로 지불할 것인가, 생산량을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팔 것인가 등을 하달했다. 노동자들은 정해진 공장에서 일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정부가 공포한 노임을 받았다. 경제체제 전체가 낱알이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

‘작업장 관리지도자’는 독자적으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즉 월급에 상당하는 액수만 받았다. 만일 더 받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즉각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에 5백 마르크가 듭니다.”

그 다음 그는 그 지방의 지도자(지방장관Gauführer, 또는 Gauleiter)에게 그가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인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가격이나 임금은 단지 양적 표시에 쓰이는 ‘용어’에 불과했다.

이제 그 체제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수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 어느날 외국 군대가 독일에 진주했다. 그들은 이러한 정부지배하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려 하였으나, 그것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히틀러와 같은 잔인성이 필요했다. 잔인성 없이는 경제체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제2차 세계대전중의 영국은 독일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 즉 몇몇 상품의 가격통제만으로 시작한 영국정부는 차츰차츰(히틀러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평화시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의 더 많은 부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은 거의 사회주의상태에 이르렀다.

영국은 1945년 노동당 정부의 등장으로 사회주의가 더욱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있었던 대전기간 내내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윈스턴 처칠경의 내각이 도입한 사회주의체제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쳤다. 이것도 국민들의 저항을 무릅쓴 것이었다.

영국에서의 국유화는 별의미가 없다. 예컨대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의 국유화는 단지 명목일 뿐이었다. 영국은행은 이미 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와 철강산업의 국유화도 마찬가지였다. 한발 한발 진행되는 간섭주의체제를 의미하는 이른바 ‘전쟁사회주의war socialism’는 이미 사실상 그것들을 국유화했다.

독일과 영국의 체제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그 체제들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임명했고 그들은 모두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치독일의 체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호칭과 용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그것들의 실체는 전혀 달랐다. 거기에는 오직 정부의 포고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보수당이 재집권했을 때 그 통제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현재 영국에는 통제를 유지하려는 한쪽의 시도와 그것들을 폐지하려는 다른쪽의 시도가 있다(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국의 조건은 소련의 조건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갈등은 식량과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나라들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수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정부통제의 체제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남아 있다면(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같은 몇몇 국가에는 그래도 역시 실질적인 자유가 있다), 그것은 ‘수출무역을 보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우유를 예로 든 것은 내가 특별히 우유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정부들, 혹은 대부분의 정부들이 최근 수십년에 걸쳐 우유, 계란, 혹은 버터 등의 가격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간단한 또다른 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집세의 통제에 관한 것이다. 정부가 집세를 통제할 때 나타나는 결과의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면 가족상황이 변했을 경우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겨갔을 사람들이 더이상 옮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들이 20대가 되어 결혼했거나 일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가느라 집을 떠난 경우의 부모들을 생각해보자. 그런 부모들은 그들의 아파트를 바꾸어 좀더 작거나 저렴한 아파트를 얻는 것이 보통이었다. 집세에 대한 통제가 가해졌을 때 이러한 필요성은 사라져버렸다.

20세기 초에 집세가 통제되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는 집세통제하의 집주인이 보통 아파트 한 채에 대해 받은 임대료가 시영 시내전차의 편도요금의 두 배도 채 못되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꿀 아무런 동기가 없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간다. 또 한편 새 집을 짓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와 유사한 상태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것처럼 심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집세통제하에 있으며, 그 결과로 빚어

진 주택부족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신축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소모했다. 그런데도 왜 그러한 주택부족 현상이 존재했던 말인가? 그 주택부족 현상은 우유가격 통제가 있었을 때 우유 부족을 초래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더욱 더 사회주의 쪽으로 쫓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에게 주는 답변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통제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왜 정부가 시장에 조금도 개입해서는 안된단 말인가? 왜 정부가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버려서는 안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중도정책middle-of-the-road policy’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경제체제 가운데 단지 어느 조그마한 부분에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분리된 개입isolated interference’은 정부 스스로, 그리고 정부개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정, 또는 개선하기를 원했던 상황보다 더 나빠진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집세의 통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와 주택이 부족함을 발견할 때 분노한다. 그러나 이 주택부족은 바로 정부의 개입으로 자유시장에서 지불해야 할 수준을 밑도는 집세를 설정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제3의’ 체제(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즉 자본주의와 거리가 먼 것과 똑같이 사회주의와도 거리가 멀지만 각각의 장점은 지키고 단점은 피하는 체제가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넌센스에 속한다.

그러한 신화 같은 체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간섭

주의의 위업을 칭찬할 때 참으로 시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칭찬하는 정부개입은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상태를 초래한다.

내가 나중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이다. 정부는 국내시장을 세계시장에서 고립시키려 애 쓴다. 정부는 상품의 국내가격을 세계시장가격보다 높이 끌어올리는 관세를 도입하여 국내생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카르텔들은 정부의 공격을 받는다. 정부는 카르텔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선언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반카르텔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유럽정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반트러스트입법과 독점이라는 유령에 반대하는 정부의 캠페인이 또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

다름아닌 자신의 간섭으로 국내 카르텔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창출한 정부가 기업을 지칭하면서, “카르텔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 이러한 카르텔을 가능하게 만드는 간섭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카르텔을 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개입을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견해는 모든 국가를 적어도 매우 불만스럽고 간혹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끌어간다. 정부가 조만간 개입을 그만두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보편화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뭔가 손을 써야 한다.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정부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고방식으로 근대적 자유, 근대적 입헌정부 이전의 대의정체나 근대적 공화정체 이전의 특유한 사고의 잔재이다.

수세기 동안 왕, 즉 신권에 의한 왕은 신의 메신저라는 교리가 있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였다. 왕은 그의 시민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왕과의 접촉, 즉 왕의 손에 의해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언제나 의사들이 더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자들이 하여금 왕을 시험해보도록 했다.

가부장적 정부의 우월성, 세습적인 왕의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의 교리는 점차 사라졌다(아니면 적어도 사라졌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이 되살아났다. 베르너 쾰름Werner Sombart(나는 그와 두터운 친분을 나누고 있다)라는 독일인 교수가 있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많은 대학의 명예박사요,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명예회원이었다.

이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되어 프린스턴Princeton대학 출판부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아마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으면 좋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암흑시대가 아

닌 금세기에 발행된 이 책에서 경제학 교수인 베르너 쾰름은 고지식하게 말하고 있다.

“총통, 우리의 총통Führer(그는 물론 히틀러를 말하고 있다)께서는 이 우주의 총통이신 신에게 직접 명령을 받으십시오.”

나는 앞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말했다. 그리고 이 위계질서 안에서 히틀러를 ‘최고위 총통Supreme Führer’으로 언급했었다. 그러나 베르너 쾰름에 따르면 훨씬 더 높은 총통, 우주의 총통인 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 그의 명령을 히틀러에게 직접 내린다는 것이다. 물론 쾰름 교수는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총통과 대화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책이 한때 ‘철학자와 시인의 나라’라고 환호받은 나라의 말, 즉 독일어로 발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책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하찮은 관료라도 자신이 시민들보다 더 현명하고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한, 비록 그가 그 유명한 온갖 단체의 명예회원인 베르너 쾰름 교수가 아닐지라도, 모든 일에 간섭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에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책은 과연 있을까? 그렇다. 나는 구체책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구체책이야말로 바로 시민들의 힘이다. 시민들이 일반시민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낫다고 감히 참칭하는 독재정권의 수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와 예측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민주주의’란 용어를 멋대로 사칭해왔다. 소

런인들은 그들의 체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아마 그들은 인민이 독재자라는 인물로 대표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나는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사람의’ 독재자가 좋은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독재자들도 비슷한 해답을 얻기를 기원한다.

제4장

인플레이션

만일 캐비어(caviar, 철갑상어 알젓)의 공급이 감자의 공급처럼 풍부하다면 캐비어의 가격, 즉 캐비어와 화폐, 혹은 캐비어와 다른 상품간의 교환비율은 현저하게 변동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캐비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화폐량이 증가하면, 화폐단위당 구매력은 감소하고 이 화폐의 한 단위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재화의 양도 줄어든다.

16세기 미국에서 금은자원이 발견·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양의 귀금속이 유럽으로 실려갔다. 금속화폐시대에 이는 화폐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화폐량 증가의 결과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도 정부가 지폐량을 늘리면, 그 결과로 화폐단위당 구매력이 저하되고 따라서 물가는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불행히도 여타 국가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화폐량의 증가 탓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의 상승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런데도 물가와 화폐량간의 관계, 혹은 화폐와 다른 재화, 또는 용역간의 교환비율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해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이제까지 결코 있어본 일이 없다. 현대 과학기술의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인쇄된 종이 조각(화폐)을 만들어내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모든 지폐의 크기가 똑같은 미국에서는 정부가 1달러짜리 지폐를 찍는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다. 똑같은 양의 종이와 잉크가 드는 인쇄 절차가 요구될 뿐이다.

18세기에 처음 은행권을 발행하여 법화(法貨)로서의 특권, 즉 교환거래에서 금과 은이 받는 대우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였을 때, 정부와 국가들은 은행가들이 정부로 하여금 무에서 부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할 비장의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18세기에 여러 정부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그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정관리에 유능한 총명한 은행가뿐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수년 전 프랑스왕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프랑스왕은 그런 총명한 은행가를 찾아내어 높은 직위에 임명했다. 그는 그때까지 프랑스를 지배했던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다.

첫째로, 그는 프랑스인이 아닌 제네바인이었다. 둘째, 그는 귀족사회의 일원이 아닌 단순한 평민이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가 구교도가 아닌 신교도였다는 점이다. 유명한 스타엘(Stael) 부인의 부친인 네커(Necker)공이 재정상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가 프랑스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네커공이 누린 높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실금고는 여전히 텅비어 있었다.

네커가 가장 큰 좌절을 맞본 것은 ‘증세 없이(without raising taxes)’ 영국과 독립전쟁중인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보조금을 융자해주려는 시도에서였다. 그것은 확실히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릇된 정책이었다.

한 정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비결이 있을 수 없다. 즉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혹은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손에 넣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 아니 대부분의 정부들은 필요한 돈을 얻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컨대 병원을 짓고자 할 때, 이 계획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수입으로 병원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별한 ‘물가파동price revolution’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병원건설을 위해 돈을 모으면,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그들의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투자와 저축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과 자리를 바꾸어 구매자로 시장에 등장한다. 시민은 더 적게 사고 정부는 더 많이 사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반드시 시민들이 이제까지 사왔던 것과 똑같은 재화를 사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런 경우 정부의 병원건립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이러한 병원의 예를 든 것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의 돈을 좋은 목적을 위해 쓰느냐 나쁜 목적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정부가 가능한 최선의 목적,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인쇄한 돈을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또한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돈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화를 팽창시키지 않고도 정부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이나 이미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봉급인상을 위해서 세금을

로 징수한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봉급이 불어난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봉급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 돈을 쓰면, 납세자들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한다. 이런 경우 물가상승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한 돈을 쓰지 않고 그대신 새로 찍어낸 돈을 쓰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나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제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보다도 오늘은 더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재화에 대한 추가수요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로 발행된 돈의 용도가 무엇이든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가상승의 경향이 차츰차츰 진전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가수준price level’이라는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다. ‘물가수준’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물가수준’을 말할 때, 그들은 그 양의 증감에 따라 오르내리는 액체수면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 수면은 마치 물탱크 속에 있는 액체처럼 언제나 균일하게 올라간다. 그러나 가격에는 ‘수면’과 같은 것이 없다. 가격은 동시에 똑같이 변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더 빨리 변동하는 가격이 있는가 하면, 다른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가격이 있다. 여기에는 이유

가 있다.

화폐공급의 증가로 새 돈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오늘 어제 산 것과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양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가로 발행한 화폐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 돈이 특정상품의 구매를 위해 사용되면,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도 그 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사회의 각 집단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새 돈을 먼저 받은 집단들이 당장은 이익을 본다.

정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를 팽창시킬 때, 정부는 군수품을 사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발행된 화폐를 가장 먼저 획득하는 집단은 군수산업체와 이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집단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들의 기업은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됐으므로 추가된 화폐를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이 있으므로 그들은 다른 물건들을 사고, 또 군수품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를 제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을 산다.

이 다른 사람들이 두번째 집단을 형성한다. 두번째 집단은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사업을 위해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예컨대 군수품공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군수품공장 노동자들이 모두 우리 식당의 단골이지. 이래서 나는 참 행복하단 말이야.”

그는 달리 어떤 느낌을 갖지 않는다.

그 상황은 이렇다. 즉 그 돈을 먼저 얻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소득수준을 누리게 된 데다가 이전의 시장상황과 인플레이션 전에 존재했던 조건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아직은 많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인플레이션은 한걸음 한걸음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진행해 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초기단계에 추가된 화폐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본다. 그들은 아직 돈과 상품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교환비율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재화들을 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로 발행된 화폐를 훨씬 뒤에야 얻는 다른 집단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들은 구입하기를 원하는 일부상품, 아니면 사실상 예전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에 지불한 것보다 높은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물가와의 비율로 따져 오히려 낮아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중의 미국을 보자. 그당시 인플레이션은 군수공장 노동자, 군수산업, 총기제조업자에게는 유리했으나 다른 집단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교사들과 목사들이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에 관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되는 매우 근엄한 사람이다. 교사는 봉급보다 청소년들의 교육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결국 교사와 목사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 학교와 교회들이 그들의 봉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의 발견이 이미 그들이 받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전에 샀던 것보다 덜 사야 했고, 더 좋고 더 값비싼 음식의 소비를 줄여야 했으며, 의복의 구입도 제한해야 했다. 그들의 소득, 즉 봉급은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이미 상승해버렸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태는 적어도 교사들의 경우 오늘날 현저히 개선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의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 그리 나쁘지 않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을 바라기까지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첫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강연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빚어진 이러한 불공평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초래된 이러한 경제변동하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직접 폭리를 취하는 집단들이 있다. 나는 이 ‘폭리(profitteering)’라는 용어를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정부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무슨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얻는 특별이익은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불공평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정부는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써 인플레이션이 과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과세는 언제나 인기가 없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부유한 대국의 입법자들은 몇 달을 두고 새로운 세금의 다양한 형식을 종종 토의해왔다. 의회가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세로 돈을 얻어내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토의한 결과, 그들은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낫다

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집권중인 정치가가 이렇게 공언하지는 않는다.

“나는 인플레이션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기술적인 방법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도 알지 못한다.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제국의 인플레이션도 전쟁기간 동안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엄청난 파국을 불러온 것은 전쟁 ‘후’의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중앙은행에서 매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차입했을 뿐이었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구하고 넘겨주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다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기법은 개인수표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또다른 기법이 포함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이다. 펜 하나 휘두르는 것으로 정부는 ‘불환지폐(fiat money)’를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화폐량과 신용량이 늘어난다. 정부가 단지 명령만 하면 불환지폐가 생겨나는 것이다. 처음에 정부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점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입법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말로 기막히게 좋은 제도로군!”

그러나 기막히게 좋은 이러한 제도에 근본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제도가 꾸준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면 통화를 팽창시켜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관

한 확실한 사실은 조만간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꾸준히 지속될 수 없는 정책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붕괴와 더불어 종말을 고한다. 즉 1923년 독일에서와 같은 상황, 그 엄청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914년 8월 1일에 1달러 가치는 4마르크 20페니히Pfennigs였다. 9년 3개월 후인 1923년 11월에 1달러는 42억 마르크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마르크는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이다.

몇해 전에 한 유명한 저술가가 이렇게 쓴 일이 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 혹은 긴가 하는 점이다. 18세기에 “우리 뒤에 홍수가 오리라Après nous le déluge”라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진 퐁파두르Pompadour 부인이 있었다. 퐁파두르 부인은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죽었다. 그러나 그녀의 공직후계자 바리Barry 부인은 짧은 인생으로 끝내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결국 참수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기간long run’은 어느새 ‘단기간short run’이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되면 필수 록 ‘단기간’은 더 일찍 끝난다.

단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중앙은행이 얼마나 오래 인플레이션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국민들이 정부가 조만간, 분명히 너무 늦지 않게 돈 찍어내는 일을 멈춤으로써 화폐가치의 하락을 막을 것이라고 믿는 동안만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더이상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정부가 그만

둘 아무런 의향이 없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지속시키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물가가 오늘보다 내일 더 높아지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값으로든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통화제도가 붕괴될 때까지 물가를 치솟게 만든다.

전세계가 주시했던 독일의 경우를 언급하고자 한다. 많은 책이 당시의 일들을 적고 있다(나는 독일인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인이지만 내부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즉 오스트리아도 사정은 독일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또한 많은 유럽제국에서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여러해 동안 독일국민들은 그들의 인플레이션이 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끝날 것으로 믿었다. 1923년 여름까지 거의 9년 동안이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대신 입수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돈을 빌려줘서는 안되고 오히려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주 좋은 태도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여 인플레이션은 자신을 갹아먹으면서 계속되었다.

그 인플레이션은 독일에서 정확히 1923년 8월 28일까지 계속되었다. 대중들은 통화증발에 의해 생긴 돈inflation money을 진짜 돈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윽고 사정이 달라졌음을 발견했다. 1923년 가을 인플레이션이 끝날 무렵 독일의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선불로 노임을 지불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공장에 온 노동자는 그의 임금 수백만 마르크를 아내에게 즉각 넘겨주었다. 아내는 지체없이 상점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샀다. 그녀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즉 하룻밤 사이에 마르크가 그 구매력의 50%를 잃는다는 사실

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돈이 마치 뜨거운 오븐 위의 초콜릿처럼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녹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국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며칠 뒤 그 모든 악몽은 지나갔다. 즉 마르크화는 무가치해지고 새로운 통화제도를 수립해야만 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말한 케인즈Keynes 경은 인플레이정책을 제창한 20세기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금본위제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 케인즈는 금본위제를 공격하면서 ‘야만적 유물’이라고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본위제로의 복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여러분이 “조만간 미국은 금본위제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몽상가쯤으로 취급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는 하나의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금본위제하에서는 화폐공급량은 정부나 정당의 정책과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 제도의 장점이다. 금본위제는 돈을 헤프게 쓰는 정부들에 대한 하나의 제동장치가 된다. 만약 금본위제하에서 정부가 새로운 일에 예산을 배정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더러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거요? 이 추가경비를 위해 어떻게 돈을 구해야 하는지 말 좀 해주세요.”

인플레이션체제하에서는 정치가들이 정부인쇄소에 그들의 계획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은 없다. 금본위제하에서는 건전한 정부라면 훨씬 좋은 기회를 갖는다. 즉 정부지도자는 국민과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증세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소.”

그러나 인플레이션상태하에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무한정한 수단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 데 익숙해진다. 국가, 즉 정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에 새로운 고속도로망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것을 건설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디서 돈을 얻을 것인가?

오늘날 미국의 경우, 그리고 맥킨리McKinley 정권하의 과거에도 공화당은 건전통화sound money와 금본위제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에 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지폐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은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그러나 1880년대 말에 재난을 당한 한 단체를 돕기 위해 소액의 돈, 즉 약 1만 달러를 주기로 한 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은 미국 민주당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였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지만,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은 모든 정치인들이 사무실 벽에 써놓고 돈을 요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간단히 논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화폐제도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만일 그 문제들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다면 나는 그 문제들에 관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렇다. 만일 화폐량을 늘리면 화폐단위당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인 일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인플레이션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

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불평한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나쁘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면 왜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어 버렸는가? 심지어 가장 부유하다는 몇몇 나라들도 이 병을 앓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을 여행해보면 인플레이션과 이를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는 않는다.

몇 가지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전쟁 전과 같이 파운드화의 금평가제gold parity of the pound로 복귀했다. 즉 파운드화를 평가절상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구매력을 증대시켰다. 정상적인 시장unhampered market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은 떨어졌을 것이나 ‘실질’임금은 손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논의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화폐단위의 높아진 구매력에 맞춘 임금률 조정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임금은 파운드화의 평가조정monetary measure으로 현저하게 상승되었다. 이것은 영국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영국은 원료, 반제품, 식료품 등을 수입해야 하고, 이 수입품값을 지불하기 위해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가공무역 공업국이기 때문이었다. 파운드화의 국제시세가 상승하자 해외시장에서 영국제품의 가격이 치솟았고 수출액이 감소했다. 영국은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매겼다.

영국정부는 노동조합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오늘날 노동조합 세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조합의 명령은 정부의 법령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의 법령은 강제장치, 즉 경찰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명령이다. 누구나 정부의 법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을 겪는다.

불행히도 전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 외에 제2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노동조합들이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최저임금률을 법령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금과 파업을 결정하여 강행한다. 노조문제는 지금 논의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받는 수준 ‘이상으로’ 임금률을 올리려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당한 수의 잠재노동력이 고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손해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에 의해서이다. 기업들이 계속 손해를 볼 경우 중국에는 문을 닫게 되고, 그 기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받는 수준 이상으로 임금률이 고정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결정된 높은 임금률이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실업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몇해를 두고 계속되었다. 수백만의 노동자가 실직하고 생산량은 떨어졌다. 전문가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영국정부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즉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들이 고집해온 구매력이 이전과 똑같지

않아졌다. ‘실질’임금, 즉 실질구매력(commodity wages)이 줄어들었다. 노동자들의 명목임금률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전에 살 수 있었던 만큼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실질’임금률은 자유시장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실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조치, 즉 평가절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 즉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에서도 채택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년 반 동안에 두 번이나 이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세력을 꺾기 위한 저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년 후 일반국민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사태의 진행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화의 평가절하가 그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조합들은 이것을 반대할 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그들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명목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임금계약에 삽입했다. 이른바 임금·물가 연동제의 채택이었다. 노동조합들이 지수(index)를 인식한 것이다.

1931년 영국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취했고 나중에 거의 모든 정부들이 채택했던 이 조치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케인즈 경은 1929년 그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불행하게도 이 방법, 즉 1929년에서 1933년까지 실시했던 긴급조치들을 하나의 ‘원리’, 하나의 기본적인 정책체제로 격상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방법을 정당화했다.

“실업은 좋지 않다. 실업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통화를 팽창

시켜야 한다.”

그는 시장에서 임금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즉 임금률이 너무 높아 고용주가 고용을 증대시키기 불리해진다는 것, 따라서 전체 노동인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했다. 임금률이 노동조합에 의해 시장수준 이상으로 강요되는 상태하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오직 일부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몇해 동안 계속된 대량실업으로 불만이 매우 크게 누적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임금률이 시장조건에 맞춰 조정될 수 있고, 또 조정되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노동자들이 현명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명목임금률이 변동하지 않는 한 실질임금률의 하락에 대해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환언하면 케인즈경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통화가 평가절하되기 전에 받은 것과 똑같은 액수의 화폐를 오늘 받는다면, 그는 지금 사실상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진부한 표현으로 케인즈는 노동자를 기만할 것을 제의했다. 임금률이 시장조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솔직히 선언하는 대신(임금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노동력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완전고용은 오직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다. 노

동자들을 속여라.”

그러나 가장 흥미있는 사실은 그의 『일반이론』이 발간되었을 때, 더이상 속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미 지수를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고용의 목표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노동조합이나 정부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자유노동시장과 관계가 있다. 이 시장에서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임금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자리를 얻고 고용주들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이 더 상승하는 경향을 띠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

‘완전고용’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노동 및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상인이 어떤 상품을 단위당 5달러에 팔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는 그 가격으로 팔 수 없을 때 “재고가 묶여 있다The inventory does not move”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유통업체에서 쓰는 특수한 표현이다.

재고품은 ‘움직여야 한다’. 상인은 계속 새로운 물건을 사야 하므로 물건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상품의 모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낮은 가격으로 판다. 5달러에 팔 수 없으면 4달러에 팔아야 한다. 4달러에도 팔 수 없으면 3달러에 팔아야 한다. 그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다른 방도가 없다.

그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시장예측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날마다 농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경우도 이와 똑같다. 이러한 일은 모든 공업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1주일에 1백 달러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시로 몰려든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가능할 수가 없다. 만일 1주일에 1백 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면 90달러나 80달러, 혹은 그보다 더 적게 받는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그러듯이 “1주일에 1백 달러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실업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그들 중에는 실적상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특별세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실업수당은 때로 그가 고용되었을 경우 받을 임금과 거의 맞먹을 때도 있다).

특정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완전고용이 오직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용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즉 우리는 실업으로 건전통화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고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옳지 않은 분석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다른 모든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곧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유지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딜레마는 시장이 임금을 결정토록 해야 할 것

인가, 아니면 임금률이 노동조합의 압력과 강제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실업상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잘못된 문제의 분석이 영국과 유럽 공업국가,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 보라. 심지어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취하고 있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답변해야 한다.

“부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그가 빈자보다 훨씬 오랫동안 어리석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되어 있으며 더욱 더 잘못되어 가고 있다. 역시 미국은 다른 일부 국가들보다 약간 더 오랫동안 어리석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모양이다.

기억해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신이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인플레이션은 어떤 천재지변도 아니며, 또한 때가 되면 찾아오는 돌림병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정책’, 즉 그것이 실업상태보다 나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숙고한 끝에 찾아낸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정책이다. 정책은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악으로 생각한다면 인플레이션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예산

을 균형잡아야 한다. 물론 여론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즉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여론의 뒷받침을 받으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인플레이션정책을 포기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죽고, 또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야 할 짧은 기간 동안 이나마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세상사를 처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인플레이션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5장

해외투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의 강령들을 부정적 강령으로 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 자유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사회주의, 정부의 간섭, 인플레이션, 노동조합의 횡포, 보호관세 등등 모든 것에 ‘반대’만 하고 있다.”

이 말은 문제를 편파적이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데서 온 표현이라 생각하고 싶다. 자유주의의 강령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검열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부의 간섭 없이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저술가들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유인 것이다(물론 내가 경제체제의 조건에 관하여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 단어의 오래된 ‘정통적classical’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임을 뜻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생활수준의 차이를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백 년 전 영국의 상황은 오늘날 인도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러나 1750년의 영국인들은 자신을 ‘저개발undeveloped’이라든가 ‘후진backward’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국의 상태와 경제적 조건이 더 만족스러운 국가들의 상태와 비교할 만한 입장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평균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믿는다. 대다수의 이런 국가들은 그들 자신을 ‘개발도상국’이라 부르고 소위 개발국, 혹은 선진개발국의 원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실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이 낮은 이유는 서구의 몇몇 국가와 캐나다, 일본, 그리고 특히 미국에 비해 똑같은 유형의 노동으로 올리는 평균수입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그것이 노동자나 기타 피고용인의 열등성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미 노동자의 일부집단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는 경향, 즉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우월성 때문이라고 믿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더 높은 임금을 벌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자질이 ‘아니라’ 그 나라의 조건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동자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많은 미국노동자들의 출신지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 가보면 될 것이다. 시실리Sicily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은 곧 미국에서 평균수준의 임금을 벌 수 있다. 그가 다시 시실리로 되돌아갈 경우, 미국인민 자체가 시실리의 동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벌 수 있는 자질을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상황을 미국 밖에 있는 기업가층이 당연히 더 열등하다고 추정함으로써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 캐나다, 서구, 그리고 아시아의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공장의 설비와 사용하는 과학기술방법이 미국내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저개발국가’ 기업가들의 무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공장들이 훨씬 더 잘 설비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과학기술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있으며,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을 보급하는 교재와 기술에 관한 잡지 등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다시 강조하거나 그 차이란 개인적인 열등성이나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자본의 공급과 이용할 수 있는 자본재의 양이다. 환언하면 개인당 투자된 자본총액은 개발도상국보다 이른바 선진국이 더 많다는 것이다.

기업가는 피고용자의 작업으로 생산품의 가치에 부가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는 없다. 기업가는 고객들이 이 개별적인 노동자의 부가적 노동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가 노동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면, 고객들에게서 그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그는 손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이미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손해를 입은 기업가는 그의 사업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고 말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단지 내가 앞에서 말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 임금수준은 사람의 노동이 생산품의 가치를 증대시킨 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더 좋고 더욱 효율적인 도구를 가지고 일한다면 그는 덜 효율적인 도구를 가지고 한 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한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가장 현대적인 도구와 기계로 설비된 미국의 구두공장에서 일하는 1백 명은 구식도구와 별로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 인도의 구두방 1백 곳보다 똑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구두

를 생산할 수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의 고용주들은 더 좋은 도구가 그들의 기업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주리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공장을 짓고 싶어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오직 자본의 부족일 뿐이다.

덜 개발된 국가와 더 개발된 국가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에서 온다. 즉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일찍 저축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일찍 자본을 축적하여 그것을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럽국가의 생활수준이 낮았을 때 영국의 생활수준은 더 높았던 것이다.

점차 다른 모든 나라들도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영국이 부유해진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영국의 방식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은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인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상황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영국이 우위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19세기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다름아닌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의 출현이었다.

1817년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는 자본이 오직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만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는 자본가들이 해외에 투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수십년 후에 해외투자가 세계경제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해외투자가 없었다면, 영국보다 덜 개발된 국가들은 18세기

초엽과 중엽에 영국이 시작했던 방식과 과학기술을 좇아 서서히 한걸음 한걸음씩(영국경제의 과학기술 수준에 언제나 훨씬 못 미친 상태에 서) 영국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이 그들에 앞서 1백여 년 전에 도달했던 과학기술의 발달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큰 사건, 즉 해외투자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도왔다.

해외투자란 영국의 자본가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영국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먼저 유럽국가에 자본을 투자했는데, 이 나라들은 영국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이 부족하고 개발이 뒤떨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철도와 미국의 철도 역시 영국자본의 원조로 건설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똑같은 경우가 이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유럽 모든 도시의 가스회사들도 영국의 것이었다. 1870년대 중엽에 영국의 저술가이자 시인은 동포들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다.

“영국인들은 과거에 지녔던 활기를 잃었다. 그들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제 더이상 세계에서 중요한 국민도 지도적인 국민도 아니다.”

이에 대해 위대한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는 이렇게 답변했다.

“유럽대륙을 보라. 모든 유럽의 수도들은 영국의 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가스로 불을 밝히던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이 영국의 평론가 허버트 스펜서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다.

“당신은 독일인들이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을 보라. 독일제국의 수도, ‘정신Geist’의 수도라는 베를린조차도 영국의 가스회사가 진출하여 거리를 밝혀주지 않았다면 암흑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영국의 자본은 미국의 철도와 산업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켰다. 물론 자본을 수입하는 한, 그 나라의 무역수지는 비경제전문가들non-economists이 말하는 ‘역조unfavorable’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가 수입초과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했던 것은 영국의 기업들이 많은 설비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 설비대금을 오직 미국회사들의 주식만으로 받았다는 데 있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거의 18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자본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후 미국 자신의 친자본주의정책의 채택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전에 외국인들에게 팔았던 주식자본을 되사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국은 수출초과 상태가 되었다. 그 차액은 미국의 보통주를 사들이는 데 쓰여졌다.

이 기간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또다른 이야기이다. 그것은 양차 세계대전중과 그 사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교전국들을 위한 미국의 국가간 원조, 무기대여, 외원外援, 마샬플랜Marshall Plan, 식량원조, 그리고 기타 보조금, 차관, 유럽에서의 자본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때때로 해외자본이 자

국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자본 투자가 근대 공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해외투자는 19세기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할 경우, 여러분은 해외투자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모든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철도, 항구, 공장, 광산, 수에즈 운하, 그리고 기타 많은 것들은 해외투자가 없었다면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외투자는 그것이 몰수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만일 누군가가 그의 투자자본이 몰수되리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세기에 해외투자가 시작되었을 때와 20세기 초에는 몰수라는 문제가 없었다. 처음부터 일부국가들은 해외투자에 대해 적의를 나타냈으나, 대부분은 해외투자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투자는 직접 외국자본가에 대해 행해지지 않고, 차관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해 행해지기도 했다. 그때 투자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였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가 그렇다.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20년 동안 러시아에 약 2백억 프랑의 금화를 투자했는데, 그것들은 주로 러시아 정부에게 빌려준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의 모든 대규모 사업들, 예컨대 우랄산맥에서부터 눈과 얼음을 뚫고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철도는 거의 외국자본으로 건설되었다. 프랑스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러시아 공산주의 정부가 나타나 그 전임자인 전제정부가 진 부채

는 갚지 않겠다고 간단하게 선언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필두로 해외자본을 둘러싼 세계적인 규모의 싸움이 공공연하게 시작되었다. 어떤 정부도 투자된 자본을 현지 정부가 몰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해외투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이것을 예견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자본수출국의 자본가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모든 해외투자는 4,50년 전에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어느 나라든 외국자본을 몰수·징발하고 부채에 대한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비논리적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세계경제사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외국자본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교통, 제조업, 광업, 그리고 농업 등의 근대적 방법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19세기의 위대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각 정부와 정당들이 외국투자자를 자국으로 추방해야 할 ‘착취자’로 여기는 새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러시아인들만이 이러한 반자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유일한 죄인은 아니었다. 예컨대 멕시코의 미국유전 몰수, 그리고 바로 이 나라(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리기 바란다. 나는 이것들에 대해 더이상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오늘날 외국자본의 몰수방식은 직접적인 몰수, 혹은 외환통제나 차별과세를 통한 간접적인 몰수로 이뤄진다. 이것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문제이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의 예를 들자면 바로 인도

이다. 영국의 통치하에서 영국자본이(주로 영국자본이지만 역시 여타 유럽국가의 자본도) 인도에 투자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해야겠지만 영국인들은 다른 것들도 인도에 수출했다.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근대적 방법들을 인도에 수출한 것이었다. 이 결과는 엄청난 인도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적 난제의 증대로 나타났다. 것처럼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인도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몰수라는 수단에 의지했다. 그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몰수는 아니었다. 즉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이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의 투자를 방해하면서 외국자본가들을 괴롭혔다.

인도는 물론 자본의 ‘국내’ 축적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는 외국자본가들에 대해서 못지 않게 자본의 국내 축적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 인도정부는 인도를 공업화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사회주의’ 기업들을 거느리는 일이었다.

수년 전에 유명한 정치가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그의 연설문집을 발행했다. 그 책은 외국투자자들이 인도에의 해외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인도정부는 외국자본이 투자되기 ‘전에는’ 외국투자에 반대하지 않았다. 적대행위는 오직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다. 네루의 연설문집에서 그대로 인용하겠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화하고 싶다. 그러나 민간기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모든 방법으로 민간기업을 장려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자 한

다. 즉 우리는 10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랫동안 그들의 기업을 몰수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알다시피 문제는 국내자본 축적이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는 기업들에게 중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들의 이윤에 중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그들의 주주들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또 과세한다. 이러한 과세는 누진적으로 행해진다.

소득과 이윤에 대한 누진과세는 사람들이 저축·투자했을 소득분을 세금으로 빼앗긴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수년 전에 ‘초과이윤세excess-profit tax’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1달러 가운데 단지 18센트만을 보유하려는 것을 뜻했다. 이 18센트가 주주들에게 지불되었을 때, 대주주들은 또다시 그것의 60%나 8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세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1달러의 이윤에서 그들이 보유하는 것은 약 7센트일 뿐, 93센트는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93%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저축·투자되었을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그 돈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이 모방할 만한 본보기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백해무익하다 못해 ‘정신이 나간’ 짓이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부국은 빈국보다 나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과세방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아직 매년 자본의 축적과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은 생활수준이 향상일로에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내저축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며, 이 나라들이 드러내놓고 해외투자에 적대감을 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자본투자가 심각할 정도로 감소되었다. 만일 이러한 국가들이 틀림없이 역효과를 낼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공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규공업들을 확장하거나, 조건을 개선하거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임금률을 더 높이거나, 개선된 교통수단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취하는 정책이라야 고작 국내자본의 축적을 막거나 둔화시키고, 외국자본이 들어올 길에 장애물이나 설치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너무도 안 좋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한 상태는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세계에는 이제 해외투자에 대한 불신이 더욱 더 만연될 뿐이다. 비록 관계국들이 즉각 그들의 정책을 바꾸고 가능한 모든 약속을 하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외국자본가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을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해외투자를 국가관할로부터 끌어낼 협정뿐 아니라 어떤 국제법규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국제연합)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유엔은 현재 부질없는 토론을 위한 회합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해외투자만이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제입법의 관점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인데, 내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까닭은 사태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일 세

계가 개발도상국도 그들의 생활수준을 미국의 생활양식 차원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랐다면 그것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단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 필요할 따름이다.

개발도상국들이 미국만큼 번영하지 못하는 걸림돌은 오직 한 가지이다. 바로 ‘자본’이다. 그리고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의 규율하에서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나라들은 국내자본을 축적해야 하며, 외국자본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저축의 확대를 위해서는, 화폐단위가 안정될 때 국민대중들이 저축에 나선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에서 운용하는 대부분의 자본은 노동자들 자신과 평균수준의 자금력을 지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수십 수백억의 저축예금, 공채, 보험증권 등이 이 기업들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화폐시장에서 가장 큰손인 화폐대주는 이미 은행들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돈은 법적으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볼 때 보험계약자의 재산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험에 들어 있다.

세계가 더 많은 경제적 평등을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은 공업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자본투자와 자본축적의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 나라를 공업화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내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놀랄지도 모르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이다.

그러나 관세와 외환관리는 정확히 말해서 자본과 공업화의 수

입을 ‘막는’ 수단이다. 공업화를 추진하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자본을 손에 넣는 일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단지 투자자본을 어떤 분야의 사업에서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 있을 뿐이다.

보호무역주의 그 자체는 한 나라의 자본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않는다. 신규공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자본이지 관세가 아니다.

나는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문제 전체를 논의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제학 교재가 그 문제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일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또 있다면 바로 노동조합주의 labor unionism이다. 자신의 처지가 불만족스럽거나, 임금이 낮거나, 어느 나라의 임금노동자가 미국을 살펴보고 자기 나라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아차리거나, 영화에서 보통 미국인의 가정이 어떻게 모든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것이다. 이때 그가 “우리는 당연히 그와 똑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의 증대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기업가와 그들이 파업파괴자strikebreakers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모든 임금노동자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킬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임금률을 고정시키는 정부의 법령도 비효과적이다. 노동조합들이 ‘가져오는’ 결과란(비록 그들이 임금을 인상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실업상태일 뿐이다. 그래

서 노동조합들은 나라를 공업화시키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도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즉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들은 1인당 자본투자의 증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좋지 못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1인당 자본투자가 아직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와 일부 서구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도에서는 1인당 자본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인구가 매년 거의 4천5백만 명꼴로,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신문에서 읽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1750년 영국국민들은 6백만 명의 인구가 영국이라는 섬나라에 살기에는 비좁아 곧 기근과 질병으로 허덕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9년 영국에는 5천만 명이 살았으며, 생활수준은 1750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았다.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른바 공업화의 결과였다.

영국의 발전은 1인당 자본투자의 증대로 이룩된 것이다. 내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 나라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자본을 늘리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대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민을 막는 장벽이 없는 세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임금률의 균등화라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민을 막는 장벽이 없다면, 아마도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매년 미국으로 건너갈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유

입은 미국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다른 나라의 임금을 끌어올릴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민장벽의 문제를 다룰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러나 전세계에 걸쳐 임금률의 균등화를 위한 또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자 한다. 또다른 방법이란 이주의 자유 없이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자본의 이주migration of capital’이다. 자본가들은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적절한 나라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로 자본을 투자한다는 사실은 아울러 높은 임금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자본이 오스트리아와 볼리비아에 처음 투자되었을 때, 두 나라의 임금률은 영국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는 두 나라에서 임금률이 높은 추세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번져갔다. 예컨대 유니타이드 청과회사United Fruit Company가 과테말라로 옮겨가자마자, 이 회사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전반적인 추세가 생겼으며, 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다른 고용주들로 하여금 역시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개발’ 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비판적일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노동조합들이 “필요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라고 말한다면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얼마전 미국에서 발간된 책에서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이 교수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나은 생활수준을 원하고, 또 누려야 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며, 또한 미국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 밖에서는,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국의 상태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다. 높은 생활수준은 역시 높은 문화와 문명수준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전적으로 찬동한다. 어떤 수단이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결코 보호무역제도나 정부개입이나 사회주의일 수 없으며, 그리고 분명히 완곡한 표현으로 단체교섭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총부리를 들이댄at the point of a gun 교섭’이라 할 노동조합의 횡포도 그 방법일 수는 없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점진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이 너무 느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낙원으로 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시간을 들여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며 결국 평등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1840년경 독일의 서부지역, 세계에서 가장 공업화되었던 지역의 하나였던 슈바비아Swabia와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코 영국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인들은 출발점에서 얻은 이점 때문에 영원히 우리보다 앞서갈 것

이다.”

그러나 30년 후 영국인들은 “이러한 독일의 전쟁에는 맞설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우리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당시 독일의 수준은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다. 오늘날 독일의 1인당 소득은 결코 영국에 뒤지지 않는다.

유럽 중심부에 자연의 혜택이 빈약한 작은 나라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는 탄광이나 광물을 비롯해서 자연자원이라곤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정책을 추구해온 결과, 유럽대륙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또한 세계의 위대한 문명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나는 인구로나 국토의 크기로나 스위스보다 훨씬 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수년 동안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와 똑같은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정책이 옳아야 한다.

제6장

정책과 사상

계몽운동의 시대, 그리고 북미인들이 독립을 달성하고 그 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들이 독립한 시기에 서구문명에 팽배했던 풍조는 낙관적인 것이었다. 당시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은 모두 번영과 진보, 자유의 새시대의 문턱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신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제도, 구미 자유국가에 수립된 입헌대의정부가 매우 유익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경제적인 자유가 인류의 물질적 생활을 계속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 중의 일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음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다수의 민중들이 훨씬 높은 생활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전례없는 경제조건을 향상을 경험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8세기 철학자들이 품었던 많은 희망들, 이제 다시는 더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혁명도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희망들이 여지없이 깨져버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기대들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 중에는 전쟁이 그 횡수나 치열함에서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는 호전적인 심성이 되살아났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겪어야 할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시작된 입헌제도는 인류를 괴롭혔다. 이 문제를 다루어온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저술가들은 이 문제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은 의회정치, 즉 국민의 대표자들이 하는 통치의 쇠퇴를 장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마치 이러한 현상이 국민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경제상황 및 경제

사상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두 측면은 서로 아무런 연관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사실 이른바 자유, 입헌정체, 그리고 대의제도의 쇠퇴는 경제 및 정치사상이 급격히 변화한 결과이다. 정치적인 사건들은 경제정책에서의 변화가 가져온 불가피한 귀결이다.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새로운 정치체제의 원리를 발전시킨 정치가, 철학자, 그리고 법률가들을 지배한 사상은, 한 나라 안에서 정직한 시민들은 모두 똑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모든 교양있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란 전체 국가의 복지이며, 또한 다른 국가들의 복지라는 것이다. 이들 정신 및 정치지도자들은 자유국가는 정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당파싸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사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문제에 대해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동할 때, 이 협동체제를 정당이라 불렀다. 그러나 정당의 구성은 영속적인 것이 못되었다. 그것은 전체 사회구조내에 있는 개인들의 태도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음 태도가 그릇된 가정과 그릇된 사상에 바탕을 두었음을 깨달았을 때 바뀔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거유세와 그 후 입법의회에서의 토의를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요소로 간주했다. 의원들의 연설은 한 정당이 원하는 바를 단지 세상에 공언하는 것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한 연설은 그 발언자의 사상이 사람들이 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더욱 유익하다는 점을 반대집단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기회로 간주되었다.

정치연설, 신문사설, 소책자, 그리고 서적들이 설득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사상이 건전하기만 하다면, 그는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다수에게 확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초에 입법기관에서 헌법의 규정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시장의 경제적 조건에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했으며, 또한 모든 시민들은 전체 국가와 전체 국민들의 복지라는 오직 하나의 정치목표만을 갖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섭주의가 바로 이 사회 및 경제철학을 대체하였다. 간섭주의는 매우 예외적인 철학을 창출해냈다.

간섭주의사상하에서는 특정집단들에게 특권을 주고,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18세기 정치가들의 견해는 입법자들이 공동선the common good에 관해 특별한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독재가 전혀 없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사실상 예외없이 정치생활의 현실에서 보거나 처해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이제 더이상 고전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압력단체pressure groups’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압력단체란 나머지 국민들의 희생으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특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 특권은 경쟁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될 수도 있고, 보조금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압력단체 구성원과 경쟁하는 것을 막는 법률일 수

도 있다. 어쨌든 이 특권은 압력단체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것은(압력단체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집단들이 거부하고, 또 마땅히 거부해야 하는 것들을 그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과거의 양당제도가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현실상황의 호도일 뿐이다. 사실 미국의 정치생활은, 여타 모든 나라의 정치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압력단체들의 싸움과 야망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에는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지만, 이 양당에는 각각 압력단체 대표들이 있다. 이들 압력단체 대표들은 자당의 동료들과 협력하기보다 반대당의 같은 압력단체 대표들과 협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의회가 하는 일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미국사람들과 이야기할 경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의원은 은제품 관련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원들은 소맥재배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각각의 압력단체들은 반드시 소수집단이다. 분업에 기초한 체제 속에서는 특권을 노리는 모든 특정단체들은 소수집단이 아니면 안된다. 만일 그들이 다른 유사한 소수집단, 즉 유사한 압력단체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소수집단들은 결국 성공할 가망이 없다. 그들은 의회에서 다수세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압력단체들간의 제휴를 시도한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제휴는 해체될 수도 있다. 다른 압력단체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압력단체연합이 형성된다.

이러한 일은 1871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역사가들은 이

상황을 ‘제3공화국의 쇠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쇠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압력단체제도가 대국의 통치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입법부에는 소맥·육류·은·석유의 대표들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직 하나 입법부에서 대표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전체 국민이다. 전체 국민편에 서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 심지어 외교정책까지도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미국에서 인구가 희박한 일부 주는 은의 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은의 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납세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시장가격 이상으로 은을 사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소비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단지 적은 비율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머지 인구는 농산품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산품의 가격을 가능한 시장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농업부문의 이해관계는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 낙농업자는 곡류의 고매가정책에는 흥미가 없다. 오히려 곡류의 가격이 낮기를 바랄 것이다. 양계업자는 닭 사료값이 낮기를 원한다. 이 집단내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의회운동에서의 교묘한 책략은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집

단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미국에서 재미있는 일의 하나로 설탕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아마도 미국인 5백 명 중 오직 1명만이 설탕가격이 높기를 바랄 것이다. 5백 명 중 499명은 낮은 설탕가격을 바란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관세와 그 밖의 특별조치로 설탕가격을 높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설탕소비자인 499명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상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미주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며, 이 국가들 중 일부는 미국에 대한 설탕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들은 대량의 설탕판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압력단체의 이해관계가 심지어 일국의 외교정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치, 즉 보편화되어 있는 대의정치에 대해 글을 써오고 있다. 이들은 민주정치의 무능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하는 민주정치는 단지 ‘간섭주의’가 그 나라의 지배적인 정책으로 여겨지는 민주정치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19세기 초기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의 입법부에서 인류의 중대문제들에 대한 연설이 있었다. 그들은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자유와 모든 자유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법부는 보다 실리적으로 변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보다 실리적이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싼 땅콩가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을 실리적인 것으로 본다면 물론 입법부도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진보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간섭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독재자들의 야망과 폭군들의 행위 등에 저항하는 국민과 의원들의 힘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예컨대 설탕, 우유 및 버터의 높은 가격, 그리고 소맥의 낮은 가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을 바라는 선거인들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거리인 의원들은 매우 나약한 방법으로만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들은 결코 '전체' 선거인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러한 특권에 찬성하는 선거인들은 자기들과 반대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들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막는 반대자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는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의 계속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징수를 더한층 어렵게 만든다. 이들 압력단체의 대표들은 그들의 압력단체를 위해 많은 예외적인 특권을 원하지만,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

입법자들이 전체 국민이 '아닌', 그가 선출된 지역의 특정한 이익만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은 18세기 근대 입헌정치 창시자들의 사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섭주의가 초래한 결과 중의 하나였다. 원래의 사상은 입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입법부 의원이 특정지역에서 선출되는 이유는 다만 그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그를 신임하는 사람들이 선출한 것이다.

그가 자기 선거구를 위해 특정한 것을 얻어내려고 정치에 참여하고, 새 학교나 새 병원, 혹은 새 정신병원을 요구함으로써

그의 선거구에서 정부지출의 현저한 증가를 야기시키는 것은 당초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압력단체의 정치는 모든 정부들이 왜 팽창정책을 그만두기가 거의 불가능한가 하는 이유를 잘 말해준다. 선출된 공직자가 경비를 줄이고 지출을 제한하려 하면 이내 특정이익을 지원하는 자, 특정의 예산항목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 몰려와 '이러이러한' 특별계획을 착수해서는 안되며, '저러저러한' 계획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재정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듯이 경제상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결코 될 수 없다. 독재자는 처음엔 온갖 종류의 약속부터 하고 보겠지만 독재자인 까닭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대신 즉각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문과 입법부의 발언자들은 이후 오랫동안 독재자가 첫날에 언명한 것이 그 후의 언행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자유의 쇠퇴를 목격할 때, 불과 얼마전인 과거에 독일과 같은 대국이 겪어야 했던 공포의 독재정치가 떠오른다. 사람들은 모든 문명은 결국 몰락하여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저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독일의 학자 슈펜글러Spengler였으며, 또 한 사람은 널리 알려진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Toynbee였다. 그들은 우리의 문명이 이제 늙었다고 말한다. 슈펜글러는 문명을, 성장을 거듭하다가 결국 수명이 다하는 식물에 비유했다. 문명이라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을 식물에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완전한 독단이다.

무엇보다도 인류역사 안에서 제각기 상이한 독립된 문명을 구

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문명이라는 것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상호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식물의 사멸을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문명의 몰락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슈펜글러와 토인비의 이론을 논박한다 해도 매우 보편화된 비교법은 여전히 살아남는다. 즉 쇠퇴하는 문명간의 비교가 그것이다. 2세기에 로마제국이 융성한 문명을 이룩했다는 것과 로마제국이 통치했던 유럽지역,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도 매우 수준높은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정한 수준의 분업에 기초한 지극히 고도의 경제적 문명도 존재했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와 비교할 때 아주 원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 당시의 경제적 문명은 근대자본주의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는 최고의 수준이었다.

이 문명은 주로 3세기에 붕괴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렇듯 로마제국 내부에서 문명이 붕괴하자, 외적의 침략이 로마인들이 앞서 수세기 동안 거듭 격퇴해왔던 것보다 결코 심각하지 않았는데도 로마인들은 더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로마제국 내부의 사정이 로마를 몰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18세기 이전에 성취했던 최고의 문명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고대문명을 붕괴시킨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명을 위협하는 위험과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간섭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것이었다. 로마제국의 간섭주의는 이전의 그리스 정책을 추종하여 가격통제를 계속 시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가격통제는 온건한 편이어

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시장가격 이하로 가격을 내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세기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때, 이 불행한 로마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돈을 찍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화폐의 품질을 저하시켜야 했다. 이 방법은 현대식 인쇄기로 아주 손쉽게 화폐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대의 방법과 비교해보면 무척이나 치졸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가격통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당국에서 허용한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형성될 여러 상품들의 잠재가격을 밀돌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결과는 도시에서의 식료품 공급의 감퇴로 나타났다. 도시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돌아가 농경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로마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분업의 문제점과 인플레이션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분석도구를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화의 팽창, 즉 통화의 평가절하가 나쁘다는 사실이야 물론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로 황제들은 이러한 동향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도시거주자가 시골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법률이 있었지만, 그런 법률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이 도시를 떠나 농사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길은 없었다. 도시거주자는 이제 도시의 가공업에서 장인으로 일할 수도 없었다. 도시에서는 시장이

없어져 더이상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3세기부터 로마제국의 도시들이 몰락해가고 있었으며, 분업도 이전보다 시들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 후 오늘날 자급자족적 가정과 같은 ‘장원villa’이 출현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와 로마제국의 상태를 비교하여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말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3세기 후반에 보편화되었던 정치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평균 3년마다 황제가 암살되었으며 그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지시한 자가 후계자가 되었다. 대략 3년 뒤에는 똑같은 일이 새 황제에게 일어났다.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얼마 동안 쇠퇴에 맞서려고 애썼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의 실정과 로마제국에서 보편화되었던 상황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제국의 붕괴를 초래한 수단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수단이 비난받을 만한 공식화된 주의doctrines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우리시대의 간섭주의사상, 사회주의사상, 통화팽창주의사상 등은 저술가들과 교수들에 의해 엮여지고 정식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 누가 “오늘의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고 말한다면, 나는 “아니다, 더 나쁘지 않다”고 대답하겠다. 내가 보기엔 오늘의 상

황이 더 좋다. 사상이란 다른 사상에 의해 타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황제들의 시대는 정부가 옳으며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에 대해 논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러한 논박을 권장하는 학파와 교수들과 서적 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정책을 그토록 유해하게 만든 이러한 그릇된 사상은 모두 학구적인 이론가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어느 유명한 스페인의 저술가가 ‘민중의 반란the revolt of the masses’에 관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크게 주의해야 한다. 사실 반란이란 개념도 민중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개발한 지식인들은 민중출신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만이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정신만이 사회주의를 창조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모든 사회주의적 저술가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bourgeois’라는 용어를 쓸 때의 의미에서 예외없이 부르주아였다.

칼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대학에서 공부했다. 후일 그가 죽기까지 친구인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도움을 받았는데, 사회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엥겔스는 가장 악질적인 유형의 부르주아였다. 제조업자였으

니 마르크스주의의 어법으로 말한다면 그는 착취자였다.

오늘날 우리시대의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상의 결과이다.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된 사상과 싸우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공공생활에서 혐오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릇된 사상을 더 나은 사상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횡포를 조장하는 이론들을 논박해야 한다. 우리는 재산의 몰수, 가격의 통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악에 반대해야 한다.

오직 사상만이 어둠에 불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사상 자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중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이 올바른 사상이며 그릇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19세기의 위대한 시대, 자본주의의 위대한 업적은 고전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바스티아Bastiat, 그리고 다른 경제학자들의 사상의 결과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된 사상을 더 나은 사상으로 대체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일을 이룩하리라고 희망하며, 또 확신한다.

우리들의 문명은 슈팽글러와 토인비가 말하듯이 운명지어져 있지 않다. 우리들의 문명은 모스크바의 망령the spirit of Moscow에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문명은 존속할 것이며, 또한 존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보다 더 나은 사상을 통해 존속할 것이며, 이 더 나은 사상은 젊은 세대가 발전시킬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매우 좋은 징조로 생각하고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세계에서 자유경제를 찬성하는 발언을 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적어도 세계의 몇몇 선진국에 자유경제를 전파하려는 연구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섯 차례의 강연이 청중들에게 너무 벅찰지도 모르지만, 이 강연으로는 자유경제의 철학을 개선하기에 불충분하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제문제들에 관해 지난 50년 동안에 씌어진 터무니없는 말들을 모두 논박하기에도 확실히 충분치 못하다.

나는 여기 훌륭한 청중들에게 강연할 기회를 베풀어준 연구소에 깊이 감사하며 수년 안에 이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자유를 위한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은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장래를 전폭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제 2 부

반자본주의 심리

전前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방식이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로 대체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전례없이 향상되었다. 자유기업정신과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한 나라일수록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세계 다른 지역의 정부들보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책을 뒤늦게 채택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를 혐오하고 있다.

이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이 지독하기 짝이 없는 사회의 경제체제는 재앙과 곤궁만을 불러왔을 뿐이라고 한다. 즉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의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이제 절대다수의 대중은 자본주의하에서 난폭한 개인주의자들에게 무참히 착취당함으로써 굶주리는 가난뱅

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악당들은 그들의 금전상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이롭고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기보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만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알코올과 담배로 인체를 중독시키고 저질의 신문, 음란서적과 얼간이 같은 영화로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ideological superstructure’는 퇴폐와 타락에 가득찬 문학, 천하기 짝이 없는 쇼, 스트립 댄스, 할리우드의 영화와 탐정소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세론의 이러한 편견과 편협한 완고성은 혐오스러운 사물들마다 유별나게 ‘자본주의적capitalistic’이라는 형용어구를 갖다붙이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결코 붙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값어치있는 것은 자본주의와는 아랑곳없이 이제까지 생산되어 왔으며, 나쁜 것들은 자본주의의 군더더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편견을 분석하고 그 편견의 뿌리와 이에 따른 귀결을 밝혀내려는 것이 이 책을 쓴 동기이다.

제1장

자본주의의 사회적 특징과 그 비방의 심리적 요인

근대자본주의의 특징은 대중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대량생산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다수가 점진적으로 부유해졌다. 자본주의는 ‘서민common man’의 프롤레타리아화를 막고 그들을 ‘부르주아’의 대열로 격상시켰다.

자본주의사회의 시장에서는 이들 서민이 으뜸가는 소비자이며, 이들의 구매 여부에 따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가와 생산품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부유층의 사치품수요만을 위해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상점이나 공장들은 시장경제의 경제기구 안에서 단지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러한 상점이나 공장들은 결코 대기업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기업은 언제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중에 봉사하기 마련이다.

산업혁명이 초래한 급격한 사회변동이 바로 이러한 대중의 지위향상과 연결되었다. 역사상 노예와 농노, 빈민과 거지들의 무리였던 하층민들이 이제 구매대중이 되고 기업인들은 이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힘써야 했다. 이들이야말로 ‘언제나 옳은’ 고객들이며 가난한 공급자를 부자로, 부유한 공급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후원자가 되었다.

정부나 정치인들의 술수에 방해받지 않는 시장경제의 조직내에서는 민중들을 거머쥐고 복종토록 억압하거나, 공물과 세금을 긁어모으거나, 천민들에게 빵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해가도록 하면서 자신들은 질편하게 잔치를 베푸는 대공이나 대지주들이란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의 소득체계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 그리고 가장 값싼 방법으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만이 번영하도록 만든다. 오로지 고객들에게 봉사함으로써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대중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야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당장 그들의 자본을 잃는다. 한푼 한푼의 돈이 투표권이나 다름없는 매일 되풀이되는 일종의 국민투표에서, 고객들은 공장과 상점, 그리고 농장을 누가 소유하고 경영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질적 생산수단의 통제는 사회적 기능이며, 이는 최하위에 있는 고객들의 승인 아니면 취소처분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근대적 개념이다. 모든 성인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생활을 영위해나갈 자유가 있다. 그들은 규제와 강압의 사회적 장치인 경찰이나 일정한 계획을 시행하는 계획당국의 계획에 순응하여 생활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구조와 자연이 부여하는 생산요소들의 불가피한 희소성 밖에 없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는 이른바 자연법칙이 설정한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절대적인 기준이나 형이상학적 인식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변호할 것까지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익’이든 ‘좌익’이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체주의 주창자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또한 대중이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들의 ‘진정한’ 욕구나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보호자, 즉 정부를 필요로 한다는 전체주의자들의

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경제적 향상에 대한 충동

자본주의하에서는 일반대중들이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마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 물론 자동차나 텔레비전 수상기나 냉장고 등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그 순간, 인간은 그전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욕망의 일부가 충족되자마자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이것이 곧 인간의 본성이다.

미국인들 중 그들의 나라가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미국인의 생활양식이 비자본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화 속의 이야기같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수도 있는 것은 과소평가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한다. 이처럼 더욱 더 많은 재화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개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 강한 욕망이 인간을 경제적 향상의 길로 인도하는 추진력이 된다. 이미 손에 넣었거나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미덕이 아니다. 그런 태도는

이성적인 인간의 행위라기보다 오히려 동물의 행동에 가깝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결의에 찬 행동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적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대부분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는, 다양한 재화가 좀더 풍부하게 공급되기를 열렬히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럴싸한 이데올로기에 잘못 인도되고 있다. 자신들이 이미 올바르게 설정했던 기본적인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아둔한 나머지 자신들의 행위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잠시 스쳐가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결국 전반적인 궁핍과 분업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동의 붕괴, 그리고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인 조치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물질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용한 방도는 오직 하나뿐이다. 즉 인구증가에 대처하여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는 일이다. 노동자 1인당 투자자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 바로 이 일을 것처럼 비난받던 자본주의와 이윤제도가 해냈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대적인 정부와 정당들은 이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왜 이들은 한결같이 자본주의를 혐오하는가? 왜 이들은 자본주의가 부여하는 행복을 누

리면서도 소위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현대의 소련 노동자의 비참한 상태에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 것일까?

신분사회와 자본주의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신분사회의 특성과 대비시켜 자본주의의 특징을 뚜렷이 밝힐 필요가 있다.

흔히 시장경제하의 자본가와 기업가들을 신분사회하의 귀족과 비교한다. 이러한 비유의 근거는 이 두 집단이 나머지 사람들의 빈곤상태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귀족의 부와 ‘부르주아’, 혹은 자본주의적 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귀족의 부는 시장현상의 결과가 아니다. 그 부는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민중에 의해 회수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영향조차도 받지 않는다. 귀족의 부는 정복, 혹은 정복자측이 나누어주는 대규모 증여에서 비롯된다. 그 부는 증여자가 취소해버리거나, 또다른 정복자의 폭력적인 점유권 회수로 끝장날 수 있으며, 낭비에 의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봉건영주는 소비자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며 민중의 불만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가와 자본가들은 그들의 부를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고객들에 의지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

람들이 더 좋고 더 싼값으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여 이들을 밀어내면, 바로 그 순간 이들은 부를 잃는다.

신분계급제도, 계급, 권리, 주장, 그리고 법적으로 인가된 특권과 자격제한 등 각각 다른 세습집단으로 사람들을 세분화한 제도를 탄생시킨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는 것은 이 책의 과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봉건적인 제도의 유지가 자본주의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봉건제도의 철폐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는, 모든 사람이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사기업체제에 참여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가로막던 장벽을 제거해버렸다.

지위, 신분, 계급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위치가 일생동안 고정되어 있다. 개인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의 사회적 지위는 그가 속한 계급의 각 성원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의무, 혹은 일정한 자격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과 관습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된다. 드문 일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운과 불행이 개인을 더 높은 계급으로 격상시킬 수도 있고 더 낮은 계급으로 격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정한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개개 구성원의 조건은 오직 구성원 전체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선되거나 저하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은 일차적으로 한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 어떤 신분집단의 구성원이며, 이 구성원으로서만 국가조직에 간접적으로 통합될 뿐이다. 다른 계급에 속하는 동족과 접촉하면서도 개인은 공동체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개인은 다만 다른 사람의 신분과 자신의 신분을 갈라놓는 단절감을 느낄 뿐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언어관습뿐 아니라 의복에 관한 관

습에서도 나타난다. 구체제ancien regime하의 유럽귀족들은 프랑스로 말하기를 좋아했다.

제3계급the third estate(프랑스혁명 전의 중산계급인 평민—역주)은 자국을 사용했는가 하면, 농촌지역 주민들 가운데 좀더 낮은 계급과 농민들은 지방사투리, 은어,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언어를 고수했다. 이러한 언어들은 학식있는 사람들도 종종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양한 계급들은 옷도 다르게 입었다. 누구든 낮은 사람을 만나도 그의 계급을 알 수 있었다.

좋았던 옛날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대해 퍼붓는 주된 비난은 이 원칙이 계급의 특전과 존엄을 철폐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원칙이 사회를 ‘원자화atomized’시켰으며 사회의 ‘조직적인organic’ 세분화를 ‘무정형amorphous’의 대중으로 분해시켰다고 말한다.

너무도 많은 다수가 이제 최상의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천박한 물질주의가 지난날의 고상한 기준들을 대체시켰다고 비난한다. 돈이 왕이며, 전혀 값어치도 없는 인간들이 부와 풍요를 누리는데도 칭찬받아 마땅한 가치있는 사람들은 빈털털이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난은 구체제하의 귀족들은 덕목이 뛰어났으며, 그들의 계급과 수입은 도덕적·문화적 우월성 때문이라는 것을 암묵리에 뜻하고 있다. 이처럼 실없는 소리는 비방할 필요조차 없다. 어떤 가치판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역사가들은 주요 유럽국가들의 귀족들이란 대부분 16,17세기의 종교 및 헌정투쟁에서 제각기 자기나라에서 승리한 파당에 교묘하게 빌붙었던 군인, 조신 및 궁정여인들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수적, 또는 ‘진보적’인 자본주의의 적대세력들은 과거의 규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규준을 비난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부와 명성을 얻는 사람들은 동료들 중에서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박하고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 두 집단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명백히 불공평한 ‘분배’방법 대신 한층 공평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애쓰는 척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로운 자본주의하에서는, 불변의 가치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남보다 우대받아야 할 사람들이 역시 잘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다. 시장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공헌, 타고난 가치, 도덕적인 우월성에 따라 보답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을 번영시키는 것은 ‘절대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그의 공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와 동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 욕구·목적이라는 척도를 나름대로 적용하여 내리는 평가에 달려 있다. 민주적 시장가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말하자면 주권자인 셈이다.

소비자들은 욕구의 충족을 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핑카핑카회사Pinkapinka company의 음료 핑카핑카를 즐겨 마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정소설, 미스터리영화, 저질신문, 투우, 권투, 위스키, 담배, 껌 등을 좋아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비를 갖추고 전쟁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위해 투표를 한다. 따라서 가장 염가의 방식으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

요한 온갖 상품만을 공급하는 기업가들이 부를 얻는 데 성공한다.

시장경제구조 안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의 학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물건의 구매여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평가이다.

시장체제의 불공평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불평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한마디의 충고만이 필요하다.

“그대가 부를 얻고 싶거든 대중들에게 좀더 값싼 것, 혹은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라. 또다른 음료를 만들어 핑카핑카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하라. 법 앞의 평등은 그대에게 모든 백만장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정부의 제약에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만일 그대가 초콜릿왕이나 영화스타, 그리고 권투 챔피언을 앞지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대의 잘못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류업이나 프로권투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부보다 시를 쓰거나 철학서를 써서 얻는 만족을 더 좋아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런 사람들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의 경제적 민주주의의 법칙이다. 소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들은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보다 적은 투표수, 즉 적은 돈을 모을 수 있을 뿐이다. 돈버는 데 있어 영화스타는 철학자를 앞지른다. 또한 핑카핑카 제조업자들은 심포니 작곡가를 앞지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제공하는 상품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란 곧 사회제도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자연이 많은 사람을 차

별적으로 다루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약점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약골로 태어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불구가 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리적 능력은 그가 종사할 수 있는 분야를 엄격하게 제약한다.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는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다.

좌절된 야망에의 원념(怨念)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계급과 신분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불운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가 노예인 까닭은 모든 생성을 결정하는 초인적인 힘이 이러한 지위를 그에게 할당한 탓이다. 그것은 그의 행위 탓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천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아내의 탓도 아니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왜 당신은 공작이 못되었소? 공작이 되었더라면 나는 공작부인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공작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노예의 딸인 당신과 결혼

하지 않고 다른 공작의 딸과 결혼했을 거요. 당신이 공작의 딸이 못된 건 오로지 당신의 잘못이요. 당신의 부모를 선택하는 데 왜 좀더 영리하지 못했소?”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사람의 지위가 그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모든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노력은 했으나 그의 동료들보다 모자랐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나무랐다고 하자.

“당신은 왜 1주일에 겨우 80달러밖에 못 버는 거예요? 당신의 옛친구인 폴만큼 영리했다면 당신은 선임자가 되고, 나는 좀더 좋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열등함을 의식하고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에 대해 말이 많은 이유는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리 대우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재능에 따라 다른 대우’라는 원칙의 지배는 개인의 부족한 점에 대한 어떤 변명도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패한 일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과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여 자수성가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의 눈빛에서 다음과 같은 무언의 질책을 느낀다.

“왜 당신은 좀더 영리하지 못했는가?”

그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을 칭찬하고 그의 실패에 대해 경멸, 혹은 동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많은 사람이 불행감을 느끼는 까닭은, 자본주의가 각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이 지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력으로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야망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자신이 실패한 일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를 앞지른 사람들을 보면 잠재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뜨내기 인부들이 정규수입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태도이며, 공원이 조장에게, 간부직원이 부사장에게 보이는 태도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자존과 도덕적 안정은 더 큰 노력과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와 부족에 눈뜨게 된다. 서양의 계몽주의이론과 합리주의, 공리주의, 자유방임주의의 사회철학뿐 아니라 이러한 사상의 조류를 따라 전개됐던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거부해온 독일학자들의 오랜 전통은 유스투스 뢰저 Justus Möser로부터 시작되었다. 뢰저의 분노를 자아낸 새로운 원칙은 군장교와 공무원의 승진은 개인의 장점과 능력에 따라야지 학자의 혈통이나 귀족의 가계, 연령,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요구였다.

성공이 오로지 개인적인 공적에만 달려 있는 사회에서의 생활은 절대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뢰저의 말이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치와 장점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인생에서 한 인간

의 지위가 자신의 타고난 우월성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면,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에 승복할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들의 위계와 자존심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러나 공적만이 인간의 지위를 결정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들의 지위를 대신 차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앙심이 생겨난다.¹⁾

자본주의의 가격 및 시장기구는 장점과 재능이 한 인간의 성공과 패배를 결정짓는 사회인 것이다. 우월성의 원칙에 대한 피자의 편견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한 원칙의 심리적 중요성을 기술한 것은 옳았다. 그는 노력은 했으나 부족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감정을 꿰뚫어본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를 달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할 곳을 찾는다.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복하려 든다. 적어도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능이 뛰어나고, 유능하고, 근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사회질서는 가장 가치있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허용하지 않고, 부정직하고 파렴치한 악당, 사기꾼, 착취자, ‘형편없는 개인주의자’에게 영예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정직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너무 젊었기 때문에 야비한 속임수라는 수단에 호소하지 못했으나, 성공한 그의 경쟁상대는 이 속임수 덕분에 우위에 섰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는 사람이 한편으로 미덕과 빈곤, 다른

한편으로는 악덕과 부 양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전가는 모든 사람을 사회복리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대우하는,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행운을 책임지는 사회질서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야망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행운을 불쾌하게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증상과 비방으로 표출시킨다. 그러나 좀더 세련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증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의 실패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알려주는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중요성을 하나의 철학, 즉 반자본주의 철학으로 승화시킨다.

자신의 자본주의 비판을 옹호할 때 보이는 광신적 태도는, 그들이 비판의 허위성에 대한 자신의 자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야망의 좌절에서 오는 괴로움은 법률상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유한 것이다. 그 괴로움은 법률상의 평등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평등한 사회에서는 지적 능력, 의지력, 근면성에서 사람들의 불평등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와, 그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이에 놓인 간격이 무자비할 정도로 드러난다. 그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대우해줄 ‘공평한’ 세계에 대한 백일몽은 자기인식의 부족이란

1) Möser, *No Promotion According to Merit*, 1772(Justus Möser's *Sämtlich Werke*, ed. B. R. Abeken, Berlin, 1842, Vol.2, pp.187~191).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된다.

지식인들의 원념

보통사람은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 기회가 별로 없다. 다른 보통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으로 그의 사장과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성공적인 고객봉사에 요구되는 능력과 재능면에서 기업가나 간부가 어떻게 다른가를 개인적으로 잘 경험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데서 일어나는 그의 선망과 원한은 피와 살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자본’, 그리고 ‘월스트리트’ 같은 명확치 못한 추상적 개념들을 향한다. 그러나 사람이 매일 마주치는 자신과 똑같은 인간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쓰라린 감정과 똑같은 감정으로 것처럼 실체가 없는 희미한 존재를 증오했다는 거의 불가능하다.

직업이나 가족관계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쉽게 가지며, 자신이 보기에 그들이 받는 보상이 응당 자기차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물론 사정이 달라진다. 그들은 야망의 좌절감을 더욱 사무치게 느끼며,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한 증오감을 더욱 더 크게 품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자리를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주었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를 혐오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하루하루의 일과와 경험을 통해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서로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의사들, 즉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의료방법과 치료기술을 부단히 연마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의과대학에서는 급우였고 더불어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그는 의료단체의 회합에 함께 참석하고 사교적인 모임뿐 아니라 환자들의 침상 곁에서도 그들과 만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친구이거나 친척이며, 그들 모두가 자신을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친숙한 동료로 불러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데나 소득수준에서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미 자신을 앞질러 지금은 다른 계층에 속하고 있다.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면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그의 원망과 선망을 아무도 눈치채지 않도록 주의깊게 조심한다. 이러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아주 틀려먹은 태도로 간주될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치가 저하될 것이다.

그는 굴욕감을 꿀꺽 삼켜버려야 하며, 분노를 다른 대상에 돌려야 한다. 결국 그는 사회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의 사악한 체제를 고발하게 된다. 이 부당한 체제만 없었다면 그의 능력과 재능, 열성과 업적은 당연히 받아야 할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교사, 예술가와 배우, 작가와 언론인, 건축가와 과학자, 엔지니어와 화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역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더욱 성공한 동료, 동기동창 및 친구의 우월함을 보며 초조해 한다. 이들의 원념은 경쟁이라는 현실을 우애와 동료관계라는 베일로 덮어씌우는 직업적인 행위와 윤리의 규범에 의해 심화된다.

지식인의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그들의 야망을 좌절시킨 원흉이라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의 혐오감은 단지 일부 성공을 거둔 ‘동료들’에 대한 자신의 증오감을 감추는 눈가리개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미국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적 편견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적 편견은 한두 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반자본주의적 편견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욱 보편적이고 심하다. 경악할 만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교계(society)’(프랑스어의 ‘le monde’)라는 말을 다루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 ‘사교계’에 모든 활동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든다. 정치가와 의회지도자들, 각 부서의 고위공직자들, 주요 신문·잡지의 발행인과 편집인들, 저명한 작가, 과학자, 예술가, 배우, 음악가, 엔지니어, 변호사와 의사들은 기업인과 귀족집안의 자손들과 어울려 소위 상류사회를 형성한다.

이들은 만찬이나 티파티, 자선무도회와 바자회, 연주·공연의

시사회, 미술전람회의 전야제 등에서 서로 어울린다. 같은 레스토랑, 같은 호텔, 같은 유흥장을 자주 드나들며 서로 만나면 지적인 대화를 즐기곤 한다. 이것은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생겨나 파리사람들의 상류사회에서 완성되었고, 그 뒤 서부 및 중부 유럽에 있는 모든 주요도시의 ‘사교계’로 옮겨갔다.

새로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좀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러한 사교적 모임에서 반응을 얻는다. 우리는 이 ‘사교계’가 미술과 문학의 주역들을 얼마나 고무하거나 낙담시켰는가를 분석하지 않고는 미술과 문학의 역사를 다룰 수 없다. 유럽의 사교계는 어떤 분야에서건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이런 사교계에 접근하기는 귀족들이나 부호들이 적당한 소득을 가진 평민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부는 문벌은 물론 개인적 탁월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얻는 지위나 영예도 가져다줄 수는 없다. 파리 중류사회의 스타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프랑스 한림원 Académie Française의 회원들이다. 지식인들은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적어도 지적인 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체 가장한다.

이러한 의미의 사교계는 미국적인 풍토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른바 미국의 ‘사교계’는 거의 전적으로 부유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공한 기업인들과 이 나라의 저명한 작가, 예술가,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는 사교적인 왕래가 거의 없다. 사교계 명사록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여론의 형성자나 사상의 선구자들과 사교적으로 잘 만나지 않는다.

명사들은 책이나 사상에 관심이 없다. 카드놀이를 하지 않을 때도 이들은 문화적인 일보다 스캔들이나 가십에 관해 지껄이고

스포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심지어 독서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작가, 과학자, 예술가들을 사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가 사교계와 지식인들을 갈라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으로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지식인들에 대해 ‘사교계’의 명사들이 품고 있는 경멸감에 대응할 지식인들의 원념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도 없다. 미국의 예술가나 과학자들은 부유한 기업인을 오로지 돈버는 데만 정신이 팔린 야만인으로 여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교수는 학업보다 대학의 축구팀에 더욱 관심있는 학생들을 멀리한다. 그는 축구팀 코치가 뛰어난 철학교수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모멸감을 느낀다. 새로운 생산방법을 연구해낸 사람들은 연구업적의 현금가치에만 관심을 갖는 기업인들을 증오한다.

그처럼 많은 미국의 연구직 물리학자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동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들은 경제학에 대해 문외한인 데다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 역시 자신들이 경멸적으로 일컫는 ‘이윤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결코 다른 태도를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그 자신을 격리시킬 때, 특히 미국의 명사들이 그러하듯 지적인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킬 때, 틀림없이 그들 세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적의에 찬 비판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다.

미국 부유층의 배타주의는 어느 의미에서 스스로를 버림받은

국외자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워 헛된 자존심을 견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격리상태가 그들을 고립시키고 적대감에 불을 지피 지식인들로 하여금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인텔리 직업인들White Color Workers의 원념

인텔리 직업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외에도 그들에게만 특유한 두 가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종이에 글이나 숫자를 써넣고 있는 이들은 자기업무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쓰고, 읽고, 또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만심에 잔뜩 부풀어올라, 경영엘리트에 속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임무를 사장의 임무와 비교하기도 한다. ‘정신노동자worker by brain’로서, 손에 못이 박히고 흙이 묻은 육체노동자들을 거만스럽게 내려다본다. 이러한 육체노동자의 대다수가 그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존중된다는 사실을 알면 화를 낸다. 자본주의가 자신의 ‘지적인’ 작업을 그 작업이 지니는 ‘참다운’ 가치에 의해 평가하지 않고 ‘무식한 자’들의 단조로운 천역(賤役)을 편드는 것이

무척이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

사무직과 육체노동의 중요성에 관해 이러한 격세유전적 관념에 사로잡힌 인텔리 직업인은, 좀처럼 현실적인 상황판단을 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무적인 업무가 단순한 훈련만 거치면 되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인 데 반해, 그가 시기하는 ‘일꾼hands’들이 야말로 고도로 숙련된 숙련공과 기술자들로서 현대공업의 복잡한 기계와 장치 등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찰력 및 추리력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사태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한편 사무직 종사자는 전문직업 종사자와 똑같이 날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더욱 괴로워한다. 그와 똑같은 수준에서 함께 출발한 동료직원은 회사의 서열로 보아 출세했으며, 자신은 밑바닥에 처져 있음을 깨닫는다.

어제만 하더라도 풀은 자신과 같은 서열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풀이 더 중요하고 급료도 많은 직책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풀이 모든 점에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풀이 승진한 것은 틀림없이 천박한 속임수와 술책 덕분이며, 사람의 출세를 촉진하는 것은 오직 서적과 신문,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비난하는 자본주의라는 불공평한 체제탓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들의 대단치 않은 업무가 기업가 활동의 일부이며 사장의 업무와 별다를 것 없다는 사무직 종사자의 자만심과 환상적인 믿음은, 레닌Lenin의 가장 널리 알려진 논문에 나오는 ‘생산과 분배의 관리’라는 개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레닌 자신과 대부분의 공모자들은 시장경제의 기능에 관해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었으며, 결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모든 악 가운데 최악의 것이라고 서술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였다.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자발적인, 그보다 오히려 비자발적인(탈취한) 당원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폭력적인 ‘몰수’에 의해 충당된 당기금이였다.

그러나 1917년 이전에는 이런 동지들이 서부 및 중부 유럽에서 망명생활을 했고, 이때 회사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했다. 그들은 기업가의 활동에 관해 얻은 모든 지식을 레닌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경험, 즉 서류의 빈칸이나 채우고 편지를 복사하거나 장부에 숫자를 기입하고 서류나 철하는 사무직 경험이었다.

레닌이 한편으로는 기업가의 일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교육받은 간부 엔지니어, 농경학자 등’의 일을 구분지은 것은 옳다. 이러한 전문가와 과학기술자는 주로 명령의 수행자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가에 복종하고, 사회주의하에서는 ‘무장한 노동자’에 복종할 것이다. 자본가와 기업가의 기능은 다르다. 레닌에 따르면 그것은 ‘생산과 분배의 관리, 그리고 노동과 생산품의 관리’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가와 자본가의 임무는 사실상 여러 생산요소가 최선의 가능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욕구에 봉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용도의 결정, 즉 무엇이 얼마만큼 어떤 품질로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레닌이 관리control라는 용어에 붙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레닌은 생산활동의 영위가 어떤 상황 수 있는 사회기구의 체제하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알지 못했다. 그 문제들이란 생산요소의 불가피한 회소성, 생산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미래여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미 선택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과학기술방법 가운데서 될수록 다른 목적들의 달성에 덜 방해가 되는 방법, 즉 생산비용이 가장 낮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암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에 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레닌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때때로 들어 기업활동에 관해 배운 것이 라고는, 지긋지긋하게 갈겨 써대고,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그는 회계와 관리가 사회의 조직과 올바른 기능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그러나 ‘회계와 관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의해서 극도로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찰하고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극히 단순한 작업이 되었으며, 그 결과 이 직무는 읽고 쓸 줄 알며 산수의 기본 4칙만 알면 해낼 수 있는 것이 되었다.”²⁾

이것은 가히 문서담당직원에 대한 더할나위없는 극찬이라 하겠다.

2) Lenin, *State and Revolution*(Little Lenin Library, No.14,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pp.83~84.

‘사촌들’의 원년

외부세력의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생산요소의 통 세력이 가장 유능한 사람들의 수중으로 양도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사회가 아직까지 적절하게 만족되지 못한 소비자 들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긴요한 욕구를 최선의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즉시, 이전의 노력으로 거둔 성공에 의해 축적된 부는 소산消散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의 소산은 기업가의 기백과 정력, 지모 등이 피로, 노령, 질병의 영향으로 약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기구에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하는 즉시, 이미 그 기업가의 생애 중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한 현상으로 물려받은 유산을 헛되게 낭비하는 상속자의 무 능력함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우둔하고 얼빠진 자손들이 하찮 은 신분으로 몰락하지 않고,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유지한 다면, 그들의 행운은 반자본주의적 경향이 낳은 제도와 정치적 조치들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회사들과 ‘소자본으로 사 업을 벌이고 있는’ 신참자들을 비롯, 매일매일의 고달픈 경쟁에서 새로이 부를 획득하지 않고는 이미 획득한 부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일찍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들이 정부공채를 구입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으로 재산을 잃는 것이 두려워 시장의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 한 정부의 비호에 의지하기 때문이다.³⁾ 그러나 기업가로서의 뛰

3) 유럽에서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의 소유자가 둔하고 낭비벽이 있다 하더

어난 재능이 수세대를 통하여 전승된 가계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한두 명, 혹은 손자나 증손자들이 그들의 조상에 필적하거나 더욱 뛰어난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상의 부는 낭비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축적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이어받은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중의 명성, 즉 조상들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 신분사회와 자본주의사회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명문출신 patricians’이라고 부르듯이, 대부분 그들의 인격에 예의범절, 세련된 취미,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로서의 숙련과 근면성을 지닌 우아한 행동을 겸비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기업가에 속하기도 한다.

현대의 반자본주의적 선전과 음모에서 중요시되는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문가들의 극히 일부인 부유한 몇몇 가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의 가문에서도 모든 아들과 손자들이 사업가적인 자질을 이어받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세대에서 오직 하나, 기껏해야 둘만이 그러한 자질을 물려받는다. 이 가문의 부와 사업의 존속에 본질적인 것은, 사업의 영위가 이러한 하나, 아니면 두 사람에게 위탁되고 그 밖의 가족들은 단순한 수익배당 수령자의 지위로 격하된다는 측면이다.

라도 안전하게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가 있었다. 시장에서 획득한 부는 관세와 여타 법적 규정이 외부인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었다. 영국에서의 한사상속과 유럽 대륙에서 실시되었던 이와 유사한 세습적 증여재산제도는 그 소유자가 그의 상속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 선택된 방법은 물론 그 국가나 지방법률의 특수한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가족을 두 범주, 즉 사업의 영위를 지시·감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는 것이다.

두번째 범주는 대체로 우리가 기업주라고 부르는 첫번째 범주의 사람들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장의 형제·사촌형제·조카들이며, 더욱 빈번하게 자매·과부가 된 며느리·여사촌형제·조카딸 등이다. 우리는 이 두번째 범주의 구성원들을 ‘사촌cousins’이라고 부르코자 한다.

이들 사촌들은 사회나 법인에서 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는 문외한이며, 기업가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점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들은 일류학교와 대학의 기숙사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 학교의 분위기는 돈벌이를 천하게 여기는 오만한 멸시감으로 가득차 있다. 사촌들의 일부는 그들의 시간을 나이트 클럽과 기타 유흥장, 내기나 도박, 파티나 환락으로 보내고, 호사스런 방탕생활에 탐닉한다. 이들과 다른 부류는 취미삼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저술, 혹은 다른 예술활동에 바쁘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촌집단의 예외적인 구성원들의 재능이 플레이보이와 방탕한 사람들의 형편없는 행위가 낳은 불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훌륭할 수도 있다. 아주 저명한 저술가, 학자, 정치가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직업 없는 신사’들이었다. 돈벌이가 되는 직업을 가져 생계를 꾸려가야 할 필요성에서 벗어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서 독립한 이들은 새로운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다.

영감이 부족한 다른 부류들은 재정적 후원과 정신적 지원이 없었다면 창조적인 작업을 이룩할 수 없었을 예술가들의 후견인이 되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영국의 지적·정치적 발전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했던 역할을 강조한다. 19세기 프랑스의 저술가와 예술가들이 삶의 의욕을 찾아냈던 곳은 다름아닌 ‘le monde’ 곧 ‘사교계’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플레이보이들의 죄과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른 집단의 홀륭함도 아니다. 우리의 주제는 시장경제의 파괴를 노리는 이론의 전파에서 특수한 사촌집단이 담당했던 역할이다.

많은 사촌들은 그들과 사장 및 가족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합의사항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받아왔다고 믿는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그들의 부친이나 조부가 만들었던 그들 자신이 서명한 협정에 의해 만들어졌건간에 그들이 받는 것은 너무도 적은 반면 사장들이 받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시장의 본질을 잘 모르는 그들은 마르크스와 더불어 자본이 자동적으로 ‘이윤을 낳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그들보다 더 수입이 많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우둔한 나머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의미조차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그들은, 사장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타고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음험한 시도라고 의심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장들과 싸움을 벌인다.

사장들이 울화통을 터뜨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대규모 사업 앞에 정부와 노동조합들이 장치해놓은 모든 장

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자신들의 능력과 열성이 없었다면, 회사는 오래전에 망했거나 다른 가족이 별수없이 팔아치웠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사촌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공평하게 평가해야 하고, 그들의 불평이 전적으로 경망스럽고 부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장들과 사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가족간의 반목은 단지 그 일족의 구성원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사촌들이 사장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반자본주의진영과 합세, 갖가지 ‘진보적’ 모험에 자금을 제공하면 문제는 보편적인 중요성을 띤다. 사촌들은 열성적으로 파업을 지원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수입원인 공장에서 일어나는 파업까지도 지원한다.⁴⁾

대부분의 ‘진보적’인 잡지와 신문들이 이들 사촌들이 아낌없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사촌들은 진보적인 종합대학·단과대학·연구소에 ‘사회연구social research’를 위해 재산을 기증하기도 하고, 갖가지 공산당활동을 후원하기도 한다. ‘사교장의 사회주의자parlor socialists’로서, 또한 ‘호화별장의 볼셰비키penthouse Bolsheviks’로서 이들은 ‘음울한 자본주의체제dismal system of capitalism’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군단proletarian army’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4)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이 ‘그 리무진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업들에 대항하는 파업에’ 열성적인 숙녀들을 피켓라인까지 날라다주었다.” Eugene Lyons, *The Red Decade*, New York, 1941, p.186.

자본주의로부터 안락한 수입과 여가를 부여받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갈망한다. 많은 군중들이 극장에 모여든다. 연예업에는 돈이 몰린다. 인기배우와 극작가들은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향유한다. 이들은 주방장이 음식과 술을 대령하고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서 산다. 이들은 ‘굶주림의 포로prisoners of starvation’가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는 공산주의의 온상이다. 아주 완고한 소련 공산주의sovietism의 지지자 중에는 저술가와 연기자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설명들은 부분적으로 옳기도 하다. 그러나 무대와 은막의 뛰어난 인물들을 혁명가의 대열에 몰아넣는 주요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의 물질적인 성공은 결정권이 있는 소비자 몇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조업자가 행하는 서비스와 연출자·배우·극작가가 행하는 서비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의존성의 인식은 고객들에게 유형有形의 즐거움을 공급하는 사람들보다 연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든다. 유형의 재화를 제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산품이 어떤 물질적 속성 때문에 구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대중들이 이들 상품보다 더 좋은 값싼 상품들이 제공되지 않는 한, 계속 이 상품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재화들이

만족시켜 주는 욕구가 가까운 장래에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재화에 대한 시장상황은 이해력있는 기업가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연예계는 사정이 다르다. 대중들은 권태롭기 때문에 오락을 갈망한다. 그리고 이미 여러번 경험하여 익숙해진 오락처럼 사람들을 지겹게 만드는 것도 없다. 연예업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고객들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것, 놀라운 것에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고객들은 변덕스럽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어제 소중히 여겼던 것을 오늘은 가치없는 것으로 외면해버린다. 연극이나 영화계의 거물은 언제나 변덕스러운 대중들을 두려워한다. 이 거물은 어느날 아침 깨어나자 부와 명성을 얻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이면 대중에게 잊혀질 수도 있다. 그는 환락을 갈망하고, 자신이 대중들의 변덕과 환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언제나 초조감 때문에 불안해 한다. 입센Ibsen의 연극에 나오는 건축가처럼 알려지지 않는 신인, 즉 대중의 총애를 받으며 등장하여 자신을 밀쳐내버릴 정력적인 젊은이들을 두려워한다.

명백한 것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 되고 만다. 이들 중에는 공산주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공산주의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체제가 아닌가, 인류의 온갖 악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났지만 공산주의가 쓸어버릴 것이라

고 매우 저명한 사람들이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 자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 다른 모든 근로자의 동지가 아닌가 하고 그들은 생각한다.

헐리우드와 브로드웨이의 공산주의자들치고 사회주의 예술가들의 저작을 공부하거나 시장경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접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들 육체파 여배우와 무용수, 가수들과 코미디, 영화, 가요 등의 작가와 제작자들은 시장경제라는 착취자가 추방되면 즉각 자신들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는 엉뚱한 환상을 갖는다.

연예산업의 많은 작품들 중 얼빠지고 조잡한 것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저질의 연극이나 영화의 제작에 협조하는 사람들의 환경보다 다름아닌 미국적 환경이 공산주의를 믿도록 더욱 부채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미래의 역사가가 마크 트웨인이 근원적인 자료로서 높이 평가했던 이러한 대수롭지 않은 사실들을 연구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립쇼의 무용수가 미국의 과격파운동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필히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제2장

일반대중의 사회철학

자본주의의 본질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실상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경제학의 등장은 인류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의 하나였다. 자본주의적 사기업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있어 경제학은 그 등장에 앞선 1만 년간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불과 몇 세대 동안 온갖 인간사를 변화시켰다. 자본주의국가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자본주의적 사고 및 행동방식이 이룩한 경이적인 업적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

이 세상의 여러 현상 중 자본주의가 초래한 유례없는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경이적인 것은, 그 변화가 소수의 저술가 및 이들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흡수한 그리 많지 않은 정치가들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사실이다. 나태한 대중뿐 아니라 자신들의 상거래를 통해 자유방임주의적 원칙이 구현되도록 만든 대다수의 기업인들도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유주의의 전성기에서조차 시장경제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다. 서양문명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소수엘리트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19세기 초반 수십년 동안,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심각한 결점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위털루전쟁에서 세바스토폴Sebastopol전쟁 사이의 영국에서는 경제학 논문을 가장 열심히 탐독했다. 그러나 유행은 곧 사라졌다. 일반독자들의 취향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학은 한편으로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 또다른 한편으로는 역사학이나 법률학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낯설

고 거부감을 주는 것 같다. 실험실이나 자료실,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 지니는 계발적 특이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경제학의 인식론적 특이성은 편협한 실증주의 광신자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경제학 서적에서 경제학이란 반드시 어떠한 학제적 선입관적인 이미지, 즉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형성된 학문분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지식을 발견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이들은 갈피를 못 잡고, 분석을 위해 비범한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진지하게 매달리는 노력을 단념해버린다.

이러한 무지 탓에, 사람들은 모든 경제환경의 개선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 진보한 결과라고 말해버린다. 이들의 눈에, 인류의 역사는 실험적 자연과학의 점진적 발전과 이것을 과학기술적 문제에 응용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과정으로 점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불가항력적이고 인간의 운명에 고유한 것이며,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조직이 어떠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2백여 년간의 유례없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시대의 경제정책에 의해 비롯되었거나 촉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이러한 진보는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무역, 자유방임주의 및 자본주의의 업적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사회체제의 경제조직하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학설은, 단지 이러한 일반적인 대세에 영합하는 해석을 채택하고, 헤겔의 관념론과 조잡한 유물론에 만족을 느끼도록 사이비철학의 베일로 감쌌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마르크스의 도식에서는 ‘물질적 생산력’이 인간의 의지나 행동과는 독

립된 초인간적인 실체가 된다.

이 생산력은 더 높은 힘의 불가해하고 불가피한 법칙에 의해 정해진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 이것들은 불가사의하게 변화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사회조직을 이러한 변화에 적응시키도록 강요한다. 물질적 생산력은 인간의 사회조직에 속박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본질적 내용은 물질적 생산력을 사회적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교시에 따르면 옛날의 물질적 생산력은 맷돌의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다음 봉건제도라는 유형에 맞추어 인간사를 조절했다. 그 후 물질적 생산력의 진보를 결정짓는 불가해한 법칙에 의해 맷돌이 증기제분기로 대체되었을 때 봉건주의는 자본주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물질적 생산력은 더욱 발달하여, 생산력의 형태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도록 불가피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주의혁명을 막으려는 자는 희망이 없는 과업에 몸을 내맡기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역사발전의 조류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좌익정당들의 사상은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물질적 개선의 진전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으로 본다. 미국의 노동조합원들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이 오락시설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은 운명이 결정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락시설은 전 세대의 가장 부유했던 사람도 향유하지 못했고, 또한 현재도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일컫는 소위 ‘미국식 생활방식’의 출현을 위해 대규모 기업의 ‘천박한 개인주의’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경영’이란 자신들의 타고난 권리를 박탈하는데 열중하는 ‘착취자’의 부당한 권리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의 진보라는 진로에는 그들의 노동이 갖는 ‘생산력’을 끊임 없이 증가시키려는 억압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의 결과가 당연히 전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조업이 생산한 생산품의 가치를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로 나뉘었을 때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은 모두 그들의 공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의 생산성은 좀더 나은 도구와 기계의 사용에 달려 있다. 현대적인 공장에서 일하는 1백 명의 노동자들은 전 자본주의시대에 장인들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1백 명의 노동자들보다 단위시간당 2배나 더 생산한다. 이러한 진보의 조건은 노동자 개인의 더 높은 숙련도, 능력, 근면이 아니다(중세 장인들에게 필요했던 숙련도가 현재의 공장노동자 대다수에게 필요한 숙련도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생산성의 향상은 더 많은 자본축적과 투자의 결과인 효율적인 도구와 기계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주의·자본·자본가라는 용어는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선전기관조차도 모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그 운용이 지난 2백 년 동안의 모든 경이적인 업적을 산출한 주요소임을 적절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 업적이란 곧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유례없는 향상을 이룩한 점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쌓

아울린 현대산업의 여건을 전 자본주의시대의 산업여건뿐 아니라 오늘날 이른바 저개발국가에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여건과 구분짓는 것은 자본의 공급량이다. 필요한 자본이 저축으로 미리 축적되지 않았다면 어떤 과학기술의 향상도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저축, 즉 자본의 축적은 야만적인 혈거인들의 미숙한 식량구입방법을 점차 현대산업방식으로 변형시킨 힘이다. 이러한 진보를 주도한 것은 생산수단의 사유원칙에 의해 자본축적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창출한 사상이었다. 번영을 향한 길에서 발전적인 것은 모두 저축의 결과물이다. 아무리 독창적인 과학기술의 발명일지라도 이들의 활용에 필요한 자본재가 저축으로 축적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저축자들의 덕택으로 얻은 자본재를 아직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긴급한 욕구를 가장 경제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이용한다. 가공방법의 개량에 열중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기업가들은 저축자 다음으로 경제발전이라 불리는 성과의 진행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러한 세 부류에 속하는 선구자들의 활동에서 이득을 본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간에 이들은 단지 변화의 수익자이며, 그러면서도 이 변화의 출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는 진보적인 세 부류, 즉 저축하는 사람들, 자본재를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본재의 새로운 사용방법을 고심하여 창안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대부분의 발전결과를 비진보적인 다수의 대중들에게 분

배해준다는 사실이다. 인구증가를 앞지르는 자본축적은 한편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이 거둔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시장경제는 진보적인 세 부류로 하여금 최선의 방법으로 비진보적인 다수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한다.

모든 사람은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진보적인 세 부류의 대열에 자유롭게 합류할 수 있다. 이 세 부류는 폐쇄적인 그룹이 아니다. 이 세 부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높은 권위가 개인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며, 조상이 물려준 특권도 아니다. 이 부류들은 클럽이 아니며, 따라서 이미 참여한 구성원이 신참자를 못 들어오게 할 권한도 없다. 자본가와 기업가, 혹은 새로운 과학기술방법의 창안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뇌의 의지력이다. 부유한 사람의 상속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특정이익을 향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경쟁 속에서 그가 해야 하는 과제가 더 손쉬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신참자보다 더 곤혹스럽거나 수익성이 낮을 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시장의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의 상속재산을 재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수십년 동안 철도·제국의 상속자가 직면해야 했던 문제들은 트럭수송과 항공업분야에서 빈손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봉착한 문제보다 확실히 난해한 것이었다.

보통사람의 일반적인 철학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참으로 개탄할 만큼 그릇되게 받아들인다. 존 도우 John Doe가 지적한 것처럼 보통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도 몰랐던 즐거움을 베풀어주고 있는 모든 새로운 산업은 진보라는 신비한 힘이 제공한 것이다. 자본

축적, 기업가정신, 과학기술의 독창성 등은 자생적인 번영의 발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만일 존 도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생산성의 제고에 누군가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립 공정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불행히도 죄많은 이 세상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한다. 『공산당선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은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 버리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육체노동자에게는 기껏해야 ‘그의 생계와 종족번식에 필요한 것’만 큼만 남겨준다. 결국 ‘현대노동자는 산업의 진보와 더불어 부상하기보다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버린다…… 이리하여 노동자는 빈민이 되고, 빈곤상태는 인구와 부의 증가보다 더욱 급속히 진전된다.’

자본주의산업을 이렇게 묘사한 저술가들은 대학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인류의 은인으로 찬양받고, 그들의 가르침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교수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최악의 착취자는 대기업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대기업의 특징이야말로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량생산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노동자 자신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모든 물품의 주요소비자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대중에게 그 효과가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약 60년 전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는 산업의 혁신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 전에는 소수인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즉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도 나중에

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습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자동차의 대중화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규모 생산은 이러한 시간적 지연을 단축시키고 거의 없애버렸다. 현대의 기술혁신은 오직 대량생산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혁신은 실제로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미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나일론 양말, 혹은 통조림, 유아식 같은 기술혁신의 결과가 소수 부유계급의 전유물로 남지 않았다. 대기업은 사실상 일반국민들의 소비 및 생활방식을 표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장경제에서는 일부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부가 다른 누구의 빈곤의 원인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부유해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켜 가는 과정의 당연한 결과이다. 기업가, 자본가, 과학기술자들은 그들이 소비자의 필요를 가장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때 번영한다.

반자본주의전선

사회주의운동과 반자본주의시대의 간섭주의정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한창 진전될 때 사회주의와 간섭주의는 경제이론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펍 불투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가

와 개혁가들의 사상은 오로지 질투와 증오라는 가장 강력한 인간 간의 감정에 쫓긴 대다수 무지한 사람들의 찬성을 얻을 수 있었다.

자유주의강령, 즉 시장경제(자본주의)에서 완성된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의 체질상 당연한 결과인 대의정치의 실현으로 가는 길을 닦은 계몽운동의 사회철학은 군주정치, 귀족정치, 교회라는 세 가지 구세력의 절멸을 암시하지는 않았다. 유럽 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공화정치의 수립이 아니라 군주전제정치를 입헌군주정치로 대체시키는 데 있었다.

이들은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고자 했을 뿐, 그들의 작위, 가문, 그리고 소유지를 박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부여하고 반대자와 이교도들의 박해에 종지부를 찍기를 갈망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교회와 종파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그들의 정신적 목적을 추구하기를 열망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제의 3대 세력은 존속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보수주의를 끈질기게 공언한 군주, 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이 서양문명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공격에 대항할 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선구자들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하에서라면 그들이 일컫는 전체정치, 특권, 그리고 미신의 잔재들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거리낌없이 밝혔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특권집단들에서도 원한과 질시는 냉철한 이성보다 더 강렬했다. 이들은 사회주의가 자신들의 소유물을 몰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전체주의체제하에서는 아무런

종교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자들과 사실상 제휴했다. 독일의 호헨졸레른왕조Hohenzollern(1918년 혁명 이전의 독일왕조—역주)는 미국학자들이 군주사회주의monarchical socialism라 불렀던 정책에 착수했었다.¹⁾

러시아의 독재적인 로마노프왕조Romanovs는 대의정치를 수립하기 위한 ‘부르주아’의 노력에 대항하는 무기로 노동조합주의labor unionism를 가지고 희롱하기도 했다.²⁾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는 귀족들이 자본주의의 적과 사실상 협력했다. 저명한 신학자들은 자유기업체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암암리에 사회주의나 과격한 간섭주의를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현대개신교의 저명한 지도자들, 스위스의 바르트Barth와 브루너Brunner, 미국의 니버Niebuhr와 티리히Tillich, 그리고 고故 캔터베리Canterbury 주교와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은 공공연히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심지어 러시아 볼셰비키정책의 모든 무절제에 대한 책임을 터무니없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주장하였다.

윌리엄 하쿠르트경이 60여 년 전에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가 옳은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 정당, 교사와 저술가들, 호전적인 반유신론자들뿐 아니라 기독교도들까지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시장경제를 열렬히 거부하는가 하면 국가의 전능이 가져다준다고 터무니없이 주장되는 이익을 찬양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적 관념에 흠뻑 빠진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친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여론이라는 미명 아

1) Elmer Roberts, *Monarchical Socialism in Germany*, New York, 1913.

2) Mania Gordon, *Workers Before and After Lenin*, New York, 1941, pp.30ff.

래 거의 예외없이 많은 사람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정당에 가입 하도록 유도하는 작태를 드러냈다. 국내정치를 다룰 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격한 정치강령, 즉 계획·사회주의·공산주의에 찬성하는 반면, 부자들만이 시장경제의 보존을 위해 투표할 이유가 있다고 당연시한다.

이러한 역설은 대중의 경제적 이익은 ‘착취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한 자본주의의 운용으로 손상되며, 사회주의가 보통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기본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자신들의 생활상을 개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에 편파적인 체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본주의를 증오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자신들을 해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질시와 무지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완강하게 경제학의 연구를 거부하고 경제학자들의 사회주의적 계획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일축하는 이유는 경제학이 추상적 이론이어서 그들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경험만을 믿는 체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들, 즉 자본주의하의 미국 보통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사회주의의 낙원이라는 소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경제학으로 낙후된 사람들의 상황을 다룰 때도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그릇된 추리를 한다. 이들은 낙후한 나라들의 국민이 매

우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에 동조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 이 목적의 달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사회의 경제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싸한 반자본주의적 관념에 현혹되어 공산주의에 대해 호의를 갖는다. 이러한 동양의 지도자들이 서양국가들의 번영에 동경의 눈초리를 던지면서도 서양을 번영하게 만든 방법을 거부하고,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위성국들을 빈곤상태에 묶어두는 데 한몫 하는 러시아 공산주의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보다 더욱 우스운 것은 자본주의적 대기업의 산물들을 향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소련의 체제를 찬양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국들이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경제학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이상의 문제들에 관해 경제학이 시사해주는 모든 것에 완전히 정통하지도 못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대결에 관해 공공연히 논의하고 저술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수다쟁이라는 사실이다.

제3장

자본주의하의 문학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분사회의 엄격성이 모든 사람에게 관례에 따라 획일적으로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전통적인 행동양식에서의 어떠한 이탈도 용인하지 않는 반면, 자본주의는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고무한다. 관습적인 절차의 형식에서 성공적으로 이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이익이며, 진부한 방법에 나태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손실이다. 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에서 도출되는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것은 결정권이 있는 소비자들 각 개인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에서 보상받는 것은 업적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고객들이 좋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구매대중이 우둔한 나머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그 생산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든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소비한 셈이 되어버린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대량생산체제이다. 자본주의는 보통사람에게도 풍요를 베풀어준다. 옛날엔 도저히 불가능했던 차원까지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몇 세대 전에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누렸던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두드러진 예는 모든 종류의 문학을 위한 광대한 시장의 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상품이다. 사람들은 신문, 잡지, 서적을 읽고 방송을 듣고 극장을 찾는다.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저술가, 연출가, 배우들은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인다.

사회분업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직업분화는 문학가라는 부류, 즉 저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낳았다. 이러한 저술가들은 여타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서비스나 생산물을 팔듯이 자신들의 서비스와 노력의 산물을 시장에서 판다. 그들은 저술가로서 그들 나름의 능력을 갖추고 시장사회라는 협동체와 견고하게 통합되어 있다.

전 자본주의시대에서의 저술은 수지가 안 맞는 기예였다. 대장장이나 구두수선공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저술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저술이란 수양이나 취미였지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 왕, 대공이나 정치가, 귀족들과 여타 별도의 생활수단을 가진 신사들이 추구하는 고상한 취미였다. 그것은 주교의 사제, 교수와 장군들이 여가를 틈타 하는 일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저술을 하는 가난한 사람은 우선 저술업 이외의 다른 수입원을 확보해야 했다. 스피노자는 렌즈 가는 일을 하였으며, 밀즈 Mills 부자는 동인도회사 The East India Company의 런던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저술가들은 예술과 학문을 좋아하는 부유한 친구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왕들과 영주들은 앞을 다투어 시인과 작가들을 후원했다. 궁정은 문학의 보호처였다.

이러한 후원제도가 저술가들에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부여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후원자들은 그들의 피보호자들에게 자신들의 철학, 취향이나 논리의 기준을 감히 강요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교회당국에 대항하여 열성적으로 이들을 감쌌다. 적어도 어떤 저술가가 하나, 혹은 몇 개의 궁정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는 반대입장의 궁정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신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전제군주의 은총에 매달려 있는 철학자, 역사가, 시인들의 모습은 교훈적이지 못했다.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은 문학작품들을 위한 시장의 등장이 왕이나 귀족들의 후견으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킨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찬양했다. 그 후로 이들은 지식계급의 견해가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놀라운 예상인가 이것은 새로운 개화기가 밝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서점가에서의 성공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몇 가지 착오가 있었다.

저술은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의견의 불일치가 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듣기 원하는 것만을 되풀이할 뿐인 저술가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못된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혁신자, 반대자, 미개척 분야의 선구자, 즉 전통적인 기준들을 거부하고 낡은 가치와 관념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반독재·반정부적이며, 대중들이 책을 사주지 않는 저술가이다.

마르크스와 니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사후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인세 말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다면 아마 아사했을 것이다. 반체제주의자와 혁신자는 일반시장에서 그들의 책판매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서점가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중취향의 소설가들이다. 그러나 일반구매자들이 언제나 양질의 책보다 저질의 책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판별력이 부족한 탓으로 어떤 때는 저질의 책도 곧잘 사들인다. 오늘날 발간되고 있는 소설과 희곡들은 대부분이 시시한 작품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수많은 책들이 썩어지고 있는데도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만일 발간된 1천 가지 책 가운데 한 가지라도 과거의 위대한 저작과 필적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우리의 시대는 언젠가는 문학이 꽃핀 시대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들이 일컫는 문학의 쇠퇴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한다. 아마도 이들은 밑을 체질하여 껍질을 가려내는 식의 자신의 몽매함을 탓하는 게 나올 것이다. 이들이 약 2백 년 전 그들의 선배들보다 예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예컨대 오늘날 모든 비평가들은 스탕달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1942년 스탕달이 사망했을 때, 그는 미미한 존재였으며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자본주의는 대중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책과 잡지들을 사보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대중들에게 마에

케나스Maecenas나 칸 그란데 델라 스칼라Can Grande della Scala와 같은 문학예술 애호가의 통찰력을 붙여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탁월한 책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과오가 아니다.

탐정소설의 인기

과격한 반자본주의운동이 외견상 큰 힘을 얻은 시대에 탐정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장르가 생겨났다. 선거결과 노동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었던 당시의 영국인들은 에드거 월라스Edgar Wallace와 같은 저술가들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두드러지게 활동한 영국의 사회주의 저술가 중 한 사람인 코올G. D. H. Cole은 탐정소설 작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는 탐정소설을 할리우드 영화, 코미디, 스트립쇼, ‘예술’과 함께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화 시대의 예술적 상부구조라 부를 것이다.

많은 역사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낯선 장르의 인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에이델로트W. O. Aydelotte 교수의 연구이다. 에이델로트 교수는 탐정소설의 역사적 가치는 이것들이 공상의 세계를 묘사하여 읽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옳은 견해였다. 그는 독자가 탐정소설의 주인공인 탐정과 자신을 동

일시함으로써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탐정을 자아ego의 연장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견해도 역시 옳았다.¹⁾

탐정소설 독자란 그의 야망에 쫓겨 목표로 했던 지위를 달성하지 못한 좌절된 사람이라고 하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자본주의체제의 불공평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를 달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실패한 것은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며 반대로 성공한 경쟁자들은 그들의 부정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양심적이고 때문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치사한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오만한 벼락부자가 얼마나 부정직한가를 알기만 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히도 그들의 범죄는 숨겨진 채 분수에 넘치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 자신이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비행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탐정소설에서 전형적인 사건의 전개과정은 이렇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악한 행위는 할 수 없으리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날카로운 탐정을 속여넘길 수는 없다. 그는 경건한 체하는 위선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한 온갖 증거를 수집한다. 결국 올바른 것은 승리한다.

존경할 만한 시민으로 행세하는 악한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부르주아적 경향을 띠는, 수준 높은 문학의 차원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테마였다. 그 일례가 입센Ibsen의

1) William O. Aydelotte, *The Detective Story as a Historical Source*(The Yale Review, 1949, XXXIX, pp.76~95).

『사회의 지주*The Pillars of Society*』이다.

탐정소설은 작품 줄거리의 질을 저하시켜 모든 사람들이 결합 없는 시민으로 여겨졌던 사람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며, 혼자 잘난 체하는 탐정이라는 값싼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탐정의 목적은 성공을 거둔 ‘부르주아’에 대한 잠재의식적인 증오이다. 그의 상대역은 정부의 경찰간부들이다. 그들은 너무 둔하고 선입관에 사로잡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

때로 작가는 범인의 사회적 지위가 경찰간부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져 있기 때문에 범인에게 유리한 편견을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기도 한다. 그 탐정은 경찰간부들의 나태함으로 초래된 장애를 극복한다. 이 탐정의 승리는 그러한 경찰간부들을 임명한 부르주아국가 당국의 패배를 의미한다.

탐정소설이 야망의 좌절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물론 그렇지 않은 독자들도 있다). 이들은 성공한 경쟁자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밤낮으로 꿈꾼다. 경쟁자가 손목에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는 순간을 꿈꾼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자신들을 탐정과 동일시하고 함정에 빠진 살인자와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은 경쟁자를 동일시하는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대리만족을 얻는다.²⁾

2)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극히 최근 미국의 출판계에 나타난 이른바 폭로잡지들이 발행부수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잡지들은 성공한 사람들, 특히 백만장자나 영화계 명사들의 숨겨진 악덕, 비행을 폭로하는 데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1955년 7월 11일자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이들 잡지 가운데 1955년 9월의 매상을 추정한 부수가 380만 부나 되었다. 보통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의 죄악을, 그것이 진실이든 터무니없는 것이든, 폭로하기를 즐긴다는 것은 명백하다.

출판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자유시민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고전적인 자유주의 정치강령의 본질적 주안점이다. 이제까지 존 밀턴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164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1859) 등 두 고전적 저서의 논거에 대해 조리 있는 반론을 제기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로운 출판이야말로 문학이 갖는 생명의 근원이다.

자유로운 출판은 그에 대한 사적인 통제가 가능한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모든 출판시설과 인쇄소가 정부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판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오직 정부만이 저술할 사람과 기회, 그리고 무엇이 출판·발행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현재 소련이 처해 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제정 러시아가 출판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인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나치스가 그들의 악명 높은 ‘금서book auto-da-fés 탄압’을 자행한 것은 위대한 사회주의 저술가인 카베Cabet의 착상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³⁾

모든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저술가들의 자유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부나 강력한 압력단체의 비위를 거슬리는 내용의 책이나 기사를 발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출판에 대한 탄압은 소련에서처럼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책이 이단자에 대한 종교재판소의 처벌처럼 불태워지지 않는다는. 구시대의 검열제도가 부활된 것도 아니다. 그

3) Cabet, *Voyage en Icarie*, Paris, 1848, p.127.

러나 독선적인 진보론자들은 그들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 그들의 으뜸가는 탄압수단은 저술가, 편집자, 발행인, 서적상, 인쇄업자, 그리고 독자들까지 제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책이나 잡지, 그리고 신문 등의 구독을 거부할 자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책, 잡지, 신문 등을 보지 말라고 권고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발행물과 그 발행인에 대한 후원을 그만두지 않으면 심각한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할 때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많은 나라에서 신문과 잡지의 발행인들은 노동조합측의 배척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이 문제의 공개적인 논의를 피하면서 암묵리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지시에 굴복한다.⁴⁾

이 ‘노동계급’의 지도자들은 과거 제왕이나 왕족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렵다. 이들은 조롱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의 까다로운 성미는 풍자문학, 코미디, 정극극장의 뮤지컬 코미디의 질을 저하시켰고 영화를 지극히 단조롭게 만들어버렸다. 구체제ancien régime하에서 극장들은 자유롭게 보마르세Beaumarchais의 귀족을 조롱하는 작품이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불후의 명작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었다.

제2 프랑스제국하에서 오펜바흐Offenbach와 알레비Halévy의 ‘제롤슈타인 공작부인Grandduchess of Gerolstein’은 절대주의·군국주의·궁정생활 등을 비꼬았다. 나폴레옹 3세 자신은 물론 일부 다른

유럽군주들도 그들 자신을 조롱한 연극을 즐겼다. 빅토리아왕조 시대에 영국의 연극검열관이었던 챔벌린경은 영국 통치체제의 모든 신성한 제도를 조롱했던 길버트Gilbert와 설리반Sullivan의 뮤지컬 코미디 공연을 막지 않았다. 귀족원 의원들이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무대에서는 몬타라라트Montararat 백작이 “귀족원은 지적인 탁월성을 가장하지 않았다”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시대의 무대 위에서 당국자를 풍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소비조합, 국영기업체, 예산적자, 복지국가의 여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무례하게 비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관료들은 신성불가침이다. 코미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오페라와 할리우드의 소극笑劇을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잡스러운 이야기거리뿐이다.

지식계급의 완고성

현대 이데올로기를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은 보편화되고 있는 여론형성자들의 완고성, 그리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리는 술책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십상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간섭주의자와 이들 파당 등의 분파 및 파벌들은 서로 싸우는 데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는 탓으로 그들간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문제에 관한 기본적 정론으로부터 관심이

4)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수립된 보이코트제에 관하여서는 P. Blanshard, *American Freedom and Catholic Power*, Boston, 1949, pp.194~198 참조.

다른 곳으로 쫓리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론에 이의를 제기할 용기가 있는 몇 안되는 독자적인 사상가들은 사실상 법률적인 보호 밖에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견해는 독서계에 확산될 수가 없다. 거대한 '진보적' 선전 및 교화기구는 그것의 금지를 강행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왔다. 독불장군식의 '비정통' 학파들의 용납될 수 없는 통설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비정통적' 독단론은 자기모순적이며,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다양한 견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혼합물이다. 이 독단론은 최악의 절충주의이며, 오래전에 논파된 오류와 그릇된 사고로부터 빌어온 추단들의 왜곡된 수집물들이다. 그것은 '공상적utopia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하고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한 많은 사회주의 저술가들, 독일 역사학과German Historical School, 페이비언주의자Fabians, 미국의 제도중주의자, 프랑스의 노동조합 지상주의자Syndicalists, 그리고 기술관료들로부터 나온 단편적 사상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고드윈Godwin, 칼라일Carlyle, 러스킨Ruskin, 비스마르크Bismarck, 소렐Sorel, 베블렌Veblen, 그리고 이들보다 덜 알려진 일군의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 정설에 따르면 빈곤은 사악한 사회제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에덴동산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박탈한 원죄는 사유재산과 사기업제도였으며, 자본주의는 오직 난폭한 착취자들의 자기본위의 이익에만 공헌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올바른 대중들을 점진적으로 빈곤과 타락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신이 탐욕적인 착취자들을 길들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윤'의 동기가 '봉사'의 동기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또한 다행히도 이들 악랄한 '구두쇠들economic royalists'의 음모와 잔인성은 결코 개혁운동을 억누를 수 없다고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시대의 도래는 불가피하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변혁을 촉진하는 데 열성적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진보론자라고 부른다. 바로 그들 자신이 바람직하고 냉혹한 역사진보의 법칙들에 따라 그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자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컫는 진보를 저지하기 위한 헛된 노력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반동분자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정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른바 고통을 겪는 대중들의 운명을 즉각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을 옹호한다. 이들은 예컨대 신용의 확대, 통화량의 증가, 최저임금제 등이 정부나 노동조합의 압력과 강제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품가격과 임차료의 통제, 여타 간섭주의적 조치들도 권고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대책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달성코자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 대책들의 결과는, 이것들을 권고하고 그 집행을 주장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신용의 확대는 경제적 위기와 침체의 재현에서 초래된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치솟게 만든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률을 강행하려는 시도들은 수년을 끌 장기간의 대량실

업을 낳는다.

최고가가격제는 해당상품의 공급부족을 초래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리들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미 증명했다. ‘진보적’인 사이비 경제학자치고 이 정리들을 반박하려고 시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진보론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제기한 주된 비난은 위기와 침체, 그리고 대량실업의 재현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이러한 재현상이 자본주의를 규제하고 일반사람들의 조건들을 향상시키려는 간섭주의적 시도들의 결과라는 논증은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간섭주의자들은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조리있는 반박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므로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논리들을 대중, 특히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감추려고 애쓴다. 이들은 자신들과 맞서는 반대론들에 대한 언급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이 반대론의 저술가들을 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친 헛소리’를 읽지 못하게 한다.

진보적 독단론자의 견해에 의하면, ‘국민소득’ 가운데 얼마를 자기자신들이 차지해야 하는가에 관해 싸우는 두 개의 인간집단이 있다. 진보론자들이 흔히 ‘경영진’이라고 말하는 기업가와 자본가 등 유산계급은 ‘노동계급’, 즉 임금노동자와 피고용인들에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밖에는 남겨줄 용의가 없다. 쉽게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노동계급은 경영진으로부터 모든 것을 몰수하고자 하는 급진론자나 공산주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이 과도한 급진주의에 빠져들 정도

로 어리석지는 않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며 ‘불로’소득을 전부 몰수하지 않아도 만족할 용의가 있다. 이들은 중도적인 해결책으로서 계획경영·복지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두 대립진영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식인들은 중재자로서 행동해줄기를 요청받는다.

이들 교수, 학계의 대표, 작가, 문필업계의 대표들은 두 진영의 과격론자들, 즉 자본주의편을 드는 자뿐 아니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온건주의자들편에 가담할 것임에 틀림없다. 즉 이들은 계획경제·복지국가·사회주의편에서서 경영진들의 탐욕을 억제하고 그들이 경제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된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오류와 모순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다. 세 가지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첫째, 우리시대의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국민소득’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분배 가능한 총량 중에서 최대로 가능한 양을 차지하기 위해 힘쓰는 두 계급간의 다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경제조직체로 가장 적절한 체제의 선택을 둘러싼 의견의 충돌일 뿐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두 체제 가운데 어느 것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노력에 대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가이다. 또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합리적인 생산활동의 영위, 즉 경제적 계산에 기초한 행위가 사회주의적 여건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완고성과 독단적인 태도는 그들이 이러한 문

제들의 고찰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모든 악덕 중에서 최고의 악인 데 반해 사회주의야말로 모든 선의 화신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문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두 대역죄(lese majesté)로 여겨진다. 서방제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여건은 소련식으로 그러한 비위를 거슬리는 자들의 제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을 욕하고 비방하며, 이들의 의도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고 배척하는 것이다.⁵⁾

둘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경제적인 차이점이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둘다 똑같은 체제의 사회경제 조직, 즉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의 사적 통제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생산수단의 공적 통제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 두 용어는 동의어인 것이다. 모든 마르크스주의자가 자신들의 교리를 세울 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문서가 『공산당 선언』이다. 또한 소련 공산제국의 공식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이다.⁶⁾

오늘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당간의 반목은 그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을 굴복시키려는 소련 독재자들의 태

5) 이 부분의 마지막 두 문장은 우리시대의 사회주의 저술가 중 3,4명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참으로 너무 낮은 데다가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를 고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사상의 발생 초기부터 우리시대에 내려오기까지의 여타 모든 사회주의자들에 비해 성실한 편이다.

6)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럴싸하게 구별하려던 스탈린의 시도에 관해서는 Mises, *Planned Chaos*, Irvington-on-Hudson, 1947, pp.44~46(신판, *Socialism*, Yale University Press, 1951, pp.552~553) 참조.

도와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생산수단의 공적 통제의 실현이 합법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집권정부의 폭력적인 전복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경제학자, 정치가, 정당간부, 그리고 여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획’과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종목표와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이란 시민들 개개인의 계획이 정부의 계획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착상에 따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박탈당해야 하며 무조건 중앙계획관서에서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기업가와 자본가에서 정부로 통제수단이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계획, 복지국가 등을 공산주의와는 다른 사회경제체제의 제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리 전제적이지 않고’ ‘그리 과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사회주의와 경제계획은 공산주의의 결점을 없애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회주의자는 자기나라의 비밀문서를 소련의 기관원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 그리고 반공부르주아들의 암살을 음모하지 않는 한 공산주의자보다 더 온건하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대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정치행위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셋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뚜렷이 다른 두 가지 사회체제의 유형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통제와 공적 통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지 단순한 반대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체제인 혼합경제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중도적인 해결책으로 잘못 믿어지고 있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절충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진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제3의 유형을 권고한다.

경제학자들이 간섭주의라고 부르는 이 제3의 체제는 그 주장자들이 주장하듯 자본주의의 일부 특징과 사회주의의 일부 특징을 조화시킨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간섭주의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제목적용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단언한 경제학자들은 간섭주의 옹호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비타협적이거나 극단론자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간섭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간섭주의적 방법을 주장했을 때, 이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절충을 권고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들은 우연하게도 오늘날 뉴딜정책(신경제정책 : 루즈벨트 미 대통령이 1930년에 제창한 경제부흥과 사회보장의 증진정책—역주)이나 페어딜정책(Fair Deal policies(공산정책 : 트루먼 미 대통령이 1949년에 제창한 대내 정책—역주)의 원칙과 일치하는 이 방법들을 완전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1차적인 단계로 생각했을 뿐이다. 그들 자신도 이 방법들은 경제적으로 불충분하며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기술했으며, 그들이 이런 방법을 요구한 것은 단지 이 방법들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의 과정 속에서 낡은 사회질서를 좀더 변혁시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생산양식의 완전한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써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진보적인 사회 및 경제학자들은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소설과 희곡

사회주의사상에 사로잡힌 대중들은 사회주의(‘사회’에 관한) 소설과 희곡을 요구한다. 또 같은 사상에 물든 작가들도 이같은 작품들을 언제든지 기꺼이 저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던지시 비치듯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묘사한다. 이들은 피착취계급의 빈곤과 궁핍, 무지, 불결함과 질병 등을 묘사한다. 이들은 또 착취계급의 사치, 우둔, 부도덕과 부패를 매도한다. 이들의 눈에 사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모두 부르주아적이요, 선하고 고상한 것은 모두 프롤레타리아적이다.

빈곤에 찌든 사람들의 생활을 다루는 작가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류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고 ‘부르주아적’ 환경, 아니면 부유한 봉급소득자나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로 이들의 희곡과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에 설정되는 환경은 자신들과는 낯선 것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작품을 쓰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고자 하는 하층사회의 생활을 조사해야 한다.

이들은 조사에 착수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편파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연구주제에 접근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도 미리 알고 있다. 이들은 임금생활자들의 처지가 형편없는 데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참하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의 선입견과 일치되는 것만을 본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에게서 자본주의는 대중들을 지독하게 고

생시키는 체제이며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여 완숙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다수의 대중들이 빈곤해진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들의 소설과 희곡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작가들이 옳지 못하다는 근거는 이들이 비참하고 궁핍한 모습을 묘사하고자 한다는 데 있지 않다. 예술가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자신의 숙달된 역량을 과시할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오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실상을 거짓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묘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자본주의의 부재의 결과이고 전 자본주의적 과거의 잔재이며, 자본주의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대중의 소비를 위한 대규모 생산성을 통해 본질적으로 궁핍상태를 최대한으로 해소하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임금생활자를 단지 공장 직공으로서만 묘사할 뿐, 임금생활자도 제조상품 그 자체, 그리고 제조상품들과 교환되는 식료품 및 원료의 주요소비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

비참하고 궁핍한 것을 다루려는 이들 작가의 편파성은 자신들이 그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실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작품을 왜곡시키고 있다. 대규모 생산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통계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명백히 보여 주듯이 전형적인 임금생활자가 비참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적’ 문학과의 두드러진 인물은 에밀 졸라Emile Zola였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모자라는 많은 모방자들만이 채택한 문

학유형을 정립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문학은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학은 연구에 기초해야 하며 과학의 연구결과를 예증해야 한다.

졸라가 본 견해로는 사회과학의 주된 성과는 자본주의가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이며 사회주의의 도래는 불가피하고, 또한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교의였다. 그의 소설은 모두 ‘사실상 사회주의 설교’의 한 표상이었다.⁷⁾ 졸라는 친사회주의적 편견과 열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곧 자신을 모방하는 자들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프롤레타리아’ 문학비평가들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다루는 것은 단지 프롤레타리아의 순수한 경험적 사실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이들 작가들은 단지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 사실들을 마르크스, 베블렌Veblen, 그리고 웹스Webbs 등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 해석이야말로 이들 저작들에게 요청되고 있으며, 이 저작들이 친사회주의적 선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주요원인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설명이 스스로 자명하며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독자들도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교의에 대해 명쾌하게 언급하는 일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때때로 그 교의에 대해 함축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7) P. Martino in the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XV, p.537.

8) J. Freeman, *Introduction to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 United States, an Anthology*, New York, 1935, pp.9~28.

그러나 자신들의 책에서 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회주의의 교의와 사이비 경제학적 해석(pseudoeconomic constructions)의 타당성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의 소설은 반자본주의적 공론가들의 교훈을 예증하는 것으로 이 공론가들과 더불어 힘을 상실하고 만다.

‘프롤레타리아’ 소설가의 두번째 부류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적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육체노동자들의 환경에서 벗어나 전문직업인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임금생활자의 실상을 배우기 위해 특별한 조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 ‘부르주아적’ 배경을 가진 프롤레타리아 작가와 같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작품을 쓸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이들에게 사회주의강령의 본질적 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들을 가르쳐준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재능있고 근면하면 더 만족스러운 지위로 진출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예증하고 있다.

이들은 형제와 동료들은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자신들은 성공한 이유를 알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나은 지위로 발전하기 위해 애쓰는 다른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들은 젊은이 중의 일부가 자기의 길을 제대로 찾은 반면 다른 젊은이들은 길을 잃고 만 이유를 알고 있다. 이제 이들은 ‘부르주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한다. 즉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덜 버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전

자가 악당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만일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다수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출발했으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했을 것이다. 소득의 차이는 사회주의자가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

만약 이들 작가들이 저술활동을 하면서 친사회주의자들의 교의를 작품화하는 데 몰두한다면 그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들의 소설과 희곡들은 거짓투성이며, 따라서 허튼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은 적어도 자신이 저술하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출신 동료들의 작품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만다.

사회주의 작가들은 자본주의 희생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수혜자인 기업인들의 생활과 행실도 다룬다. 이들은 이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독자들에게 폭로하는 데 열중한다. 참으로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역사가들의 책에서 지식을 구한다. 즉 그들은 전문가들로부터 ‘금융계의 악한’과 ‘강도귀족’들, 그리고 부를 획득한 방법에 대해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

“그의 직업은 농민들의 소를 사서 시장으로 끌고 가 파는 소몰이로 시작되었다. 소는 무게를 달아 푸줏간에 팔았다. 소가 시장에 이르기 직전 그는 소에게 소금을 먹인 다음 엄청난 양의 물을 먹였다. 물 1갤런의 무게는 8파운드이다. 34갤런의 물을 소

에게 퍼떡여보라. 그러면 소를 팔 때 가외의 돈이 생긴다.”⁹⁾

이러한 식으로 수많은 소설과 희곡들이 책략으로 가득찬 악한, 즉 기업인의 거래행위를 이야기한다. 실업계의 거물들은 부스려진 철강과 부패한 식품판지로 뒷굽을 댄 구두와 실크 대신 무명 제품 등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상원의원과 지사, 판사와 경찰을 뇌물로 매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객과 노동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 작가들은 이들이 모두 악한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모든 미국인들을 손쉽게 속아 넘어가는 얼간이로 암묵리에 묘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위에 말한 소의 무게를 불리는 속임수는 지극히 원시적이고 낡아빠진 수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수법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도축업자가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에 이러한 방법으로 속아 넘어갈 푸줏간이 있다고 억측하는 것은 독자들의 우직함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꾸민 이야기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진보적’ 작가가 묘사하는 대로라면 실업가는 사생활에서도 야만인이고 도박꾼이며 술주정뱅이이다. 낮에는 경마장에서,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밤에는 정부와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부르주아들’은 일반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산계급의 아내와 딸들을 차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들 상호간에 아내를 유혹하여 정조를 유린하기를 즐기는

9) W. E. Woodward, *A New American History*, New York, 1958, p.608에서 신학교에 재산을 기증한 어느 실업가의 전기에 대한 설명 참조.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미국문학에 비쳐진 미국실업계의 모습이다.¹⁰⁾

10) 존 챔벌린 John Chamberlain의 뛰어난 분석 “The Businessman in Fiction”, *Fortune*, 1948년 11월호, pp.134~148 참조.

제4장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외적 비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난을 퍼붓는다. 첫째는 자동차나 텔레비전 수상기, 그리고 냉장고를 소유한다고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전기제품이나 기구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옳긴 하지만 이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사회적 협동성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 애써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능한 많이 떨쳐버림으로써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는 사람은 이 물품의 소유로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며, 이 물품이 없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물건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의 임무는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없애주고 보다 나은 건강상태로 모든 요인에 대해 투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교의 탁발승 가운데는 더러움과 빈곤 속에서 보시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고 어떤 갑부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생활의 외적인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충동이 엷히고 설켜 있다. 아시아의 거지를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 가운데 하나는 유아사망률의 저하이다. 이 현상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부정할 것인가?

자본주의에 퍼부어지는 두번째 비난, 즉 과학기술 및 치료법의 혁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는 비난 또한 불합리한 것이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의 변화는 가장 총명하고 가장 정열적인 사람들의 개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을 점차적으로 따른다.

혁신의 산물이 점차적으로 다수인의 손에 미치기까지는 단지 소수 사람들의 사치품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구두와 포크 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해서 이것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분별있는 것이 못된다.

비누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세련된 신사숙녀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도록 비누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선구자들이다. 만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일부사람들 때문에 구매를 그만둔다면, 그들은 이 전기제품의 대중화를 촉진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셈이 된다.1)

1) 새로운 개량의 출현과 그것의 이용이 일반화되기까지의 간격을 단축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또다른 사람들은 천박한 물질주의를 들어 자본주의를 비난한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자본주의는 육체는 먹여살리지만 영혼과 정신은 말려죽인다, 자본주의는 예술의 쇠퇴도 초래했다, 위대한 시인·화가·조각가·건축가들의 시대는 갔다, 우리시대는 단지 허접쓰레기만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예술작품의 진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을 찬양한다. 도시나 건축물의 미적 가치를 재는 척도는 있을 수 없다. 샤르트르Chartres의 대성당과 벨라스케즈Velasquez의 메니나스Meninas를 즐기는 사람들이 경이적인 작품에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촌뜨기로 생각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햄릿』을 읽도록 강요하면 진절머리를 낸다. 오직 번뜩이는 예술적 심성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교양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위선에 사로잡히는 일이 많다. 이들은 감식안鑑識眼이 있는 척하기도 하고 과거의 예술이나 오래전에 사망한 예술가들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이들은 인정받기 위해 더욱 분투하고 있는 동시대의 예술가에게는 별다른 감흥도 나타내지 않는다. 과거의 대가들에 대한 가장된 숭배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규범을 창조

하는 신인들을 알보고 조롱하기 위한 수단이다.

존 러스킨John Ruskin(영국의 미술비평가, 사상가, 1818~1900—역주)은 칼라일Carlyle, 웹스, 버나드 쇼Bernard Shaw와 몇몇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영국의 자유, 문명, 그리고 번영의 무덤을 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공적인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생활에서도 추악한 인물로서, 전쟁과 유혈을 찬양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학 이론을 광적으로 비방했다. 시장경제의 편협한 비방자였으며 중세 길드의 낭만적 찬미자였다. 전 세기의 예술에는 경의를 표했지만, 생존하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 위슬러Whistler의 작품을 대하면 어찌나 야비하게 헐뜯었던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자본주의가 좋지 않은 경제체제라는 점은 별문제로 치고 아름다움을 추한 것으로, 위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예술을 허접쓰레기로 대치시켜 버렸다는 편견을 대중화시킨 것이 바로 러스킨의 저작들이었다.

예술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갈라지듯이 논리적 추론이나 경험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를 반박하는 것과 똑같은 명명백백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시대 예술의 열등성에 대한 주장을 논파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자본주의시대의 예술이 이룩한 공적의 위대함을 알볼 정도로 오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천박한 물질주의와 돈벌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시대의 걸출한 예술은 음악이었다. 바그너와 베르디, 베를리오즈와 비제, 브람스와 브루크너, 위고울프와 말러, 푸치니와 리처드 스트라우스, 이 얼마나 찬란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인가! 슈만과 도니체티

같은 거장들이 훨씬 뛰어난 천재의 그림자로 가리워진 위대한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 시대의 발자크, 플로베르, 모파상, 장 야콥슨, 프루스트의 소설과 빅토르 위고, 윌트 휘트먼, 릴케, 예이츠의 시가 있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거인들, 그리고 이들에 못지않은 탁월한 저술가들의 작품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빛과 색채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프랑스의 화가와 조각가들이었다.

자본주의시대가 모든 분야의 과학적 활동을 고무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것은 ‘통합체제synthesis’가 없었을 때, 주로 전문가들이 한 일이라고 말한다. 현대수학,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의 가르침을 이 이상 우스꽝스럽게 오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크로체, 베르그송, 훗설, 화이트헤드와 같은 철학자들의 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각 시대의 예술의 공적은 그 시대마다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걸작을 모방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과정일 뿐이다. 어떤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대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찬미자들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피라미드, 그리스의 신전, 고딕식 대성당과 교회, 르네상스시대의 궁전과 바로크Baroque음악(1600~

1750년대의 유럽음악. 근대음악의 사실상의 기초를 닦았음.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협주곡 등이 여기서 발전함—역주) 같은 기념비적 유물을 남겨주지 않았다.

지난 1백여 년 동안 많은 교회와 심지어 대성당이 건축되고 그보다 많은 호화로운 관청, 학교, 도서관 등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혀 독창적이지 않다. 즉 과거의 양식을 반영한 것이거나, 몇 가지 양식을 혼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관청, 그리고 개인주택 등에서 우리시대의 건축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아왔을 뿐이다.

뉴욕의 고층건물이 그려내는 스카이라인과 같은 경관의 장려함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것은 한낱 학자연하는 태도에 불과하겠지만, 현대의 건축술이 과거 여러 세기의 건축술이 보여주는 탁월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종교적인 건물들에 관한 한 눈에 띄게 두드러진 교회의 보수적 경향은 어떠한 혁신도 기피한다. 왕조와 귀족사회의 소멸과 더불어 새 궁전을 지으려는 충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반자본주의적 정치선동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꾸며대든,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부는 왕이나 영주들의 부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것처럼 호화로운 건물을 짓는 데 빠져들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베르사이유 궁전이나 에스코리얼Escorial(스페인왕들의 궁전과 무덤, 교회, 남녀수도원 등을 갖춘 마드리드 근처 중부 스페인에 있는 거대한 건물—역주)과 같은 궁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정부건물의 건축명령은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 자신이 존중했던 대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둔한

대다수 사람들을 분개시킨 공사를 후원할 수 있었던 전제군주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위원회와 협의회 등은 대담한 선구자들의 착상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안전한 쪽에 서기를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당대의 예술을 공정하게 평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까지 전혀 없었다. 위대한 작가와 예술가들에 대한 존경은 언제나 소수의 집단에 한정되어 왔다. 자본주의를 특징지우는 것은 대중들의 저급한 취향이 아니라 이 대중들이 자본주의 덕분에 행복해졌으면서 문학(물론 시시한 문학)의 ‘소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적시장은 이들 반미개인들을 위한 하찮은 소설로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작가들이 불멸의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평가들은 이른바 산업예술의 쇠퇴를 한탄한다. 이들은 예컨대 유럽 귀족가문의 성과 박물관의 수집물에 들어 있는 고대 가구를 대규모 생산으로 만들어진 값싼 물건과 대비시킨다. 이들은 이러한 수집가들의 품목이 전적으로 부유계급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조각된 장농이나 상감세공 테이블은 빈민계층의 비참한 오두막집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미국 임금생활자의 값싼 가구에 대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가구라곤 아무것도 없는 멕시코 품팔이 노동자들의 주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산업이 대중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일상용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주된 관심은 미적 가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될수록 값싸게 생산하는 일이었다.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대중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그들은 차츰차츰 세련됨과 아름다움을 갖춘 물건들을 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터무니없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비평가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의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추악하다고 간단히 처리해버릴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공평

자본주의를 가장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자본주의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당위와 현실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의 곱힐 수 없는 법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심심풀이에 불과하다. 그러한 환상은 백일몽으로 남아 있는 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을 가진 저술가들이 환상과 현실간의 차이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이들은 생활과 행복의 외면적인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모든 망상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관념이다. 이 교의에 따르면 자연은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관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동류의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제각기 자신에게 할당된 전부를 차지해야 한다고 요구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성스러운 공평이라는 영원한 법칙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빈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오직 불공평한 사람들이 그들의 타고난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착취를 방지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나 세속의 당국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런 교의는 모두 허위이다. 자연은 관대하지 않고 인색하다. 자연은 인간생활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모든 것의 공급을 제약해왔다. 자연은 인간의 생활과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춘 동식물도 이 세상에 살게 했다. 또한 자연력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인간의 생활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행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업적이며, 인간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주요한 도구, 즉 이성을 선용해온 것이다. 인간은 분업체제하에서 협동하면서 공상가들이 자연이 거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를 창출해왔다.

이 부의 ‘분배’문제에 관하여 신성한 자연의 정의의 원리를 운운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기본적 재산 중에서 각각 차지할 몫의 할당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의 생산을 계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전기독교회기구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1948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정의는 예컨대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민들이 더 많은 기계생산의 혜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²⁾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정한 양의 기계를 선물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국가간에 균등하게 분배되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뜻할 때에만 이치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들은 사악하게도 이 재산 가운데 ‘공평’에 따라 배당되었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민들로부터 이들의 정정당한 몫을 빼앗아버렸다는 것이다. 얼마나 당치도 않은 이야기인가!

그러나 유럽사람들의 비교적 많은 부의 근원인 자본의 축적과 기계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기록에서 도덕적 근거를 이유로 격렬하게 공격하고 또 거부한)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들이 토착화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했을 이념과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자들의 과실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의 정책이 그들에게 ‘더 많은 기계생산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외국투자자들의 시도를 좌절시킨 것도 자본주의자들의 과실이 아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수역이나 되는 주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원시적인 생활방식에 매달림으로써 더 좋은 도구와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혜택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빈궁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채택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업과 새로운 자본의 축적, 자

2)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 New York, 1948, p.198.

본가와 기업가들이다.

후진국 국민들 스스로가 초래한 곤경에 대해 자본주의와 서양의 자본주의국가를 탓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필요한 구제책은 ‘정의’가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정책들을 건전한 정책, 즉 자유방임주의로 대치시키는 일이다.

자본주의국가에 살고 있는 일반사람들의 생활을 현재의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은 모호한 개념에 대한 헛된 탐구가 아니라, ‘추악한 개인주의자’, 또한 ‘착취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후진국들의 빈곤은 그들의 국내정책이 토착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는 한편 몰수와 차등과세, 외환통제가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도덕적 근거에서 자본주의를 불공정한 체제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본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사용으로 파생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추가자본재가 산출되는 근원은 저축이다. 생산된 재화가 모두 소비되어 버린다면 새로운 자본은 존재할 수 없다. 소비가 생산보다 뒤떨어지고 소비된 재화를 초과하는 새로 생산된 재화의 잉여분이 다음 생산과정에 이용된다면, 이 과정에서부터 생산은 더 많은 자본재에 힘입어 확대될 수 있다.

모든 자본재는 중간재로서, 본원적 생산요소인 자연자원과 인간노동의 일차적 사용으로부터 소비에 쓰일 재화의 최종적인 생산에 이르는 긴 생산과정에 참여한다. 자본재는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조만간 생산과정에서 닳아 없어진다. 만일 모든 생산

품이 소비되고 이것들의 생산과정에서 다 써버린 자본재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자본은 소모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생산은 오직 소량의 자본재만의 도움을 받게 되고, 따라서 사용된 자연자원과 노동의 단위당 산출량이 적어진다. 이러한 저축감소와 투자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노력의 일부를 자본의 유지, 유용한 재화의 생산에 흡수되어 버린 자본재의 보충에 투입해야 한다.

자본이란 하나님이나 자연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소비를 신중히 제한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이다. 그것은 저축에 의해서 창출되고 증가하며, 또 추가적인 저축으로 유지된다.

자본과 자본재 자체에는 자연자원과 인간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힘이 없다. 오직 저축의 과실이 현명하게 이용되고 투자될 때에만 자연자원과 노동투입량의 단위당 산출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의 과실은 낭비되고 소모되어 버린다.

새로운 자본의 축적, 앞서 축적된 자본의 유지, 그리고 인간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의 이용 등은 목적을 가진 개인행위의 결과이다. 이러한 것들은 저축하는 검약한 사람들, 즉 이자를 벌어들이는 자본가들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소산이다. 또한 가능한 한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을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즉 이윤을 벌어들이는 기업가들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다.

자본(혹은 자본재)이나 자본을 다루는 자본가 및 기업가들의 행위도 만일 자본가와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만일 임금생활자가 그럴듯한 ‘임금의 철칙(iron law of wages)’이 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한다면, 그들의 소득을 먹는 것과 더 많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데만 쓴다면, 축적된 자본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와 보조를 맞출 것이다. 추가자본의 축적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인구의 증가로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외면적 조건의 향상에 대해 설치동물이나 세균의 방식대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역시 먹는 것과 번식하는 것 이외의 다른 즐거움도 알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문명의 국가들에서 축적된 자본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앞지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 안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물질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에 비해 증가된다. 여기에서 높은 임금률을 향한 추세가 생겨난다. 생산의 총산출량 가운데 임금생활자들에게로 가는 몫은 자본가들에게 이자로 가는 몫과 지주에게 지대로 가는 몫에 비해 높아진다.³⁾

당초의 생산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노동의 한계생산성, 바꿔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을 뽑으로써 생기는 순산출량의 감소에 대해 언급할 때에만 타당하다. 또한 그것은 일정한 경제적 수량, 확정된 재화의 양과 이 재화와 등가인 화폐와 관련된다. 생산성의 총증가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보편적인 논의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총체적 노동생산성의 개념은 무의미하며 정의내리기 어렵다. 그러한 관념은 서로 보완적인 여러 생산요소

3) 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들은 물질적인 생산요소와 노동의 이용을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적응시키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며, 단지 이전의 부적용의 규모와 이의 제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일단 부적용이 완전히 제거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계속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이익의 근원도 거듭 생겨난다.

가 제각기 생산물의 생산에 기여한 몫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근거하고 있다.

종이 한 장을 가위로 잘랐을 때, 가위(혹은 각각의 두 가위날)에게, 그리고 가위와 종이를 다룬 사람에게 돌아갈 그 결과의 할당량을 확정하기는 가능하다.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계와 도구, 다양한 원자재, 여러 육체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이너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생산에 투입되었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제작이 완료된 자동차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몫이 돌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잠시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오류는 제쳐두고 우리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는가? 이런 식으로 표결에 붙인다면 그 대답은 틀림없이 자본일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고용된 인력의 1인당’ 총생산량을 이전 시대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들, 예컨대 중국의 산출량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은 현대 미국노동자들이 더 좋은 도구의 도움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만일 자본설비(노동자 1인당)가 3백 년 전이나 오늘날의 중국보다 더 풍부하지 않았다면, 산출량(노동자 1인당)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용된 노동자수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산업의 총산출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것은 추가자본의 투입이며, 이 추가자본은 오직 새로운 저축에 의해서만 축적될 수 있다. 전체 노동력에 대한 생산성증가의 공로는 바로 저축과 투자에 돌려져야 한다.

임금률을 높이고 추가자본의 축적에 의해 제고된 산출량에서 임금생활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 축적이 인구증가율을 상회한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학설은 이 사실을 묵과해버리거나 심지어 단호히 부정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밝힌 방침을 보면 노조지도자들이 이러한 이론이 옳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를 어리석은 부르주아의 변명이라 매도해버리고 만다. 그들은 이민금지법으로 전국적인 구직자의 수를 제한하고 분야별 노동시장에서는 신참자들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구직자수를 제한하는 데 열성적이다.

임금률의 증가가 개별적인 노동자의 '생산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한계생산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즉 임금률은 개인의 '생산성'이 전혀 변동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은 많다. 이발사는 2백 년 전 그의 선조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고객의 이발을 해준다. 집사는 옛날 집사들이 피트 수상(Pitt, 1708~1778)과 팔머스턴 수상(Palmerston, 1784~1865)에게 시중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국수상의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농업에서도 어떤 종류의 작업은 수세기 전에 수행되었던 것과 똑같은 도구와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모든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률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다. 임금률이 높은 까닭은 그것이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집사를 고용한 자는 이 사람이 공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한 사람의 추가고용이 가져올 산출량의 증가에 대한 등가물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집사의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집사측의 공로가 아니라, 투자된 자본의 증가가 노동자수의 증가를 증가하기 때문이다.

저축과 자본축적의 역할을 경시하는 모든 사이비 경제학설은 불합리하다. 비자본주의사회에 비하여 자본주의사회가 풍성한 부를 창출하는 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자본재의 유효한 공급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임금생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은 임금을 벌어들이는 데 열성적인 사람들의 1인당 자본설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사용 가능한 재화의 총량 중에서 임금생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당연한 귀결이다. 마르크스, 케인즈, 그리고 이들보다 덜 알려진 수많은 사상가들이 격렬한 주장을 전개해왔으나 이 중 그 어느 이론도, 임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또 모든 임금소득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상승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인구에 비례한 가용자본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뿐이라는 주장에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에 대한 '부르주아적' 편견

서양문명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다.

분업제도의 사회적 협동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투쟁, 그리고 행복의 물질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에서 인간이 거

둔 성공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원천이다.

그러나 만일 공동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인간본성 그대로의 방종한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평화적인 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억제수단에 호소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강압과 강제라는 사회적 장치 없이는, 즉 국가와 정부 없이는 사회가 영위되어 나갈 수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통치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의 노예로 만들지 않도록 억제하는 문제이다. 자유를 위한 모든 투쟁의 목표는 무장한 평화방위자, 즉 통치자와 그들의 경찰을 견제하는 일이다. 개인적인 자유의 정치적 개념이란 곧 경찰력의 전단적專斷的인 행동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라는 이념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서양에만 특유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동양인들이 자유의 이념을 결코 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불멸의 영광은 그들이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처음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역사적 연구는 이전까지 그리스인의 공으로 돌렸던 과학적 업적의 시원을 동양으로까지 소급 추적했다. 그러나 자유의 이념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발원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및 역사가들의 저작들은 자유의 이념을 로마인에게, 그 후에는 근대유럽과 미국에 전수했던 것이다.

그것은 좋은 사회의 수립을 위해서 서양이 세우는 모든 계획의

본질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인류가 자본주의시대에 그 이전까지 전례가 없었던 모든 위업을 성취하는 데 공헌한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낳았다.

근대의 모든 정치 및 사법제도의 목적은 정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대의정치와 법의 지배, 행정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법원과 재판의 독립, 인신보호영장, 행정법령의 사법심사와 구제, 언론출판의 자유, 정교분리, 그리고 여타 많은 제도들이 목적하는 바는 오직 하나, 즉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그들의 전횡으로부터 각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자본주의시대는 잔인한 형벌에 중지부를 찍었으며, 범죄에 대한 형벌을 범죄자가 범법을 단념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경감시켰다. 자본주의는 용의자와 법률위반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고문과 비난받을 만한 그 밖의 방법을 폐지시켜 버렸다. 자본주의는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법률 앞에 만인의 평등을 선언했다. 그것은 또한 전제정치하의 시민들을 자유시민으로 변형시켰다.

물질적 진보는 행정업무에서의 이러한 개혁과 혁신의 결과였다.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물질적 조건을 더욱 충족시켜 주는 온갖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 독창적인 사람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부여되었다. 인구는 증가되었지만 이 증가된 인구는 그들의 조상보다 더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서양문명국에서도 한때 전제정치의 옹호자, 한편으로는 독재자나 귀족의 독재적 전제정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 모든 인민의 종속의 옹호자가 있었다. 그러나 계몽운동 시대에 이러한

주장은 점점 약화되고 자유의 대의가 보편화되었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자유원칙이 거둔 승리의 진군은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탁월한 철학자와 역사가들은 역사적 진보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을 향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신념과, 노예제도 찬성자들의 음모와 책략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추세를 결코 저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었다.

자유주의적 사회철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유의 이념에 입각하여 영향을 발휘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 즉 엘리트교육에서 고대 그리스의 문학에 부여됐던 탁월한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의 저술가 중에는 플라톤처럼 만능정부를 옹호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대의는 자유의 추구였다. 현대적인 제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건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과두정치로 불리워졌다. 그리스의 정치가, 철학자, 역사가들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선이라고 찬미했던 자유란 소수에게만 제한된 특권이였다.

재유외국인과 노예에게는 자유를 부인하면서 그들은 사실상 과두정치 독재자의 세습적인 계급의 전제정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에 대한 찬미를 허위로 치부해버린다면 이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유를 찬양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 2천 년 후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명자 가운데 있었던 노예소유자 못지않게 성실했었다.

군주반대론자Monarchomachs(16세기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군주에 대하여 저항과 반란을 주장했던 정치이론가의 집단—역주)의 사상, 휘그당원Whigs(17,18세기에 일어난 민권당으로 토리당Tory과 대립하여 19세기에 지금의

자유당이 된 정당의 당원—역주)의 철학, 알투스우스Althusius(독일의 법률가, 민주주의 원칙의 옹호자, 1557~1638—역주), 그로티우스Grotius(네덜란드의 법률가 및 정치가, 1598~1645—역주), 존 로크John Locke의 이념, 그리고 근대헌법과 인민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선언 창시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낳은 것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문헌이었다.

스튜어트왕조the Stuarts의 영국에서, 부르봉왕조the Bourbons의 프랑스에서, 그리고 군주들의 전제정치 지배하에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자유정신을 일깨웠던 것은 자유주의적 교육의 본질적 특징인 고전연구였다. 자유의 제일가는 적인 메테르니히Metemich와 거의 맞먹는 19세기 정치가인 비스마르크Bismarck 같은 사람도 프레데릭 윌리엄Frederich William 3세 치하의 프러시아에서조차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을 기초로 교육했던 ‘감나지움Gymnasium’이 공화정치의 근거지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⁴⁾ 자유주의적인 교육의 교과과정에서 고전의 연구를 제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과정의 특성을 말살하려는 격렬한 노력은 노예근성적인 이데올로기 부활의 주요한 발현이었다.

1백 년 전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반자유론자들의 사상이 압도적인 힘을 획득하리라는 것을 예견했다. 자유의 이상이 매우 굳건하게 뿌리박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반동적인 운동도 결코 그것을 뿌리뽑는 데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자유를 공공연히 공박하고 진심으로 종속과 속박으로의 복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모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자유주의는 초자유주의Super-liberalism로서, 바로 자유와 해방

4) Bismarck, *Gedanken und Erinnerungen*, New York, 1898, Vol.1, p.1.

이념의 실현과 완성으로 위장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것이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경제계획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한 것이다.

지적인 사람이라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경제 계획 주창자들이 목적했던 것이 가장 과격한 개인적 자유의 폐지와 만능정부의 확립이었다는 것을 결코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확신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좌익인사 및 민주주의자로 불렀고, 오늘날에는 심지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지식인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대중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즉 야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범하게 설정한 목표들이 그들의 능력부족으로 성취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 총명하지도, 근면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졸렬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들의 결함을 전가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데 열중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자신들의 졸렬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체제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확신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기실현은 소수에게만 가능할 뿐이라고 선전했다.

“자유방임주의적 사회에서의 자유란 단지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그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즉 그들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 욕구불만에 찬 범인凡人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따라’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사회주의의 문제가 단지 논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명확한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자유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은 소련에서의 경험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옹호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와 자유의 양립가능성을 믿도록 만들려고 할 때, 억지로 사실들을 왜곡시키고 명백한 말들의 의미를 그릇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 라스키Laski 교수(그는 죽을 때까지 영국 노동당의 탁월한 당원으로서 당수를 역임했고 스스로 비공산주의자, 심지어 반공산주의자로 자처했다)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가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음도 분명하다.”⁶⁾

사실 소련사람들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마느냐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나 당국이 정해놓은 사고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무자비하게 숙청된다. 확언하건대 ‘숙청된’ 모든 정치

5) H. Laski, *Liberty in the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IX, p.443.

6) Laski, 앞의 책, pp.445~446 참조.

인, 공무원, 저술가, 음악가, 과학자들은 반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광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고위당원들이었다. 최고위 당국에서 소련의 교조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정당하게 인정하여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유일한 범법행위는 그들의 사상, 정책, 저작물과 작곡 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탈린의 사상과 취향의 가장 최근 변화에 재빨리 적응시키지 못한 것뿐이었다.

만일 ‘자유’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다붙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자유가 없는 나라였음은 분명하다.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저 악명 높은 ‘일당원칙one party principle’이라는 소련의 모형을 채택했으며,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를 억압했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에서 볼셰비키와 파시스트간에 역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교의에 충실했으며 공산주의자 의원단의 멤버였던 안토니오 그라지아디 Antonio Graziadei가 여생을 편히 마쳤다. 그는 명예교수의 칭호를 가지고 정부연금을 받으면서 가장 저명한 이탈리아의 출판사와 함께 자유롭게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저작을 저술하고 발간할 수 있었다. 그가 받은 자유의 제약은 라스키 교수가 즐겨 말했듯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유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받은 제약보다 덜 엄격한 것이었다.

라스키 교수는 실제적인 자유는 반드시 법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되풀이했다. 즉 법은 항상 “국가기구

를 지배하는 자들이 만족하게 여기는 생활방식에 기초한 안전의 협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⁷⁾

이러한 라스키 교수의 말은 법의 목적이 내전을 부추기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데 열중하는 음모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한, 자유로운 국가의 법을 올바르게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스키 교수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급진적인 방법으로 변혁시키려 한다면 일시에 자유의 전체적인 구조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라고 첨언한 것은 크게 잘못된 서술이다.⁸⁾

라스키 교수와 그의 모든 동료들의 위대한 우상인 칼 마르크스의 경우를 들어보자. 1848년과 1849년 처음엔 프러시아에서, 그 뒤엔 역시 다른 독일의 주에서 혁명의 조직과 실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는 법률상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아내, 아이들, 하녀와 함께 처음엔 파리로, 그 다음엔 런던으로 추방되어 주거를 옮겼다.⁹⁾ 그 후 평화가 돌아오고 실패로 끝난 혁명의 선동자들에게 대해 사면이 베풀어지자 그도 자유롭게 독일을 왕래하였다. 그는 이제 망명객이 아니었다. 런던에 주거를 정한 것은 그의 의지였다.¹⁰⁾ 1864년 그가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 Men’s

7) Laski, 앞의 책, p.446 참조.

8) Laski, 앞의 책. p.446 참조.

9) 1848년과 1849년 동안의 마르크스의 활동에 관해서는 모스크바의 Marx-Engels-Lenin Institute에서 발간된 Karl Marx, *Chronik seines Lebens in Einzeldaten*, 1934, pp.43~81을 볼 것.

10) 1845년 마르크스는 자발적으로 프러시아의 시민권을 포기했다. 그 후 60대 초반에 프러시아에서 정치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했으나, 정부에서 그의 시민권회복 청원을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의 정치적 진로가 막혀버린 셈이다. 아마 이 때문에

Association를 창립했을 때, 아무도 그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이 단체가 공언한 유일한 목적은 위대한 세계혁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협회를 대표하여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저지당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저술을 발간하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데, 라스키 교수의 말을 빌면 이 저술들과 기사들은 ‘부유한 자들의 재산권을 과격히 방법으로 변혁시키려는’ 노력이 분명했다. 마침내 그는 1883년 3월 14일 런던 메이트랜드 파크 로드Maitland Park Road 41번지에 있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또한 영국 노동당의 경우를 보자. 라스키 교수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부유한 자들의 재산권을 과격히 방법으로 변혁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도 방해 받지 않았다. 반체제인사인 마르크스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에서 편안히 저술을 하고 혁명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후의 영국 노동당은 모든 정치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다. 소련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반대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와 굴종의 차이점이다.

자유와 서양문명

런던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것 같다.

자유를 법률적·헌법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또 이의 현실적 구현을 사회제도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료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자유롭게 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강조하는 데서는 균등의 문제와 부딪친다. 자유의 주창자치고 이제까지 관료의 전횡을 억제하는 일이 시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 속에서 생활과 모순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뿐이다. 헌법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선언 등이 자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경쟁적인 경제체제가 경찰측의 침해에 대항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유를 보호해줄 뿐이다.

시장경제하의 사람들은 사회분업이라는 구조 안에서 목표하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이 직업을 통해 그들과 동류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계획경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계획경제하에서는 당국이 각자의 직업을 결정한다. 상급자의 재량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더 좋은 지위로의 승진은 상급자의 자비심에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싼값으로 더 좋은 물건을 대중에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데 이를 쓸 수 있다. 자본이 부족하다고 그의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는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임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기 때문

이다. 한 사람의 사업활동의 결과는 오직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에 달려 있다.

임금생활자 역시 고용자의 전횡에 좌우되지 않는다. 관련된 직무에 가장 적합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실패하거나 그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가는 순수입의 감소라는 곤란을 당한다. 고용자는 그의 피고용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다. 그는 원료와 공장설비를 구입하는 것과 똑같이 사업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써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자유롭게 찾아나설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각 개인의 지위와 소득을 결정하는 사회적 선택과정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막대한 부가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뛰어난 신참자들의 능력으로부터 위협받는 기득이권에 정부가 보호를 베풀지 않는 곳에서는 과거에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를 획득해야 한다.

분업하의 사회협동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그 구성원이기도 한 구매대중이 자신의 서비스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좌우되고 있다. 물건을 사거나 사기를 꺼리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제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사회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할당하는 최고 결정기관의 한 구성원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낮은 소득을 할당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

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그와 동류의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헌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하의 자유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행동의 자유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자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업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른 자유란 상상할 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경제적 자급자족이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자유의 영역을 축소시켜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집권자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전개된 본질적인 논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사회주의란 하나의 경제체제로써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사회의 경제조직의 한 체제로 생각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주의는 사회협동을 붕괴시키고 빈곤과 혼란만을 초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자유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반목이라는 본질적인 경제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시아인과 달리 전적으로 자유 속에서의 생활에 순응하는 존재이며 자유 속의 생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 중국, 일본, 인도 및 회교국들의 문명은 이들 나라가 서양의 생활양식과 친숙해지기 이전에 이미 야만적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미 수백, 수천년 전에 산업기술, 건축, 문학, 철학 및 교육제도의 발전에서 경이적인 업적을 쌓았다. 그들은 강력한 제국을 창건하고 조직화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노력은 정지되고, 그들의 문화는 둔화·정체되었으며, 경제적인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지적·예술적 재능은 시들어갔으며, 예술가와 학자들은 전통적인 유형만을 우둔하게 복사했을 뿐이었다. 신학자, 철학자, 법률학자들은 선대 저작의 변함없는 주석에만 골몰했다. 조상들이 세운 기념비적인 업적은 무너져 버렸고 제국은 붕괴되었다. 인민들은 활력과 정력을 상실하였으며 쇠퇴와 무력화의 진행에 직면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렸다.

동양철학의 고대 저작과 시는 서양의 가장 가치있는 저작들과 비교할 만하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동양은 이렇다 할 만한 중요한 저서를 내지 못했다. 근대의 사상사나 문학사에는 동양학자들의 이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동양은 더이상 인류의 지적 노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나 논쟁들이 동양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다. 유럽에는 격동이 있었지만 동양에는 정체와 나태와 무관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동양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원초적인 관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은 자유의 가치를 들어 올리지도 않았고 통치자의 권력에 대항해서 개인의 제권리를 결코 강조하려 들지도 않았다. 또한 독재자의 전단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폭군들의 몰수에 대항하여 서민의 사적인 부를 보호할 법률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유한 자들의 부는 빈곤한 자들의 가난의 원인이라는 관념에 현혹되어 모든 사람들은 통치자가 성공한 사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에 찬성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대규모의 자본축적은 방해되고 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시민계급bourgeoisie’은 결코 생겨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학자·예술가·발명가들을 격려하고 후원할 민중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민臣民들의 자손들에게는 개인적인 영달로 이르는 모든 길이 막히고 오직 한 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즉 군주를 섬기는 길을 모색해나가는 것뿐이었다.

서양사회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개개인의 공동체였다. 동양사회는 전적으로 군주의 은총에만 매달려 있는 신민들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서양의 민활한 젊은이들은 세계를 명성과 고귀함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활동무대로 간주했다.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었다. 동양의 유순한 자손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일상적인 절차만을 추종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서양인의 고귀한 자기의존의 당당한 표현은 인간의 그 진취적인 노력에 대한 소포클레스Sophocles의 합창곡 풍, 안티고네Antigone 찬가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같은 열광적인 시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이제까지 들은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동양문명 건설자들의 자손이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만능정부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까? 전능한 계획수립자에 의해 고안되고 작동되는 거대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로 봉사하는 것이 오직 그들의 임무라면, 그들이 과연 그러한 체제에서 만족하겠는가? 정체된 문명의 정신이 수천, 수만에 달하는 사람에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고귀한 이상을 휩쓸어버릴 수 있겠는가? 타키투스Tacitus(로마시대의 웅변가·정치가·역사가, 55?~117A.D.—역주)는 티베리우스Tiberius(로마황제, 42B.C.~37A.D.—역주)시대의 로마인들을 두고 우울하게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다Ruere in servitium.”

제5장

‘반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 세상에 불변성과 부동성이란 있을 수 없다. 변화야말로 생명체의 본질적 특징이다. 모든 세상사는 무상하며, 따라서 각 시대는 변천하기 마련이다. 인간생활에서도 평온과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지, 현상에서의 유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불변의 존재라는 이미지에 속아왔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모든 운동의 목표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의 심리적 동기는 명백하다. 모든 변화는 인생과 행복의 외면적 조건을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새롭게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변화는 기득의 이권을 해치고 전통적인 생산 및 소비양식을 위협한다. 이 변화는 또한 지적인 활력을 상실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기를 겁내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보수주의는 바로 이러한 인간행동의 특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주의라는 것은 기민한 소수에 의해 착수되는, 그들 자신의 제조건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려는 활성적이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소중히 여겨왔던 강령이다.

‘반동주의적(Reactionary)’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오직 자신들의 과당을 보수적이라고 불렀던 귀족과 사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그러나 반동적인 정신의 현저한 예는 이들이 아닌 다른 집단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즉 자신들의 분야에 신참자들이 가입하는 것을 막는 장인들의 동업조합(guild), 관세보호, 보조금 및 ‘패리티 가격(parity prices)’을 요구하는 농민들, 과학기술의 진보에 반감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고용요구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지지하는 임금생활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지식계급과 방종한 예술가들의 자기도취적인 오만은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적이지 못한 돈벌이로 간단히 취급해버린다. 그러나 기업가들과 새 기업의 창립자들이야말로 보통의 작가나 화가보다 더 많은 지적 능력과 직관력을 발휘한다는 게 사실이다. 다수의 자칭 지식인들의 졸렬함은 기업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재능과 사고력이 필요한가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천박한 지식인 계층의 등장은 현대 자본주의시대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들의 주제넘은 활동은 분별력있는 사람들을 내쫓는다. 이들이야말로 남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소란을 억제하거나 더 나아가 이들 도당과 패거리들을 깡그리 쓸어버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아무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란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퇴폐적인 말썽꾸러기 지식계급과 사이버 예술가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당국에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는 곧 지적이고 예술적인 노력을 사회주의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고약한 사람들을 제거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 창조적인 정신의 앞길에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예술양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은 어떠한 종류의 혁신도 반대한다. 이들의 최고권력은 결과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낳고 정체와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비열한 자칭 저술가와 예술가 계급의 도덕적 부패, 방종, 그리고 지적 불모성은 창조적인 선구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성취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류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이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자유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파리의 ‘학생거리quartier Latin(학생·예술가가 많이 사는 구역—역주)’의 초라한 인물들이 누렸던 지나친 방종license은 몇몇 위대한 작가, 화가, 조각가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조건이 되었다. 천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는 일이다.

결국 파국을 초래하는 것은 자유방종한 자들의 천박한 교의가 아니라 민중들이 이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여론형성자들의 이러한 사이비철학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과도된 대중들의 반응이 화근인 셈이다. 대중들은 촛뜨기나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유행하는 주의主義를 뒤쫓기에 바쁘다.

지난 60년 동안 가장 해로웠던 이데올로기는 조르주 소렐(George Sorel, 1847~1922)의 노동조합지상주의syndicalism와 ‘투쟁적인 실천action directe’에 대한 열성이었다. 프랑스의 좌절된 지성인이 창시한 생디칼리즘은 곧 모든 유럽국가의 지식계급들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모든 전복활동의 급진화를 초래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군주주의, 군국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생디칼리즘은 러시아의 볼셰비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발전, 그리고 결국 나치즘의 출현을 초래케 한 독일 청년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승리에 열중하고 있던 정당들을 무장집단의 조직에 의존하는 파당으로 변형시

켜 버렸다. 또한 대의정체와 ‘시민계급의 안전bourgeois security’에 대한 평판을 악화시키고 대란 및 외국과의 전쟁을 선동하였다. 주된 슬로건은 바로 ‘폭력 또 폭력’이었다. 현재의 유럽사태는 대부분 소렐의 가르침이 보급된 결과이다.

소렐의 사상을 제일 먼저 환호하며 받아들인 것은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이 그의 사상을 널리 퍼뜨린 것이다. 그러나 소렐사상의 취지는 명백히 반지성적이었다. 그는 냉정한 논구와 침착한 숙고에 반대했다. 소렐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 즉 폭력을 위한 폭력의 행위이다.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든간에 이 신화를 깨부수기 위한 투쟁이 그의 권고였다.

“만약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판적인 논박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¹⁾

파괴를 위해 파괴를 부르짖다니 이 얼마나 기묘한 철학인가? 논의하지 마라, 따지고 들지 마라. 단지 죽여라! 소렐은 심지어 혁명을 옹호하는 저서까지를 포함하는 ‘지적인 노력’마저 거부한다. 그가 내세운 또다른 신화의 본질적인 목표는 ‘존재하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 인민들이 투쟁하도록 각오하게 만드는 일’이다.²⁾

그러나 파괴주의적 사이비철학의 보급에 대한 책임이 소렐이나 레닌, 뭇술리니, 로젠버그Rosenberg(독일의 나치지도자이며 작가, 1863~1946—역주)와 같은 그의 제자들, 일군의 무책임한 지식계급 및 예술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앙은 수십년 동안 거의 아무도 광신적 무리들의 호의적 의식을 감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파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무모한 폭력사상을 솔

1) G' Sorel, *Réflexions sur la violence* 3d ed., Paris, p.49.

2) Sorel, 앞의 책. p.46 참조.

직히 지지하기를 피했던 저술가들마저도 독재자들의 최악의 무절제를 어떤 면에서 동정적으로 해석하기에 열중했었다.

최초의 소심한 반론이 제기된 것은, 참으로 너무 뒤늦게도 겨우 이러한 정책의 지적인 선동자들이 심지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열성적인 지지자에게조차 고문과 처형의 면제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였다.

오늘날에는 가짜 반공산주의전선이 존재한다. 그들 자신은 ‘반공산주의적 자유주의’라 칭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게 ‘반반공주의자anti-anticommunists’라 칭하는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직 미국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공산주의에 고유하고 필연적인 그러한 특징도 없는 공산주의이다. 이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데 착각을 범하고 있으면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비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데 뒷받침이 되는 논거를 『공산당선언』이라는 문서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계획경제국가나 복지국가란 별칭으로 부르는 정도로써 그들의 논거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자들 the Reds’의 혁명적이고 독재적인 야망을 거부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책이나 잡지, 학교나 대학에서 공산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창자인 칼 마르크스를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또한 인류의 탁월한 은인이나 해방자로 찬양한다. 그들은 삼각형 같은 사각형이란 말과 다름없는, 비전체주의적 전체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게끔 만들기를 원한다.

공산주의에 대해 온건한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구사한 비난적인 어휘로부터 빌어온 말로써 자본주의를

매도하는 데 열중한다.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 열성적으로 자본주의를 멸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불미스러운 행위를 자본주의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소름끼치는 듯한 혐오감’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정당화한다. 요컨대 그들은 인민들을 『공산당선언』 사상으로 전향시키려는 의도로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척 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칭 ‘반자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배적 위치에 있지 못한 일종의 공산주의체제이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이나 가장 친밀한 동료들이 정권을 잡는 체제인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체제이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숙청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고 있다면 아마 지나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절대로 숙청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오직 최고독재자와 그의 방조자만이 이러한 보장을 받는다.

‘어떤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란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성공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이러한 반대운동의 통렬한 비난은 그들이 공격하는 강령을 선전하는 결과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하며, 아무리 심한 악이라 하더라도 그 악을 단지 거부만 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강령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실정과 온갖 사회주의적 실험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환멸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가짜 반공산주의만 없다면 오늘날 서구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구, 미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양 문명국가들

이 소련정부의 만행에 의해 노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공개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지뿐이라고 생각한다.

부 록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1881년 9월 29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소도시 렘베르크(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로보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국영철도회사에서 토목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생애는 연대순으로 보면 세 단계로 구분된다. 초기는 제1차 세계대전 전과 대전중 박사학위(1906년)를 받은 젊은이로서 진로를 결정하고 군복무를 한 시기였다.

다음은 유럽에서의 양차대전 사이에 오스트리아정부의 경제담당 고문으로 일하면서 많은 책을 저술하는 한편, 비엔나대학교와

제네바(스위스)의 국제연구원에서 강의하며 그의 독자적인 세미나를 열고 경기순환연구원을 설립·운영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그는 자유시장 및 건전통화의 용기있는 옹호자로서 국제적인 경제관계 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갔다.

제3기는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의 시기였다. 히틀러가 미제스의 조국 오스트리아를 점령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1940년 미제스 교수는 전쟁으로 황폐한 유럽을 떠난 피난민으로서 새로운 미국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역의 땅에서 거의 60세가 다 되어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저술과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에는 많은 청중들이 운집했고 그의 저작을 찾는 독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64세 때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는데 그 후 88세까지 그 직무를 계속했다.

영어로 씌어진 그의 주요저작 6편은 환갑이 지난 뒤 그를 맞아 아들인 미국에서 발간되었다. 『관료제도Bureaucracy』 『만능정부Omnipotent Government』 『인간의 행동Human Action』 『반자본주의 심리Anti-Capitalistic Mentality』 『이론과 역사Theory and History』 『경제학의 본원적 기초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등이 그것이다. 미제스는 대략 15편의 저서와 본격적인 전공논문, 그리고 2백여편이 넘는 논설 등을 집필했다. 그는 13개국에서 강연과 강의를 해나갔다. 신간과 12개 국어로 번역된 저서를 통해 그의 저작들은 계속 새로운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오랫동안 미제스는 ‘오스트리아학과Austrian School’ 경제이론의 지도적 대변자였다. 한계효용과 주관적 가치론의 절대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서술하고 인식한 것이 이 학파의 대표자들이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론은 모든 경제행위를 각 개인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가치까지 소급하여 추적했다. 이 이론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 귀결되는 시장의 복합적인 과정을 해명하였다.

시장의 제현상을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1백여 년 전(1871년)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시자인 칼 멩거Carl Menger였다. 이 학설은 그당시 고전학파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키고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기반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혁명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졌다.

멩거가 개설한 한계효용 및 주관적 가치론은 온갖 가치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예컨대 이 가치론은 소비자가 시장에서의 생산을 지배한다는 논제, 즉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에 이른다.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와 강매거부행위는 생산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호와 지불능력에 맞추어 그들이 가장 원하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미제스는 멩거보다 40년 연하였으나, 멩거의 저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다. 미제스는 멩거의 가장 뛰어난 오스트리아인 후계자인 오이겐 폰 뵘 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와는 더욱 친숙하게 지냈다. 뵘 바베르크가 재무상을 그만두고(1904년) 강단으로 복귀하자, 미제스는 제1차 세계대전 초 군복무를 위해 재소집될 때까지 뵘 바베르크의 대학원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다.

미제스 교수의 연구, 저작 및 강의는 멩거와 뵘 바베르크의 사상노선에 충실하게 동조해왔다. 그러나 미제스는 그들의 가르

침을 뛰어넘어 현대시장경제의 매우 복잡하게 얽힌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왜곡까지도 다루었다.

미제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간섭주의적 정부가 빈번하게 심각한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누리는 것은 단지 국민들이 품고 있는 그릇된 경제적 관념의 결과라는 것이다.

미제스의 모든 저작에 일관되는 주제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관념이지, 역사가 관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직 건전한 관념만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경제정치적 정책에 이를 수 있다.

거짓된 논리와 현실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관념은 저술가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의도한 목적을 실패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저술가들과 옹호자들의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못한 상태마저 초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미제스는 적어도 그의 영예에 부응하는 세 가지 주요한 독창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미제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전체 학문분야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서술하는 데 있어 ‘오스트리아학파’의 두 거인인 멩거와 뵘 바베르크를 뛰어넘었다. 가장 중요한 저작 『인간의 행동 Human Action』에서 미제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의식적이고 목적추구적인 행동을 다루는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미제스의 두번째 공헌은 사회주의나 통제사회는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논증이었다. 시장가격이란 오직 각 개인이 소유의 자유를 갖고 사적으로 소유된 재산인 재화, 서비스, 원자재, 노동 및 그 밖의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에만 생겨날 수 있

다.

시장경제사회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앞으로의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생산자들에게 되돌아가는 ‘피드백(feed-back)’이 존재한다.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한편으로는 재화와 서비스,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되는 상품(화폐) 사이에 교환비율(가격)이 생겨난다. 이 교환비율(가격)은 생산자와 기업가에게 소비자들이 장차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한다.

만일 생산자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듯이,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순응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계획으로부터 이탈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장도 다양한 생산요소들 사이의 경쟁이 있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시장가격이란 것도 존재할 수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수립자가 다양한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치나 중요성을 결정할 방도가 없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세번째 공적은 경제의 호황이나 침체, 즉 경기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미제스는 칼 멩거의 화폐이론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화폐이론은 화폐란 단지 사람들이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아주 편리한 시장상품 easy-to-market commodity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제스는 또한 뵘 바베르크의 이자론을 근거로 이를 발전시켰는데, 이자율은 각 개인의 시간적 선호에서 기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이론으로부터 미제스는 경기순환에 관한 화폐이론,

혹은 ‘오스트리아학과’ 이론을 발전시켰다.

미제스는 인플레이션을 물가상승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 내재된 위험을 인식한 몇 안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관리보다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기업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가격과 임금의 통제가 물가상승에 대한 논리적 해결책으로 여겨지게끔 만든다. 그러나 미제스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은 다만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욕구에서 정부가 새 화폐를 창출한 결과에 불과하다.

미제스는 온갖 형태의 정부간섭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비판한 사람이었다. 경제적 제원리에 대한 그의 예지는 그로 하여금 금세기 동안 세계를 덮쳐왔던 수많은 극단적 제결과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마르크화의 화폐가치 폭락, 히틀러와 기타 간섭주의적 정부들의 민족주의적 정책과 계획, 인위적인 통화기준과 종이금paper gold이라는 특별한출권제도의 붕괴) 등을 예언할 수 있게끔 했다.

이러한 미제스의 예언들은 적중했다. 청년시절에는 때때로 사람들의 지능을 과대평가하여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제적 오류에 입각한 행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릇된 관념에의 신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를 예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의 예언은 민중의 오류가 조만간 좌절로 끝나리라는 점에 대한 질적인(양적이 아닌) 해명이 되었다.

미제스가 서술하듯이 자유시장경제야말로 진정으로 존속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유토피아적인 사상가의

나태한 백일몽이 아니다. 그것은 실행 가능하고 실효성있는 경제체제이며 얼마든지 장기간에 걸쳐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것이다.³⁾

베티나 비엔 그리브즈 Bettina Bien Greaves

미제스의 저작에 대한 평가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의 『반자본주의 심리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는 그의 저서 중 가장 쉽게 씌어진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스트리아의 신고전파 경제학 Austrian Neo-Classical economics에 관한 적절한 입문서라 할 수 있다.

미제스 박사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강단을 지켜왔다. 따라서 정규교육을 높이 평가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수년 전 학교를 졸업한 뒤 책을 철저하게 읽는다는 것은 대학에서의 4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년 동안 읽은 것 이상으로 스스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자료는 1971년 9월 25일자 Human Events 제3권 No.39에서 발췌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선택한 독서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졸업한 뒤 학구열이 식어버리는 사람은 그의 지적인 성장에 ‘한계’를 지닌다.

- 1) 대학에서의 교육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 2) 지속적인 독서와 연구에 필요한 분야의 선택이 중요하다.
- 3) 그러한 분야에서 최선의 책을 선택하는 데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 4) 그러한 책들을 마스터해야 한다.
- 5) 특정분야에서의 철저함이 다방면에 걸친 잡다한 지식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현명하고 유용해진다. 즉 그러한 사람은 지적 성장에 한계가 없다.

경제학의 연구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 I. 고전파
- II. 사회주의파
- III.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 IV. 간섭주의파

I. 고전파

고전파 경제학은 저 유명한 가장 초기의 경제학이었다. 이것

은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학파로 대표적인 학자를 들자면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그리고 이들의 동조자들을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사상은 그 시대에 ‘새로운 경제학’을 형성하였으며, 산업혁명과 번영의 맹아를 탄생시킴으로써 세계적 전망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까지 확산된 경제적 번영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명백히 언명한 ‘제원리’와 그들의(경제학자들마다 반드시 똑같이 언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제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제원리와 전제는 단순했다. 즉 ① 당장 명백한 결과보다도 오히려 포괄적인 결과에 따라 기능을 판단하는 것 ② 번영하는 문명에 언제나 기초가 되어온 도덕성의 제원리, 즉 폭력, 재산몰수, 또는 사기 등의 행위를 제약하는 논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③ 기타 모든 것이 창의성과 분별력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따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것 등이다.

1) 어떤 사물을 즉석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통찰력을 외부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또한 보통사람이라면 거의 착수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사리 이르지 못하는 주의깊은 논구에 힘쓴다.

2) 경제학은 원인과 결과에 관해 논구할 때 그것이 추정하는 윤리규범을 지켜야 한다. 고전파 경제학은 경제활동에의 참여자가 폭력의 행사나 절도, 혹은 사기에 의해 그들의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술책을 삼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모든 일에 있어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자유의 개념이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스미스와 그의 동조자들은 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범적 논리의 침해라는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 더욱 더 사회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에서 고전파 경제학을 극히 단순화시켜 설명해보았다.

II. 사회주의파

다음에는 고전파 경제학의 제원리에 대해 반발하는, 즉 고전파 경제학에 가장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사상을 보기로 한다. 고전파 경제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이에서의 쟁점은 고전파 경제학이 사람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창의성의 발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즉 사람들이 얻는 보상은 그들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에 의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비례해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결과의 균등성(end-equality)’이 있어야 하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협동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균등하지 않은 제규칙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고전파 경제학의 원리를 뒤엎어버린다. 고전파 경제학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균등하면서도 상이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규칙을 세우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모든 참여자에 대한 균등한 보상의 획득을 추구하는 바, 그것은 물론 각기 상이한 참여자에 대해 상이한 규칙의 적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균등하지 않은 제규칙(불공평한 규칙)에 의해 얻어지는 균등한 보상은 소득의 균등이며 소유권의 불평등에 대한 거부인데, 이 모든 것들은 중앙집권적인 계획 및 수동적인 합의나 강제력의 행사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는 한편으로는 균등한 규칙, 다른 한편으로는 균등한 결과 중의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을 공박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발견해냈다. 고전파 경제학의 지적인 구조에 대해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오류라고 지적한 것 중의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혹은 이해했다 하더라도 양측의 이론에 대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력과 용기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III.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고전파 경제학의 비판이 더 나은 이론의

발전을 자극하리라는 것은 예기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영국의 제본스, 스위스의 레온 왈라스, 그리고 스웨덴의 크누트 빅셀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에 응수한 탁월한 경제학자는 비엔나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칼 멩거였다. 그 후에 그의 노력의 성과는 어깨를 나란히 그를 추종했던 두 후계자 폰 뵘 바베르크와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작업으로 보완되었다.

이들 세 사람과 이들의 동조자들은 초기의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는데, 이들의 작업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룩된 지적 성과만큼이나 탁월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들이다.

누구든지 이들의 두 가지 중요한 성과, 즉 첫째, 최초의 고전파 경제학 사상에서의 필수적인 발전과 둘째,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제원리에 대한 완전한 반격을 찾으려는 사람은 칼 멩거, 폰 뵘 바베르크, 그리고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저작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후기시대를 빛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 이론의 역사를 더욱 더 훌륭하게 장식한 귀족들이었다.

경제사상에 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작업은 곧 ‘혁명적’인 것으로, 경제학을 전혀 새로운 기반 위에 정립시키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이해된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헝가리(구연합왕국)와 독일어권

국가에 암영을 드리웠다. 더욱이 오스트리아인의 사상은 매우 독특한 데다 특이한 접근방식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 모두가 오스트리아 저서들을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용이하게 읽을 만한 독일어 실력도 갖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5년이 지나기까지 멩거나 뵘 바베르크의 적절한 영역본도 없었다.

IV. 간섭주의파

이제 우리는 경제학 이론의 역사에 있어 네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네번째 국면이 바로 간섭주의 경제학이다. 이 국면이 현재(1972년)의 미국인들이 처해 있는 시기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뵘 바베르크, 그리고 미제스의 작업에 대한 영미 경제학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영어권 세계는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유혹에 노출됨으로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간섭주의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단조로운 예증은 그 관념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 마리의 소를 놓고 그 사유권에 관해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한다.

“그 소를 압수하라. 그리하여 국가소유로 하라.”

그러한 경제계획에 대한 히틀러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았다.

“그렇게 되면 그 소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상실한 데 대해 화를 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 자체가 아니라 소의 ‘서비스(우유)’이다. 소의 현소유자에게 빈껍데기의 소유권은 맡겨두어라(그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우유의 분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것은 간섭주의적 경제학이 뜻하는 것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가 관장하여 재분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통제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경제문제에 간섭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간섭주의를 제창한 지도적인 앵글로색슨계의 전형적인 대표자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였다. 케인즈주의는 어느 정도 고전적인 경제환경에서 교육받아 온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공산주의보다는 덜 역겨운 여러가지 형태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결과로 나타났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① 고전과 경제학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②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고전과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어느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③ 오스트리아 신고전과 경제학들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학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관해 참다운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적절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④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빈부의 극단적인 상황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을 수도 있고 ⑤ 간섭주의자가 됨으로써 자신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닐 수 있음을 깨달았으며, 또한 ⑥ 케인즈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간섭주의자가 되었고, ⑦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부분적으로 ‘시대적 사조’에 의한 산물임을 깨

닫지 못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이전보다 그 영역을 더욱 넓혔다. 이들은 논리에 선행하는 연구가 없다면 논리는 반드시 모호해질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논리를 재산의 소유와 교환을 포함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관계라고 할 때, 그에 앞서 ‘재화에 대한 인간의 관계’ 연구가 선행(아니면 적어도 동시적으로)되지 않을 경우 논리의 모호성은 피할 수 없다. 환언하면 무엇이 ‘가치’를 창조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가치를 지닌 재화를 교환할 것인가, 즉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윤리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미세스, 뵘 바베르크, 그리고 멩거의 저서를 읽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티머 아들러 Mortimer J. Adler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A Book』에서 충고하고 있듯이, 좋은 책을 읽되 현대의 가장 좋은 책만 읽지 말고 독서목록을 더욱 가다듬어,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가장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뒤에 열거한 저작목록에 들어 있는 책들은 경제학 분야에서 이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일단 독자가 신고전과 경제학에 관한 새롭고 기본적인 사상을 파악하고 나면 미세스를 어렵지 않게 읽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인에 의한 신고전파의 경제학적 사고는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사고를 적절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세스 자신은 세련된 오스트리아 신고전파적 환경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생이 오스트

리아 신고전파 사상의 완전한 의의와 정확성, 그리고 광범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저명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다. 독자들은 프리드리히 폰 비저 Friedrich von Wieser,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Friedrich A. von Hayek와 같이 이 학파에서 저명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I 부류

● 『계획된 혼란 *Planned Chaos*』(1947), New York: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c., pp.90.

이것은 간접주의 및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계몽적 경고이다. 제II부류에 속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적·사회학적 분석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의 1951년판과 1969년판에 후기로 재수록.

● 『반자본주의심리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1956),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72, pp.140.

● 『관료제도Bureaucracy』(1944), New York: Arlington House, 1969, pp.128.

● 『자유를 위한 계획과 기타 논문 및 연설Planning for Freedom and Other Essays and Addresses』(1952),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62, pp.192.

제II부류

● 『만능정부; 전체주의국가의 발흥과 전면전Omnipotent Government; The Rise of the Total State and Total War』(1944), New York: Arlington House, 1969, pp.291.

이 책은 독일이 어떻게 국가사회주의에로의 파국적인 길을 걸어갔는가를 서술하고 있어 모든 나라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독일의 노선에 관해 미제스가 제시한 서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인 미국이 단계적으로 히틀러 정권하의 국가사회주의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독자에게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 『자유와 번영의 국가; 고전적 자유주의사상에 관한 서설The Free and Prosperous Commonwealth; An Exposition of the Ideas of Classical Liberalism』(독어판, 1927), Ralph Raico 영역,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Inc., 1962, pp.207.

● 『오스트리아 경제학과의 역사적 배경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New York: Arlington House, 1969, pp.47.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스트리아학과의 위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제III부류

● 『사회주의; 경제학적·사회학적 분석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독어판, 1922, 1932; J. Kahane 영역, 1936; 『계획된 혼란Planned Chaos』을 후기로 하여 증면개정, 1951), London Jonathan Cape, 1969, pp.599.

이 분석은 ‘전면적’ 사회주의는 운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 『이론과 역사;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해설Theory and History; An Interpret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1957), New York: Arlington House, 1969, pp.384.

특히 광범한 주제에 걸쳐 지식을 제공해준다.

● 『화폐 및 신용이론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독어판, 1912, 1924; H. E. Batson 영역, 1934; 『금융재건Monetary Reconstruction』에 관한 논문과 함께 증면, 1953), New York: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c., 1971, pp.493.

이 책은 화폐와 신용에 관한 최대의 역작으로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의 궁극적 기초; 방법론에 관한 소고*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An Essay on Method*』,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Inc., 1962, pp.148.

●『인간의 행동; 경제학에 관한 고찰*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1949, 1963), 개정3판, Chicago: Henry Regnery Co., 1966, pp.907.

이 책은 폰 미제스의 ‘결작’이며, 이 분야의 가장 포괄적인 연구서이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서이다.

1) 아직 번역되지 않은 세 권의 저서.

- *Nation, Staat und Wirtschaft*(1922)
- *Kritik des Interventionismus*(1929)
- *Nationalökonomie*(1940)

2) 앞에서 제시한 목록에 들어 있는 결작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최초로 발간된 책인 1772~1848년 사이의 갈리시아Galicia 농민에 관한 역사적 연구.

3) 번역 편집되어 있으며 장차 발간될 예정인 화폐, 인플레이션 및 경기순환에 관한 세 편의 전공논문.

- “Die Geldtheoretische Seite des Stabilisierungsproblems”(1923),

pp.37.

- “Geldwertstabilisierung und Konjunkturpolitik”(1928), pp.84.
- “Die Ursachen der Wirtschaftskrise”(1931), pp.34.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작들을 포괄적으로 읽으려면 베티나 비엔이 편집한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저작*The Works of Ludwig von Mises*』, New York: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c., 1969을 참조할 것.

Menger, Carl(1840~1921)

● 『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독어판, 1871), Frank H. Knight의 서문과 함께 James Dingwall과 Bert F. Hoselitz에 의해 편역, Illinois: The Free Press, 1950, pp.328.

● 『경제학 및 사회학의 제문제Problems of Economics and Sociology』(1883), Francis J. Nock 영역, Louis Schneider가 서문을 쓰고 편집,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pp.237.

Böhm-Bawerk, Eugen Von(1851~1914)

● 『자본과 이자Capital and Interest』(독어판, 3권이 여러 판으로 각각 따로 발간됨, 1884~1921)

● 1권 : 『이자론의 역사와 비판History and Critique of Interest Theories』, pp.512.

● 2권 : 『자본의 실증이론Positive Theory of Capital』, pp.480.

● 3권 : 『자본과 이자에 대한 재고찰Further Essays on Capital and Interest』, pp.256.

George D. Huncke · Hans S. Sennholz 영역,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59(또한 3권을 합본으로도 발간, pp.1248).

● 『뵘 바베르크의 소논집 제1권(Shorter Classics of Böhm-Bawerk, Vol.I)』(독어판, 각각 발간된 5편의 논문, 1881~1914),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62, pp.392.

1) 『오스트리아 경제학자The Austrian Economists』, Henrietta Leonard 영역, 미 정치·사회학과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cience의 『연감The Annals』(Philadelphia, Pennsylvania, 1891년 1월), pp.361 ~ 384에 최초로 수록.

2) 『법적 제권리와 관계는 경제적 재화인가Whether Legal Rights and Relationships Are Economic Goods』, George D. Huncke 영역, 독어판 원본의 제목은 *Rechte und Verhältnisse vom Standpunkte der volkswirtschaftlichen Güterlehre*(1881).

3) 『통제냐 경제법이나Control Or Economic Law』, John Richard Mez 영역, 독어판 원본의 제목은 *Macht oder ökonomisches Gesetz?*

이 논문은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Vienna, Austria, Vol.23, Dec. 1914), pp.205~271에 처음 수록되었음.

4)『마르크스 경제학체계에 있어서의 미해결의 모순*Unresolved Contradiction in the Marxian Economic System*』, Alice MacDonald 영역, 독어판 원본의 제목은 *Zum Abschluss des Markschen Systems*.

이 논문은 *Staatswissenschaftliche Arbeiten-Festgaben für Karl Knies zur Fünfundszigsten Wiederkehr*(Berlin, 1896), pp.85~205에 처음 수록되었음. Alice MacDonald 영역, 『칼 마르크스와 그 체계의 종언*Karl Marx and the Close of His System*』. 영어제목의 Close는 뜻이 모호하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더 좋은 어휘는 Completion(완성)이어야 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 제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5)『가치의 궁극적 기준*The Ultimate Standard of Value*』, 독어판 원본의 제목은 *Der letzte Massstab der Güterwertes*.

이 논문은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etik und Verwaltung*(Vienna, Austria, VolIII, 1894), pp.185~230에 처음 수록되었음. C. W. Macfarlane 영역, 미 정치·사회과학 아카데미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의 『연감*The Annals*』(Philadelphia, Pennsylvania, 1894년 9월), pp.1~60에 처음 번역·수록되었음.